

현대불교

불 교 성 지 순 례 전 문

신비의 라오스 6일
8월 23일, 30일 단 2번 899,000원
야호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 / FAX(02)725-7923
E-Mail : yahotour21@hanmail.net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7월 6일(음력 6월 1일) 수요일 (주간) 제 533 호

아동보육사찰 현황파악 · 법률적용 등

관리 틀 만들자

"제2의 수경사 없어야" 여론… 조계종 · 선학원 '사과'

서울 수경사의 아동학대 사례가 알려지면서 불교계 미신고 아동보육사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불교계에는 미신고시설의 형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찰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시설 수는 물론 보호 아동의 실태 등 현황 파악도 힘든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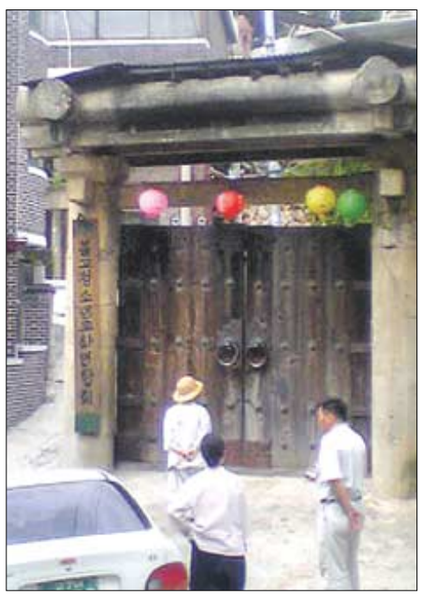
불교계 일각에서는 수경사처럼 아동이 처한 상황과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아이들이 학대받는 곳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학대예방센터와 대한간호협회가 6월 30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7월부터 아동학대 신고 및 접수를 크게 확대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도 올 12월부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법률'을 시행하는 등 사회에서 요구하는 아동보육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특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법'은 실종아동을 '약취 · 유인 · 유기 · 사고 · 가출 등으로 보호자에서 떨어진 14세 미만 아동 또는 정신지체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실종아동 신고 의무화 ▲경찰관 등 관계시설 출입, 조사권 ▲실종아동 유전자검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수경사의 경우처럼 한 단위사찰에서 아무런 신고 없이 미아나 버려진 아이들을 맡아 키우면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선고된다.

그런 만큼 아동보호시설의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교계 내의 자발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또 다른 사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보육사찰 현황 분석과 운영 및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즉, 사찰에서 보육중인 아동 실태파악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 사례가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은 수경사.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이에 따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본말사 주지 연수 교육과 산하사찰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 바뀐 법률안에 의거해 철저히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한 관계자는 "사찰에서는 전통적으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이것은 더 이상 '순수하게' 좋은 행위라고만 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아이들을 키우는 스님들 스스로 구태의연한 방식을 고수하기 보다는 아동복지법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복지 마인드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조기룡 전임연구원은 "이번 수경사 사건은 승가라는 인적관리 체계와 사찰이라는 조직관리 체계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교구본사, 말사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구본사에서 사찰 관리를 강화해 단위 사찰이 아니라 종단이 이 시설 보호 대상자들을 보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교구분권화를 통해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업무 중 상당부분은 사찰이 속해있는 교구본사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조계종은 6월 28일 수경사 문제와 관련, 사과문을 내고 "조계종은 관련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종헌 · 종법에 의거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금번 수경사 사태를 교훈삼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풍을 진작함과 더불어 무연고아동 보육사찰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수경사가 등록돼 있는 재단법인 선학원도 6월 30일 사과문을 통해 "정법과 중생을 수호하지 못한 허물을 참회하고 사회적으로 쏟아진 모든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경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사찰의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강진 기자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 **한국에 지부 개설**

本社 연수원에 사무소, 법련 · 봉은사서 만다라展 · 규토 예불의식 첫 시연

민간 교류 차원 '풀뿌리운동' 공동전개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일본 신주쿠 소재) 한국지부가 설립됐다. 쵸페 팔조 체링(사진) 동북아 사무소 대표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는 6월 30일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 한국지부 사무실을 종로구 청운동 소재 현대불교신문사 부설 연수원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현대불교신문사가 금년 초부터 준비해온 '한국-티베트 풀뿌리 운동(Grassroots movement)'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에서 총괄하던 한국-티베트 행사, 교류 등의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풀뿌리 운동'을 통해 출판, 학술, 의학, 예술분야 전반에 있어 민간차원의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국지부 개소와 한-티 교류를 기념해 첫 공식 문화행사도 열린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강남 봉은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래 만다라(Sand Mandala) 전시와 '규토사원(Gyuto) 전통 예불의식' 시연회를 갖는다. 특히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정부 내 규토사원에서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티베트 스님들의 전통 예불은 국내에서 처음 시연된다.

이밖에도 한-티 문화교류를 상징하는 차원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 대원사 티벳박물관장 현장 스님의 특별법문, 연꽃화가 희운 스님의 그림전, 티베트 관련 슬라이드 강의 등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된다.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 체링 대표는 "티베트를 알리는 공식적인 소통로가 한국에도 마련된 셈"이라며 "무엇보다 민간차원의 교류가 티베트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동국대 일산병원

6월 29일 진료 개시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6월 29일 병원 5층 대강당에서 진료개시식을 열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이날 진료개시식은 이사장 현해 스님을 비롯해 재단 이사, 동국대 의료원 관계자, 고양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 개원을 축하했다. 현해 스님은 이날 "일산불교병원이 중생구현과 불법실현의 장이 되고, 직원 모두가 대자비를 실현하는 보살이 되기를 바란다"며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일산불교병원 이석현 원장은 식사에서 "최선을 다해 진료연구 교육분야 최고의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일산불교병원은 수도권 북부 최대병원으로 양 · 한방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첨단 디지털 병원이다. 개원법회는 9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031)961-7000 관련기사 9 · 14면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초대 군종특별교구장 누구?

군불교위, 일면 · 자광 스님 천거

군 포교 사령탑인 군종특별교구 초대 교구장 후보에 일면 스님과 자광 스님이 각각 천거됐다.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 스님)는 6월 30일 서울 국방부 원광사에서 상임운영위 회의를 열고 초대 군종특별교구장 후보로 일면 스님(불암사 회주)과 자광 스님(반야선원 주지)을 추천했다.

군불교위원회는 곧이어 후보추천 사실을 서면으로 스님들에게 알리고 스님들이 동의하면 최종후보로써 조계종 종무회의에 통보할 예정이다. 군불교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는 조계종 종무회의의 결정을 거쳐 총무원장 스님이 최종 임명하면 군종특별교구장 임명은 마무리된다.

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인 일면 스님은 교육원장을 역임하고 환경단체인 녹색미래 공동대표를 맡는 등 불교계 안팎으로 폭넓게 활동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광 스님은 군종감 출신으로 오랜 군 포교 경험을 가지고 있어 군승들을 지도 관리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신청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문의 02)2004-8211~2

확 달라진 여시아문,
아직도 안가보셨다구요?!
www.yosiamun.com

'할'



그림 · 조태호

재덕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조계종 '종단비전을 위한 종책위원회' 구성

"1994년 개혁성과가 중앙종무기관에 한정됐고, 인력과 예산의 증대에 비해 효율적인 종무구조가 정착되지 못했다. 또 종무기관이나 종단구성원 간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종단운영 주체가 소수에 귀착되고,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참여의 폭이 한정되는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조계종이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제2 도약을 위해 가칭 '종단 비전을 위한 종책위원회(이하 종책위원회)'를 이달 안으로 발족시킨다.

6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종책위원회는 중앙종무기관을 비롯해 본말사, 신도단체, 중앙종회, 재가종무원,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및 단체 활동가 등을 포괄하는 총무원장 직속의 한시적 종령기구로 운영된다.

종책위원회 인적 구성은 범 종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교구본사 주지스님 혹은 중진스님이 맡는다.

위원은 총무부장 · 기획실장 · 교육부장 · 포교부장(당연직)을 비롯해 총무원장 추천 5인, 중앙종회의원 5인 이내, 교구본사주지 5인 이내, 중앙신도회 5인 이내로 한 인력 2인, 법무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종책위원회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시 종무회의 결의로 연장가능하다.

종책위원회는 ▲승풍진작 ▲인사제도개선 ▲재정투명화 ▲행정구조개편 ▲종무행정참여확대 ▲재가불자 신행활동 강화 등의 사업분야에 따라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공청회 등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정부 및 사회 혁신활동을 조사 · 정리해 모범사례를 도출한다.

종책위원회는 종단 혁신과제를 '우선혁신과제' '종책위원회 논의과제' '중장기 혁신과제'로 분류한 뒤 우선혁신과제의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구에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종책위원회 논의과제 및 중장기 혁신과제는 6개월간 분야별 및 전체 논의를 통해 구체안을 만들어 종무회의 및 각 의결기구에 상정한다.

한편 종책위원회는 10 · 27 법난 진상 규명을 통해 정부의 사과와 배상으로 종단협의회 산하에 '평화의 사찰' 건립을 추진한다. 평화의 사찰은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는 상징적 장소로, 일제 징용피해자 유골을 안치할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종단 개혁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영입해 연구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종책위원회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인사·행정 등 혁신토대 마련

6개월 한정 총무원장 직속기구…각계인사 30여명 참여

우선 혁신 과제

■종무행정 혁신

인사제도 개선, 선거제도 개선, 사찰관리제도 개선, 지방분권, 비구니 역할 강화, 승행질서 확립방안

■종단재정 투명화

사찰예산공개제도 도입, 국고보조금 사업 감리 감독기능 강화, 불사심의위원회 구성, 스님들의 사후 재산기증제도 실시, 법인관리법 제정 및 종단 산하 법인 관리 강화

■대 사회적 관계 혁신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및 사찰 문화재 관람료 개선, 선문화 대중화를 위한 지역별 선 체험 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문화경쟁시대에 기여하는 불교문화 재창조 및 활성화 방안, 노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찰의 노인복지 역할 모색, 자비나눔 및 봉사활동 강화, 도심사찰 어린이집 건립과 어린이회 조직 의무화, 생명중심 불교사상 구현을 위한 불교환경 활동 실천방안, 한국불교 국제화를 위한 아시아 불교국가 지원 및 서구사회 진출방안.

"총무원장 선거인단 축소해야"

조계종 일승 · 화엄회 소속 스님들 간담회 가져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일승회 화엄회 소속 스님 10명 중 6명은 총무원장 선거인단 축소를 원했다.

일승회 화엄회 소속 스님들은 6월 24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설문조사 결과, 16명 중 10명(62.5%)이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유지는 3명(18.75%), 선거인단 확대는 2명(12.5%)에 불과했다.

선거인단을 축소할 경우 '중앙종회의원+교구본사 주지'로 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중앙종회의원+교구본사 주지+교구별 2~3명'안도 제시됐다.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선거권자 자격기준을 강화하자(6명, 35.29%)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으나, 교구별 재적승 비례 선출(5명, 29.41%)이나 현행유지(4명, 23.53%) 요구도 적지 않았다.

교구본사 주지 또한 추대위에서 추대(9명, 56.25%)와 현행유지(7명, 43.75%)를 요구하는 의견이 맞섰다.

남동우 기자

"종단혼란 조장 중단하라"

일승 · 화엄회 성명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의 불교중앙박물관 의혹 제기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일승회 · 화엄회가 6월 28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종단을 혼란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일승회 · 화엄회는 성명서에서 "영담 스님은 무려 10여 차례 이상의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종단 내외적으로 큰 물의를 불러 일으켰다"며 "박물관 의혹제기는 그 진위여부를 떠나 수많은 종도들에게 우려를 끼쳤고 종단의 위상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일승회 · 화엄회는 "종단의 민주적 논의의 틀을 외면하고 밖으로 종단 위상을 실추시킨 영담 스님은 종도들에게 먼저 참회해야 한다"며 "종단의 중요소임을 맡고 있는 자리를 이용해 종단을 위해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종헌 · 종법상 처벌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월22일 열린 재심호계원에서 서울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에게 심판 연기 결정이 난 것과 관련, 일승회 · 화엄회 초선의원들이 재심호계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6월 30일 발표했다.

초선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이 사건은 3년 전에 재심호계원에 심판이 상정됐으나 이번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기한 것"이라며 "재심호계원의 이 같은 결정은 한마디로 무소신 무원칙, 계파간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재심호계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주지소임 보면서도 참선을…"

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 시작

"주지 소임을 보면서도 간화선을 할 수 있습니다. 선이 생활화되면 스님 스스로의 수행은 물론 신도들의 신행활동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 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가 시작된 6월 28일 김포 중앙승가대의 한 강의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 주지 스님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수행 흐름과 간화선 수행체계의 재인식' 강의에 나선 고우 스님(봉화 각화사 선덕)은 60여명의 스님들에게 간화선 수행의 생활화를 강조했다.

고우 스님의 법문을 듣던 증용 스님(용인 서학사 주지)은 "참선을 노인복지와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수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틀간 진행된 연수에서는 '우리 사찰 신도 2배 늘리기' '사찰의 자가진단 및 세무의 이해' '불교문화기획의 이론과 실제'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사찰의 대응방안' 등의 강의도 진행됐다.

한편, 연수는 7월4~5일(충청, 경북, 대구) 7월11~12일(경북, 경남, 부산) 7월21~22일(경남, 전라, 제주)8월 30~31일(중진주지연수)까지 이어진다.

유철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덕문 스님 직능의원에 조계종 중앙종회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복지 부문에 덕문 스님(의왕 용화사 주지 · 사진)이 당선됐다.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6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덕문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덕문 스님은 85년 사미계, 90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구례 화엄사 기획국장을 맡고 있다.

남동우 기자

상생과 화합정치 구현 당부

조계종 · 한나라당 불자회 간담회 가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정치권에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구현해 달라"고 6월 28일 당부했다.

한나라당 불자회(회장 이상배) 주최로 열린 '조계종 원로대덕 스님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법장 스님은 "검은 안경을 쓰면 검게 보이고 흰 안경을 쓰면 흰색으로 보인다"며 "네가 있으면 내가 있고 네가 멸(滅)하면 나도 멸한다는 불교 가르침으로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분별없는 이기심과 탐욕이 세상을 어지럽고 각박하게 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중생을 구원하고 이타심과 자비심으로 자신을 버리셨던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고 화답했다.

조계종은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 글 · 사진=남동우 기자

방사선치료장비 도입 동국대 경주병원

학교법인 동국대는 6월 29일 일산불교병원 5층 회의실에서 제211차 이사회를 열고 신규교원 임용, 경주병원 방사선 치료장비 도입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따라 방사선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주 포항 인근 암환자들을 동국대병원으로 흡수하는 한편, 첨단장비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조용수 기자

공개토론회 제안 박물관관련, 영담 스님 등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공사 문제와 관련,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 등이 총무원, 중앙종회, 단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영담 스님 등은 6월 28일 총 24명의 중앙종회의원들이 연명한 기자회견문에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며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총무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영담 스님은 "공개토론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면 종도 앞에 참회하겠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의혹' 제출하면 조사 조사대책위 주장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이 불교중앙박물관 공사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것에 대해 역사문화기념관 조사대책위원회(위원장 장주, 이하 조사대책위)는 6월 30일 "영담 스님이 새로운 의혹의 근거를 제출하면 조사대책위 차원에서 당연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책위는 또 "영담 스님이 교단의 중진의 위치에 있는 분인 만큼 의혹의 제기 방법도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부처님의 약사도량인 「약사사」에서 여러불자님을 초대합니다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다가온 무서운 질병은 그 사람이 지은 전생의 카르마(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생을 읽는 여자」의 저자이신 박진여 선생은 병명을 알 수 없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고통받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의 전생을 읽어내어 그들에게 그 병의 원인과 영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금번 부처님의 약사도량인 저희 「약사사」에서는 박진여 선생을 모시고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여러 불자님들을 위하여 작은 시간을 준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약사사 약사여래 부처님

상담종목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하는 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가정사 때문에 고민하는 분.
여러 번의 종교 의식(천도나 제령)을 통해서도 해결 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
알 수 없는 靈的 현상 때문에 고생하는 분.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1동 1080-4 약사사 051)782-9386

저출산 고령화 문제 종교계가 풀자

불교 개신교 가톨릭, 대책시민연대 발족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3대 종교대표들이 모여 저출산문제 해결에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오른쪽부터 김인숙 원장, 일관 스님, 송길원 목사, 송영오 신부.

국가적 위기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3대 종교가 나섰다. 높아진 이혼율, 늦어진 혼인연령, 낙태로 인한 생명경시와 출산기피 등으로 고령화 사회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6월 29일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위원장 이기헌 주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정사역위원회(위원장 송길원 목사)는 3대 종교를 대표해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시민연대'를 발족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일관 스님,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정사역위원회 위원장 송길원 목사,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총무 송영오 신부 등이 3대 종교 대표로 나섰다.

김인숙 원장 · 이기헌 주교 · 송길원 목사 등이 공동대표체제로 운영되는 시민연대는 정부정책 감시, 저출산 해결 범국민 캠페인, 저출산 대책 각종 포럼 운영, 가정문화운동, 낙태반대운동 및 입양장려활동 등에 적극 나선다.

이날 종교대표들은 "국가의 미래 재앙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시민운동을 펼치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시민연대를 만들게 됐다"며 "행복한 가정문화확산, 생명경시 문화 배격, 생명존중문화 확산,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을 위한 정책제안 활동 등을 시민연대가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시민연대는 시민단체와 유관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해 외연을 확장하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시민운동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

이에 따라 9월경 각 종단 수장과 함께 저출산 포럼 및 시민대회를 개최해 국민인식 변화의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시민연대의 활동 외에도 각 종교별 교리의 차이를 인정해 종단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글 · 사진=강지연 기자

팔만대장경 동판간행 범국민추진委 출범

'해인사 팔만대장경 동판 간행 범국민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 이하 동판추진위)는 6월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범식에서 동판추진위 이수성 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어낸 우리민족이 동판으로 팔만대장경을 다시 복원해내는 것은 세계평화를 지키고 국가를 빛내는 일"이라며 "총 3질을 제작해 1질은 해인사에, 1질은 북한에, 1질은 간행불사에 동참한 불자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인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이날 치사를 통해 "옛 선조들이 염원했던 것처럼 동판 간행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돼 국민대화합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자"고 강조했으며,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도 출범식사를 통해 "시대의 간곡한 염원을 담아 완벽한 장경판 보전을 위해 동판 간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조계종 민추본 창립 5주년 기념 법요식 · 통일포럼 열어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 이하 민추본) 창립 5주년을 기념하는 법요식과 통일포럼이 열렸다.

6월 20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본부장 명진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5년간 남북공동법회와 신계사 복원불사, 단청 복원불사 등을 진행해왔다"며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이 바탕이 된 상호 존중은 남북통일의 귀중하고 힘 있는 씨앗이 되며, 앞으로 그 싹을 키워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은 "조국통일을 앞당겨 나가기 위한 의로운 실천행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며 그 길에서 언제나 귀 단체와 함께 할 것"이라며 축하전문을 보내 왔다.

한편 이날 법요식에서는 민추본 기관지 <통일정토>가 1년여 만에 복간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유철주 기자

사형제 · 뇌사 관련 워크숍

불교적 생명윤리관을 정립하기 위해 구성된 불교생명윤리 연구위원회(공동위원장 정념 · 백남석, 이하 연구위) 1차 워크숍이 7월 1일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연구위는 8월 중순 생명조작 분야와 낙태 분야를 주제로 2차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6월 25일 금강산 신계사를 방문한 정동채 장관(맨 왼쪽)이 제정 스님과 환담하고 있다.

정부, 금강산 사찰 복원 지원

정동채 장관, 신계사 방문…의지 밝혀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금강산 4대 사찰 복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다시 밝혔다.

정동채 장관은 6월 25일 신계사를 방문해 현지에서 상주하고 있는 도감 제정 스님에게 "신계사, 장안사, 유점사, 표훈사 등이 복원되면 남북불교교류는 한층 발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제정 스님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신계사에 좀 더 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배려해줘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신계사 방문에는 이보경 종무실장,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한국관광공사 강광호 국내진흥본부장 등이 동행했다. 유철주 기자

"종교간 대화와 교류로 평화를"

조계종 종교평화委 발족

"우리사회 종교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종교평화를 이루고 참종교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상임위원장 손안식, 이하 종평위)가 6월 29일 발족을 선언하고 종교평화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서울 송현클럽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손안식 상임위원장은 "종평위의 사회적 불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화합과 평화로 회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도 "종평위 발족으로 종교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며 모든 생명의 본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백도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종평위가 독립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종교간 화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평위는 지도위원단과 공동위원장단, 전문위원단, 집행위원단으로 구성됐으며, 종교편향 신고센터 운영, 종교평화 교육 활동, 100인 회원조직 사업, 종교평화 매뉴얼 발간 등의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손안식 위원장 인터뷰 14면

유철주 기자

"불교대 발전 책임 종단에 있다"

동국대 제3차 공청회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위원장 영담)는 6월 28일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불교학연구활성화'를 주제로 제3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1주제 '불교대학의 연구현황 및 연구성과 제고방안'을 발표한 최병헌 교수(서울대 국사학과)는 "불교대학 발전의 책임은 불교종단에 있다"고 지적하고 "종학연구를 중심으로 조계종 종립대학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제2주제 '우수교원 및 연구인력 확보방안'을 발표한 심익섭 교수(동국대 행정학과)도 "동국대 불교대학이 한국 불교의 요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데 실패한 때문"이라며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석좌교수제 등 다양한 초빙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 김상영 교수(중앙승가대 불교학과)는 "동국대 불교대학이 종립대학으로서 종학연구 기능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종립대학의 역할 모색을 위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제4차 공청회는 9월 '불교대학 졸업생의 취업 및 진로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조용수 기자

환경연대 · 인드라망 캠프

여름방학을 맞아 불교단체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학교와 여름캠프를 마련한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7월 26~28일 여주 신륵사에서 '어린이 불교생태학교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지난 4월 부안 내소사에서 열린 봄캠프에 이어 진행되는 여름캠프는 △자연놀이-신륵사의 나무와 풀 △발우공양 △생태지도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2)720-1654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도 8월 4~7일 남원 지리산생명문화교육원에서 여름가족캠프를 실시한다. 가족캠프는 도법스님 생명탁발 순례기 법문과 생태농사체험 등으로 꾸며진다. (02)733-1884 유철주 기자

거기에 특별할인과 푸짐한 경품까지?!
확 달라진 여시아문!
지금 서둘러 가보세요!
www.yosiamun.com

"포교활동 안하면 종교단체 아니다"

금산군 유권해석 논란

'포교활동을 하지 않은 사찰은 종교단체로 볼 수 없다?'

충청남도 금산군이 납골당 설치허가를 요청한 서대사(주지 철영)에 대해 "포교활동을 하지 않은 사찰은 종교단체로 볼 수 없으며 납골당 설치가 목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금산군청 사회복지과 이덕우 계장은 6월 30일 "납골시설 설치가 목적인 사찰을 종교단체로 볼 수는 없다"며 "납골시설에 따르는 편의시설 등도 갖추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대사는 5년 전 건립돼 총화종 종단에 등록돼 있는 사찰로, 금산군의 해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대사 측은 "포교활동을 해온 사실을 입증할수 있으며, 문광부에 등록돼 있는 종단의 사찰을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명우 기자

재심호계위원 사퇴를 촉구하며

재심호계원은 종단 내의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한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우리 종단의 최상위 사법기관입니다. 종단이 이러한 권위를 갖는 기관을 종헌으로 설치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승단의 법질서 유지와 올바른 승풍의 확립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재심호계원은 최근 들어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 종도들로부터 의혹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22일 개최한 32차 회의에서는 중앙종회 특위로부터 징계 회부된 서울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에 대해 또다시 심판 연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3년 전에 재심호계원에 심판이 상정되었으나 이번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기한 것입니다. 재심호계원의 이 같은 결정은 한마디로 무소신 무원칙, 그리고 계파간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중앙종회의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의 심판을 연기하고 있는 재심호계원의 행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지난 3월에 열린 166회 임시중앙종회에서는 중앙종회법 제79조에 의거, 이 문제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호계원장 출석요구서'를 제출하려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회분위기를 경직시키고,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일단 다음 회기로 이 문제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재심호계원은 최근 개최된 위원회에서 다시 심판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종도들이 부여한 책임과 직무를 유기하는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재심호계원의 이 같은 파행운영은 종단의 종법질서를 혼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종무행정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종법을 어겼거나 종단을 분란으로 몰고 가는 일부 종도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하지 못하면 종단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심호계원은 어떤 경우라도 문중이나 계파, 개인적 이해관계 등 반종법적 문제와 연계해서 심판을 연기하거나 보류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은 모두 재심호계원이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에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일승회 화엄회 소속 초선의원들은 종법질서 확립을 통한 종단중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서 우리는 특별한 이유 없이 3년간 심판을 보류한 재심호계원의 위원들에 대해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13대 종회의원을 비롯한 종단의 중진스님과 종도들께서는 우리들의 이 같은 애종적 결단에 동의하고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종도들께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종단을 위하는 길인지를 깊이 성찰하시고 종단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불기 2549(2005)년 6월 30일

조계종중앙종회 종책모임 일승회 · 화엄회 초선의원

동광, 도문, 무자, 법경, 법광, 보경, 성월, 성직, 원정, 의연, 일문, 정도, 정안, 초격, 토진, 현공 (이상. 가나다 순)

지상중계
보현도량 안성 도피안사
구국구세대법회 <9>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일시 : 불기 2549년 6월 26일
■강사 : 김외숙 교수(방송통신대 가정관리학과)
■주제 : 불자가족의 가정관리
■법회 동영상 서비스 buddhanews.com

가족은 '커다란 나' … 공경 · 감사가 행복열쇠

'욕구충족의 무한성'은 가정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자원은 유한한데, 만족은 끝이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관리'다. 가족이란 집단이 가진 욕구의 합리적 해소가 가정관리의 핵심이다. 가족구성원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가정관리인 셈이다. 그럼, 불교는 이 같은 속성을 지닌 가정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 또 과연 이들간 소통은 가능할까?

'불자로서 가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6월 26일,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와 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구국구세대법회' 아홉 번째 법회에서 방송통신대 김외숙 교수(가정관리학)는 불자가정관리의 가장 큰 자원이 '모든 존재에게는 불성(佛性)이 있다는 믿음'에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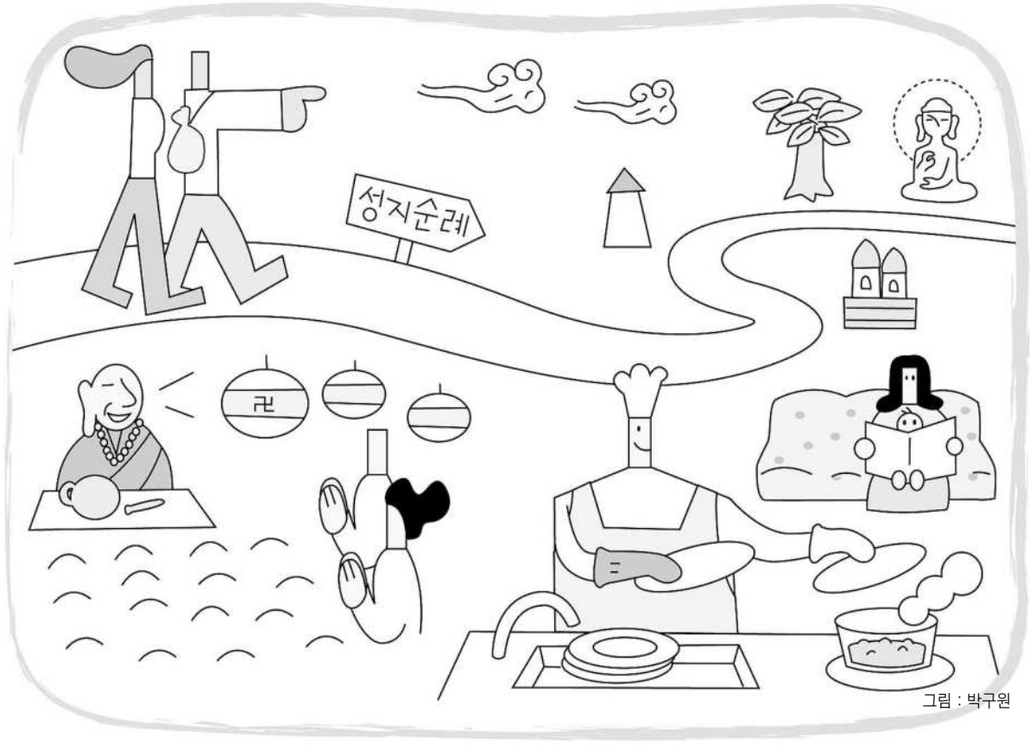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모두 불성 지닌 숭고한 존재

결국, '선택'의 문제다. 가족의 목표는 욕구에 기본을 두고 만들어진다.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어떤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것인가가 가정관리의 핵심이다. 불교는 여기에 원만한 욕구해결의 길을 제시한다.

김 교수는 불교의 중도사상이 해결의 실마리를 준다고 말했다. 금욕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탐닉하는 양 극단을 거부하는 중도야말로, 불자가정관리의 단초가 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심리학자 매스로우의 욕구단계설과 비교한다면, 중도는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과 비슷한 개념"이라며 "가정은 수행터전이고 가족은 수행의 길을 함께 가는 도반이라고 볼 때, 가정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탈, 견성, 인격완성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일상생활을 하는 재가신도의 경우, 이 목표와 더불어 장단기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럼, 불교는 자원사용을 통해 최대한의 만족을 얻기 위해, 자원의 총공급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 김 교수는 '바로 모든 인간에게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가족구성원 모두가 부처님이고, 나아가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라 여기는 인간에 대한 절대 긍정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이다. 즉 불교의 '일체실유불성(一切悉有佛性)'이 가족의 전인격적 발달을 도모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불성'을 태양과 구름에 비유해 말했다.

"광덕 스님은 '아무리 구름이 뒤덮고 있어도 그 위로 햇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며 불성을 태양에 비유했었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구름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햇빛을 보면서 '아! 바로 이것을 말한 거구나'하고 시각적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가족 목표와의 관계 속에서 자원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목표달성의 욕구에 따라 자원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가령 부모의 부유함이 자녀에게 장애도 될 수 있고, 도움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원의 유효성은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다.

자아실현하는 수행 공동체

김 교수는 행복한 불자가정을 만들기 위한 불교 가치를 제시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이혼 증가, 가구 수 변화 등으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가정 현실에 대해, "산업화이후 가족과 직장이 급속히 분리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불교는 이런 변화의 원인, 그 속에서의 가족구성원 목표와 방향성 설정에 해답을 제시해 준다"고 강조했다. 즉 불교는 가정이 '수행공동체'로서의 기능과 함께 '자아실현의 장'을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일생동안 늘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잠시라도 돌이켜보게 하는 여유를 준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무딘 도끼로 나무를 벨 것이 아니라. 우선 도끼날을 세워 나무를 베야 한다'는 비유를 들며, 하루 5분이라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도 혈연중심의 가족관을 벗어나 '연기관(緣起觀)'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간의 생존방식 자체가 '나와 남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연기관이기에 혈연중심의 편협한 가정관을 깰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연기적 관점은 '큰 나'로서 자신을 보게 해, 사회적 연대의 확대와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했다.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는 연기적 인식은, 가족구성원이 시공을 초월해 모든 생명체에 공경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기적 가르침은 지속가능한 가정의 소비생활법도 제시해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오만심을 없애주는 것이 제일 큰 효과입니다. 즉 타인과 자연 등 모든 관계 속에서 자원을 사용하게 해, 다음 세대의 욕구 충족도 배려하게 만들어 줍니다."

가사는 가족 모두의 일

김 교수는 불자로서의 가정관리를 위한 조언으로 ▲남성의 가정 내 역할 증대 ▲가족여가 활동 강화 등을 제안했다.

남성의 가정 내 역할 기여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성의 취업노동이 증가하는 만큼 남성의 가사노동도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구성원은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여성은 자기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종속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역할 과정에서 오는 남녀 갈등이 가정내 불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는 길이 바로 불교의 평등사상입니다. 물론 불교교리와 무관한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문화가 불교에도 적지 않게 담겨있지만,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집안일'이란 식의 성별로 고정된 역할개념을 경계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녀든 부모든 함께 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족구성원 각자가 평등한 관계를 가꾸어갈 수 있는 밑바탕이기 때문.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불자가정관리의 키워드로 '즐겁게' '재밌게'를 제시했다. 이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여가생활을 위한 동반자가 돼야 하고, 가족구성원은 함께 '노는 상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질의 응답

-김 교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매스로우의 욕구단계설에서 최상위가 자아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자아실현은 결국, 자기 목표의 달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자아의식의 발달은 제7말나식의 발달이라고 합니다. 이는 번뇌와 망상의 초월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스로우의 자아실현과는 조금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을 텐데요?

▲매스로우의 욕구단계설에서 최상위가 자아실현입니다. 그 바로 밑 단계가 자아존중입니다.

서양심리학자의 이론에서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 경지의 자아실현을 염두해 두었을 정도의 수준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의 발생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아실현'을 궁극의 목표라 한다면, 자아존중은 아집이 있고, 나란 존재를 고집해 자기를 높게 보려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7말나식은 매스로우의 '자아존중' 단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외숙 교수는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가정학 석사를, '도시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를 주제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방송통신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불교여성개발원 자문위원, 한국가정관리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등이 있다.

선학원 관련 사료를 찾습니다


선학원에서 열린 조선불교선종 제 1회 수좌대회(1931년 3월 14일).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하 선리연구원)'을 개원한 (재)선학원은 선학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일체의 사료를 찾습니다. 이를 소장하고 계신 스님과 불자님은 연락을 주십시오. 단 한 건의 사료라도 좋습니다. 기증해주신 사료들은 선리연구원에서 그 성격에 따라 분류 및 보존하며, 선학원의 역사와 위상 정립을 위한 사료로 적극 활용됩니다.

사료 예시
- 도서 : 선학원 관련 도서 및 정간물 등**(특히 선학원 및 법보원 간행 불서)**
- 박물사료 : 선학원 관련 스님들의 유품 등
- 시청각사료 : 오디오, 사진, 슬라이드필름 등
- 문건사료 : 성명서, 회의록, 보고서, 팜플렛, 일기, 메모 등

기타 안내
- 선학원 부설 선리연구원의 **'상임연구원'**을 찾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선학원 홈페이지(www.seonhakwon.or.kr) **'커뮤니티-문의게시판'**에 **'사료 제보'**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인적사항, 연락처, 사료에 대한 설명 등을 남겨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02)734-9653~6**

한국불교선리연구원

대한불교 조계종 **수국사 주지 취임법회**

귀의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수국사 주지 토진스님의 취임 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수희 동참하시어 많은 격려와 축원을 부탁드립니다.

■일 시 : 불기 2549(2005년) 7월 13일(수)
오전10시30분 (음력 6월 8일)
■장 소 : 수국사 금법당

대한불교 조계종 **수국사 취임 법회 봉행위원회**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14 수국사 / TEL : 02)356-2002 FAX : 02)359-6297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

마산 금강노인복지관 개원, 무료 한방진료 서비스



사회복지법인 금강은 6월 29일 경남 마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금강노인복지관을 개관했다. 사진은 개관을 알리는 테이프를 자르는 모습.

핵가족의 그늘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만을 위한 복지 공간이 경남 마산에 문을 열었다.

마산에서는 처음으로 개관한 노인 전문 복지관인 금강노인복지관은 6월 29일 개원식과 함께 노인들을 위한 무료한방진료 서비스를 시작해 지역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다. 다산한의원 김호진 원장의 자원봉사로 금강노인복지관 3층에 마련된 무료한방진료소를 찾은 1백여 명의 어르신들은 따끔한 침을 맞으면서도 얼굴엔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사회복지법인 금강(이사장 원행)이 직접 건립해 운영하는 금강노인복지관은 마산 유일의 노인 전문 복지관인데다 사회복지법인 금강이 금강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복지 사업을 시작한지 10년 만에 일궈낸 결실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현재 금강어린이집, 봉화 어린이집도 함께 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 금강은 그동안 무료급식소 공양의 집, 금강경로센터, 도시락 배달 사업 등을 활발하게 펼쳐오다 본격적인 노인복지를 펼치지 위해 금강노인복지관과 금강실비주간보호센터를 개관하게 된 것이다. 금강노인복지관은 대지 364평에 건평 311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소,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상담, 사회 교육, 보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소 등 갖춰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

건복지, 재가 복지 사업 등을 펼치게 된다.

특히 금강노인복지관은 마산중리복지관 등 복지 현장에서 10여 년 간 활동하며 복지 이론은 물론 현장 경험과 전문성까지 갖춘 곽인철 씨가 관장을 맡아 다년간의 노하우를 살린 복지 서비스로 지역 노인들을 찾아가게 된다.

곽 관장은 금강복지관이 마산제일여고, 마산여고, 중안고, 합포고, 마산중학교 등 중 · 고등학교 밀집 지역에 위치한 것에 착안,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노인과 청소년 연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각오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에 지역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원봉사자 확보는 물론 세대간 이해와 교류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열린 개관식에는 백련불교문화재단 대표이사 원택 스님, 마산 · 창원불교연합회 이사장 지태 스님, 황철곤 마산시장 등 5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가야금 독주와 금강어린이집, 봉화어린이집 원생들의 재롱잔치로 시작된 개관식에서 사회복지법인 금강 대표이사 원행 스님은 "10년 전에 일으킨 한 생각이 많은 분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금강노인복지관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니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더욱 절감하게 된다"며 "지역 사회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복되게 모시는 것은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길이며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니 앞으로도 모든 불자님들의 정성을 모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055)221-8445

글 · 사진/마산=천미희 기자

베트남에 한국사찰 건립된다

호치민시 금강불원, 7월 3일 기공
포교 · 민간문화교류 기능 기대

베트남 호치민시에 다도, 서예 등 한국 전통 문화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한국사찰 국제총림 금강불원(경안사)이 건립된다.

금강불원 건립추진위원회는 7월 3일 오전 10시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기공식을 갖고 한국과 베트남의 민간 문화 교류의 중심이 될 한국 사찰 건립의 첫 삽을 뜨게 됐다. 호치민시 12군 F 안포동 고사찰 부지 2700평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추진하게 되는 금강불원은 각종 수행을 위한 기도원, 스님과 신도들을 위한 참선원, 다도, 예절, 꽃꽂이, 서예, 요리 강좌를 하는 예지원, 교리 강좌, 경전 해설, 수계 등을 위한 교육원, 교민과 베트남 현지인의 복지를 위한 복지원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호치민시에는 2001년 건립됐던 한국사찰 관음사가 있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불자 교민과 관광객의 증가로 포교 및 수행 교화 도량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자 금강불원 건립 불사를 발원하게 된 것이다.

금강불원 건립 불사에는 베트남 전쟁으로 한국인 2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베트남에 한국불교의 뿌리를 심겠다는 원력으로 베트남 관음사 창건부터 후원을 아끼지 않은 정각 스님(부산 미룡사 주지)이 발을 벗고 나섰다. 정각 스님은 민간 문화 교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미 부산불교연합회와 호치민불교연합회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활발한 민간 교류 활동을 펼쳐오다 금강불원 창건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정각 스님은 "교민 뿐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한국전통문화를 알리고 한국불교의 가르침을 펴는 수행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미희 기자

"예의 바르고 씩씩한 불제자 되길"

금화사 초등불교학교 전교생 국술원 입단

다도, 박물관 견학, 중국 일본 성지순례 등 일반 학교에서도 보기 드문 교과과정으로 어린이 법회의 모델이 되고 있는 금화사 초등불교학교(교장 김광호)에 또 한번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한국전통 무술인 국술을 교과과정에 넣기로 한 것.

금화사 어린이 불교학교의 국술원 입단은 금화사 신도인 구서도장 김재규 단장과 부인 정연숙 실장의 무료지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김 단장 부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평소 어린이 법회를 지켜봐왔던 김 단장이 정적인 불교에 동적인 국술을 접목하면 심신의 조화로운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여겨 무료 지도를 제안하게 된 것.

이날 금화사 초등불교학교 어린이들은 국술원 입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련을 시작했다(사진).

김광호 금화사 어린이 불교학교 교장은 "전통 무술인 국술을 배우는 일은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자신을 바로 알고 남을 위할 줄 아는 예의 바른 불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입단식에서는 김 단장에게 금화사 어린이불교학교 지도자 임명장을, 김광호 교장에게 명예공인증서 수여하기도 했다.

천미희 기자

APEC 성공 기원 소년소녀가장 후원 음악회

사회복지법인 혜원(이사장 원허)이 소년소녀가장을 후원하고 APEC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음악회를 열었다.

6월 25일 부산 혜원정사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 4회 혜원음악회에는 혜원정사 조실 고산 스님, 사회복지법인 혜원 이사장이자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장 등 교계 원로대덕 스님과 재가불자, 지역 복지 관계자와 시민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음악회에 앞서 소년소녀가장 19세대에 총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천미희 기자

단신

성인 정신지체 장애인캠프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영 · 호남지역 성인 정신지체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우리는 하나' 연합캠프를 경주한화콘도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합캠프에는 경주, 포항, 상주, 경남, 구미, 덕산, 남원, 광산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9개 기관 4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매년 극기훈련, 역사체험, 레포츠활동과 같은 중요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진행해 온 연합캠프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되고 있다.

연합캠프는 역사체험과 단체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서로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장을 열어 심신 단련과 사회성 함양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054)776-7522~5

배지선 기자

직지사 여름시조대축제

직지사(주지 성웅)와 나래시조시인협회(회장 오민필)가 주최 주관하는 제3회 직지사 여름 시조대축제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직지사 만덕전에서 열린다.

원로 정완영 시인을 비롯해 안도현 권갑하 임성화 등 잘 알려진 시인들이 직접 강의하는 시인학교 문학 강좌를 비롯해 전국시조암송경연대회와 시노래 음악회, 나래시조문학상과 신인상 시상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둘째 날에는 정완영 원로시인과 문학의 고향인 생가와 시비 등 문학기행을 떠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정완영 시인의 시조 문학세계를 기리고, 시조문학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백수 정완영 전국시조백일장이 둘째 날 오전 9시부터 올해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018-259-9862

배지선 기자

신안사랑마을, 청동불 조성

무료 노인전문요양원인 대구 신안사랑마을(대표이사 김은경)이 높이 9m, 8톤 규모의 대형 청동 지장보살상을 야외공원에 조성하고 6월 30일 점안식을 봉행했다.

신안사랑마을은 지역의 사회사업을 이어오던 지역의 한 재가불자가 2001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지난해 말 치매와 중풍 등을 앓고 있는 중증 노인질환자들을 돕기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 60여명의 어르신들을 수용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인각사, 일연신인문학상 제정

삼국유사 저술지인 군위 인각사(주지 상인)가 제5회 삼국유사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일연문학상과 신인문학상을 제정했다.

삼국유사와 일연 스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일연문학상은 시, 시조, 평론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등단 10년 전후의 중견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공모하며, 일연신인문학상은 시, 시조부문으로 나누어 미발표 신작을 공모할 예정이다. (054)383-1161

배지선 기자

거기에 특별할인과 푸짐한 경품까지?!
확 달라진 여시아문!
지금 서둘러 가보세요!
www.yosiamun.com

골굴사 선무도, 신라요 등 수상

동국대 관광산업연구소(소장 박종희)는 제1회 경주문화체험상품인증상 시상식을 6월 24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수상한 경주문화체험상품 인증기관은 모두 5개 분야 6개 업체. 골굴사 선무도가 선무도 수련, 명상과 선 호흡, 템플스테이 등의 체험 내용으로 전통무예체험 분야에서 수상했다. 그 외 전통한방체험분야 꽃마을 경주한방병원, 농어촌체험과 전통 세심마을, 전통공예체험분야 신라요와 보산도예, 전통예술체험분야에서 수상했다.

문화체험상품 인증제도는 신라 천년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다양하고 독특하며, 신뢰성 있는 문화체험상품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인증 제도다.

배지선 기자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수련회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거사 신행단체인 법형제회(회장 김우룡)가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단합 수련회를 제2석굴암 온천관광호텔에서 개최했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장 혜계 스님을 비롯해 70여명의 회원이 동참한 수련회는 신행담 발표와 조별토론, 노래경연대회, 조 대항 족구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선희 거사는 "수련회를 통해 새롭게 발심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2005년
노고산 흥국사 여름 수련회 안내

약사도량 흥국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자연 풍광이 수려한 천년고찰에서의 간절한 참회와 기도, 참선 수행정진은 수련생 모두에게 커다란 감동이 될 것입니다.

구 분	기 간	대 상	인 원
1차	7월 22일(금) ~ 7월 24일(일) (2박 3일)	초등학생	80명
2차	7월 29일(금) ~ 7월 31일(일) (2박 3일)	중 · 고등학생	50명
3차	8월 5일(금) ~ 8월 7일(일) (2박 3일)	일반인	50명

■장 소 : 흥국사 설법전
■시 간 : 당일 오후 3시
■준 비 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우산, 개인침구, 흰 고무신(일반인 필히 지참)
■수련회비 : 초 · 중 · 고등학생 30,000원 / 일반인 50,000원
T셔츠, 기념품, 기념사진 포함 ※수련복은 배부합니다.
계좌번호 : 조흥은행 328-01-156135 (예금주 흥국사)
■접수안내 : 흥국사 종무소 Tel. 02)381-7970 / Fax 02)381-7329
www.heungguksa.or.kr 참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3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노고산 흥국사 주지 대 오

우리가족의건강 지킴이
N-K NATURAL
묘향산 전 록 탕
치료는? 건강!

본 제품은 전 북한 만수무강연구소
약국장이 직접 제조한 신비의 건강식품

보정, 보기 보혈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김일성이 생전에 빠뜨리지 않고 먹었던 35가지 약성분을 배합한 것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맞도록 만들어진 식품이다. 만성피로에 시달리거나 원기가 부족한 사람, 수술후나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동의학박사
허 창 걸



※ 전록탕의 효능 ※
〈보혈, 보기, 보정, 작용이 탁월하다〉
적혈구, 백혈구의 생성 활발행렬작용을한다.
중년 남,녀들의 기력강화, 갱년기 장애를
해소시키고 젊음을 찾아준다.
기를 보하며 면역력을 높여준다

• NK내츄럴 대표 허창걸
• 사리원 동양대학교 졸업
•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약국장
• 한 의 담 당 동 의 학 박 사

묘향산 전록탕 이란...
본 제품은 북한 만수무강연구소에서 최고위급 인물들을 위하여 개발된 제품 그대로입니다.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묘향산 요양소 약국장이었던 허창걸 동의학 박사가 우수한 한약제를 "약물동역학적" 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품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있는 묘향산 전록탕 그 효능이 탁월합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말하는 묘향산 전록탕은 묘향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가시오가피"를 북한에서 직수입하여 "동충하초"를 비롯한 우수한
한약제를 "약물동역학적"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입니다.

판매원 : 록원 02)771-2985 • 제조원 : NK내츄럴 • 총판대리점모집 02)755-9821

매일 한시간씩 3천일…또 천일

3천일 기도 9년만에 회향한 여산 거사 가족



6월 25일 3000일 기도를 마친 여산 거사의 가족들.

1997년 4월 5일. 군산에 거주하는 김윤봉(여산 · 55), 표경희(보현심 · 53) 부부는 2남 2녀 자녀와 함께 3000일 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 무려 9년 만에 임실 상이암(주지 동효)에서 인연 있는 불자들과 함께 조촐한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시방세계에 가득하신 불보살님이시여! 이 기도로 법계 일체중생이 발 보리심하여 해탈, 행복해지고, 아울러 저희 또한 세세생생 지은 업장 소멸하여 위없는 깨달음 이루어지이다."

기도 입제당시 초등학생이던 막내 보근이가 이제는 대학 3학년. 처음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읊조리던 발원문이 자신을 올곧게 지켜준 힘이었음을 느낀다.

여산 거사 가족의 기도는 문근, 보근 형제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 동효 스님이 평소 잘 따르는 형제에게 끈기와 인내심을 심어주기위해 1000일기도를 권유했다. 선뜻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인 아이들은 곧장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가 생활화 된 여산 거사 부부는 기도의 어려움을 알기에 '처음엔 며칠하고 그만 두겠지'라고 생각했다. 서너 달이 지나도 아이들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했다. 힘을 북돋아 주기위해 부부가 아이들의 기도에 동참했고, 딸들도 함께 하겠다기에 가족이 모여 3000일 기도를 입제했다.

가족 모두 솔선수범 한마음의 결과
매일 1시간 진행 시간 장소 자유롭게

여산 거사 가족의 기도는 '천수 다라니(108독)-관음정근(15분)-발원문' 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된다. 시간과 장소는 각자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한다.

"단순히 인내심을 길러보자고 시작한 기도였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모두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거창할 것은 없지만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부터 돌아볼 생각입니다."

큰아들 문근이의 말에 어머니 보현심 보살도 고개를 끄덕인다.

여산 거사 가족은 3000일 기도를 회향한 다음날 아침 또다시 1000일 기도를 입제하고 각자의 생활터전으로 흩어졌다.

글 · 사진/임실=이준엽 기자



6월25일 양양 진전사 현지에서 열린 낙성법회 모습.

"종단이 폐사지 관리하는 좋은계기"

양양 진전사 낙성식 열려

조계종조 도의국사가 주석했던 진전사 대웅전 및 요사채 복원 낙성식이 거행됐다.

사부대중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6일 강원도 양양 조계종찰 진전사 현지에서 열린 낙성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폐사지가 종단의 관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문화재청과 종단의 관심부족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진전사 복원을 계기로 폐사지 관리가 종단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낙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혜정, 원로의원 활안, 신흥사 주지 오현, 교육원장 청화 스님 등과 김진선 강원도지사, 이진호 양양군수,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권한대행 등 참석했다.

글 · 사진/양양=고영배 기자

백양사, 대웅전 부처님 새로 조성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두백) 대웅전의 주불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로 조성된다.

백양사 총무 진우 스님은 6월 24일 "대웅전 불상을 정밀 진단한 결과 부식진행이 심하고 얼굴부위가 부풀어 올라 파불하고 새로 봉안키로 했다"며 "6월 23일 대웅전에서 불상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새로 조성되는 불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문수, 보현 보살이 협시하는 삼존불로 내년 곡우절에 점안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백양사 사중에서는 대웅전 불상이 너무 커 탱화를 가리고 있어 법당이 답답하고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로 조성되는 삼존불은 1917년 만암스님 중창 당시의 불상을 참조해 6자(180cm) 크기로 조성한다.

이준엽 기자

사할린 강제징용한인 위령재

일제시대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한인들을 위한 위령재가 열린다.

사할린 피징용한인 위령재 추진위원회(공동대표 몽산 · 한명숙)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 사할린 우글레고르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프 등에서 강제징용으로 희생된 한인들을 위한 위령재를 봉행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위령재는 불교식 천도재와 함께 각종 문화공연으로 꾸며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은 "고혼이 된 사할린 강제징용동포들을 위해 위령재라도 올려주는 것이 후손의 도리라고 생각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6월 29일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도라전망대를 찾은 세계 종교인들.

세계 종교지도자들 비무장지대 방문

"세계 모든 종교인들을 대표해 대한민국을 찾은 우리들은 전쟁으로 무너지고 찢어진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종교지도자들이 비무장지대를 방문,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다. 세계 13개 종교를 대표하는 50개국 100여 종교지도자들은 6월 29일 보슬비가 촉촉하게 내린 경기도 도라전망대에서 한국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기도를 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이날 도라전망대를 통해 비무장지대와 남북경협을 위한 경의선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현장, 북녘 땅 개성시를 바라보며 북핵위기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종교지도자들은 또 이날 발표한 평화선언문을 통해 △남북한 군비 경쟁의 중단과 복지 및 교육 예산 확대 △비무장지대 환경공원 등 평화지대로 전환 △남북 정상회담, 6자 회담 등 남북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대화 노력 등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 종교연합(United Religions Initiatives of Korea, 대표 진월)이 '다양한 얼굴, 한 세계: 분단의 가교, 한국 및 세계의 종교연합'이란 주제로 6월 26일~7월 1일 서울에서 개최한 세계 종교연합(United Religions Initiative) 세계이사회의 일환으로 열린 것이다.

강유신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양주 오봉산 석굴암

기도소리 1초도 안 끊겨요



나한전 석굴 보수불사 준공식에서 봉선사 조실 월운 · 석굴암 주지 도일 · 봉선사 주지 철안 · 가평 현등사 주지 초격(왼쪽 세 번째부터 오른쪽 순으로) 스님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오봉산 석굴암. 석굴암 가는 길 초입에서 군부대 초소를 만나게 된다. 초소를 통과해 꼬불꼬불 비탈길을 오르다 보면 울창했던 숲이 한 순간 사라지면서 확 트인 공간이 시야에 들어온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꼭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 절. 석굴암은 꼭 한 폭의 그림처럼 숲 속에 서 있다.

거기 그렇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볼만한 절 석굴암.

사실 석굴암은 그런 경치보다는 기도처로 유명하다. 천년고찰이자 청정 천일기도를 두 번이나 했다. 이렇게 주지 스님이 계행을 철저히 지키며 올곧게 수행하자 신도들도 따르기 시작했다.

신도들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철야기도를 하는데, 적게는 60~70명이 많게는 140명 정도가 참석한다. 이 철야기도도 불사관계로 최근 들어 월 한 차례로 줄인 것으로, 지난 4년간 한 달에 두 차례씩 해왔다.

봉사단체인 관음회와 청년회, 신도회의 활동도 덩달아 활발하다. 최근에는 포교에도 역점을 두기 위해 매주

천연 기도석굴로 유명한 나한 도량
수련장 건립불사 진행, 포교에도 역점

나한기도도량인 석굴암이 기도처로 잘 알려져 있는 이유는 바로 천연 기도석굴이 있기 때문이다.

이 '나한전 석굴'은 국내 최대규모의 천연 기도석굴로, 이곳에서 기도 정진해 뜻을 이룬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연유로 나한전 석굴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석굴암은 2003년부터 공사를 벌여 기존 13평에서 38평으로 석굴 규모를 확장하고 지난 4월말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은 석굴암을 최고의 나한도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 1998년 10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일체의 산문 밖 출입을 하지 않은 채 토~일요일 1박2일 템플스테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이를 위해 석굴암은 현재 내후년 완공을 예정으로 수련장을 겸한 설법전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것이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다시 천일기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불사가 끝나면 오갈 데 없는 아이들 108명을 키우고 싶어요."

주지 도일 스님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원은 이루어진다며 반드시 원이 성취될 것을 의심치 않았다.

석굴암의 설화, 연혁, 풍경, 불자들의 신앙수기, 석굴암 가는 길 안내 등은 석굴암 홈페이지(www.sukgulam.com)로 가면 자세히 볼 수 있다. (031)826-3573

한명우 기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산사로의 초대

고불총림 참사람 수행

참사람의 향기 "수행으로 가꾸는 삶"

참다운 자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간다.
어떠한 꽃향기도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니
전단수나 목향수, 화만수도 마찬가지네.

그러나 참다운 자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가므로
모든 방향으로 참사람의 향기는 퍼져나간다.

고불총림 참사람 수행 일정 및 신청 안내 - 주 제 : "수행으로 가꾸는 삶"

◑ 수련일정 :

구 분	수 행 기 간	참여인원
1차	7월11일(월) ~ 15일(금) 4박5일	60명
2차	7월18일(월) ~ 22일(금) 4박5일	60명
3차	7월25일(월) ~ 29일(금) 4박5일	60명
4차	8월 1일(월) ~ 4일(목) 3박4일	60명
5차	8월 6일(토) ~ 9일(화) 3박4일	60명

◑ 접수기간 : 2005년 6월 24일(금) ~ (정원 모집시 마감)
◑ 참가인원 : 각 기수별 60명 정원
◑ 접수방법 : 백양사 홈페이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참가신청서를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시고 참가비를 입금하여 주십시오.
◑ 참 가 비 : 3박 4일 80,000원 / 4박 5일 100,000원
◑ 문의전화 : 061)392-7502 / 팩스 : 061)392-2081(템플스테이담당자) qksditn@hanmail.net
◑ 입금방법 : 농 협 645117-51-014851, 우체국 501536-01-000205 (예금주 : 백양사)
※참가 본인명으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 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입금확인 후 정식 등록이 됩니다)

백양사 소개 : 백양사는 호남에 위치한 대표적인 사찰로서 백제시대 여환조사가 창건한 이래 근대 만암 큰스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중창 불사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제일 큰 선지식이신 서옹큰스님께서 속세의 많은 대중들에게 참나를 찾아 서로를 존중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참사람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선 수행 도량입니다.

덕숭총림 수덕사

여름 禪 수련회

	일 정	기 간	프로그램명	수련비	참가인원	대 상	비 고
1 차	7월 20일 ~ 7월 22일 (수요일~금요일)	2박3일	동국대학교 수련회	5만원	100명	대학생	접수마감
2 차	7월 27일 ~ 7월 30일 (수요일~토요일)	3박4일	禪 수련회	7만원	80명	일반인	접수 中
3 차	7월 31일 ~ 8월 2일 (일요일~화요일)	2박3일	만일염불회 수련회	5만원		불자들	접수 中
4 차	8월 4일 ~ 8월 6일 (목요일~토요일)	2박3일	禪 수련회	5만원	80명	일반인	접수 中
5 차	8월 10일 ~ 8월 13일 (수요일~토요일)	3박4일	禪 수련회	7만원	80명	일반인	접수 中

※ 궁금하신 사항은 수덕사 종무소로 전화연락 바랍니다.
※ 문의 : 041)337-6565, 011-1705-4828 / 팩스 041)337-0072
e-mail : tan002@hanmail.net
입금계좌 : 우체국 310060-01-005443(수덕사 포교국)



(수덕사 대웅전 : 국보 제49호)

주말 禪 템플스테이

선법의 기운이 충만한 수덕사에서 차한잔 하고 가십시오.
남이 아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禪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주말을 가족과 함께보내보세요. 소중한 경험이 되실겁니다.
※ 자세한 내용은 수덕사 홈페이지 (www.sudeoksa.net)를 참조하세요.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일산노인복지관 급식봉사 '푸르매'

"하루라도 빠지면 궁금해서…"

한창 점심 준비에 바쁜 경기도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능인)의 11시. 수많은 봉사자들 사이에서 묵묵히 튀김 화덕을 지키는 봉사자들이 눈에 띈다.

6월 27일, 장마가 시작되어 날은 궂고 주방 안은 후덥지근하고 특히 화덕 주변은 다가가기만 해도 온 몸에 땀이 흐른다. 이런 주방을 벌써 6년째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주방 총 지휘자 김정숙 실장이 '일산노인복지관의 얼굴'로 자신 있게 추천하는 보살들은 바로 '푸르매' 봉사팀이다.

탄현 원각사(주지 정각)에서 처음 만나 일산노인복지관이 개관한 2000년부터 꾸준히 활동해와 이제 복지관이 생활 터전이 되어버린 '푸르매' 팀. 이제 복지관과는 서로가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어쩌다 하루 안 나오잖아요? 궁금해서 못 견뎌요. 어르신들 얼굴도 어른어른 거리구요. 그럼 꼭 숙제가 생긴 기분이에요."

우현자(49) 보살의 말에 김근자(48) 보살도, 한순금(51) 보살도 "맞아, 숙제하러 또 다른 날에 또 봉사 나오잖아"라면서 맞장구를 친다. 그리고 가끔 주위에서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지체 없이 대답한다.

"힘들어도 그 때 뿐이지 금세 잊어버려요. 가슴 속에 힘든 일 담고 살면 일 못해요."

좋은 일 하는 것은 점차 주변에서 알아주는 법이다. 가끔 보살들이 너무 고맙다고 어르신들이 용돈을 털어 사온 음료수며 아이스크림에 감동 받은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그야말로 '봉사할 맛'이 나는 것이다.

또 보살들은 일산노인복지관에 나와서 배운 것도 많다고 말한다.

"주방일도 배울 것이 있을까 했는데 많더라구요. 스님들께서 어르신 식사에 들어가는 미역이며 우거지를 잘게 손질하시는 것을 보고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 다시 배웠어요."

푸르매 봉사팀은 지난 6년간의 활동을 통해 봉사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꼈다. 그래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한다. 자신과 이웃의 즐거운 인생을 위해.

글 · 사진/고양=김강진 기자



이름처럼 항상 싱그러운 '푸르매' 팀의 봉사활동에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의 주방은 활기가 넘친다.

독거노인 후원해 주세요

일산노인복지관에서는 지역 저소득층 및 독거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고 결연 후원 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

푸르매 봉사 보살들은 "꼭 필요한 분들께서 복지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연 등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031)919-8677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장애인들이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교육'을 하는 복지관이 늘고 있다. 사진은 6월 22일 강북장애인복지관 직업연수생들의 제주도 연수모습. 사진제공:강북장애인복지관

"우리도 일할 수 있어요"

장애인 직업재활교육 기관·후원 기업 늘어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재활 교육과 후원 활동이 불교계 장애인복지관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명궁) 직업연수생들은 6월 22~24일 제주도로 산업체 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일정 중 연수생들에게 가장 와 닿은 것은 제주도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춘강'이 지역 장애인들을 직접 취업지도 하기 위해 세운 춘강장애인근로센터(이사장 이동한) 방문이었다.

춘강장애인근로센터의 작업장. 귀금속을 재료로 예쁜 장식품과 악세사리를 만드는 모습, 아교풀로 영롱하게 빛나는 칠보를 조심스레 붙이는 춘강 장애인들을 지켜보는 강북장애인복지관 연수생들의 눈이 빛났다. 또 근로센터 직원들의 손끝마다 제주도의 특산품 함지박이 만들어지는 모습에서 연수생들은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특히 신행철(25) 씨가 느낀 것이 많았다. 현재 외국계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다는 신씨는 "제주도에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불교계 복지관에서는 산업 재활 훈련이나 연수와 함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도록 후원활동도 한다.

강릉장애인복지관(관장 현각)에서는 '강릉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따로 운영하며 떡 방앗간을 열고 지체장애인들을 고용해 감자떡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지역 특산물로 팔리는등 호응이 크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성언)에서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으려면 체력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근력운동 교실'과 '일상생활훈련 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강북장애인복지관 조석영 사무국장은 "불교계에서 먼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면서 특화된 상품 개발 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장애인의 취업 활동은 충분히 경쟁력 있다"며 장애인의 재활과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내보였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전국 장애인복지관 재활훈련센터 운영 현황

복지관	주요 재활훈련 사업	연락처
강릉장애인복지관	직업 상담 및 진단, 적응 훈련, 미술 · 음악 등 특별 훈련, 장애별 취업 알선	(033)643-1801~4
강북장애인복지관	연령별 · 장애별 직업 판단, 직업 교육, 취업알선, 직종 개발 등	(02)989-4215
경주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교육 및 취업 적응 훈련, 보호작업 훈련 등 진행	(054)776-7522~5
대성재활원	취업전 · 후 교육과 일시 취업, 임시 직업찾기를 통한 맞춤 직업지원	(054)822-8872
영주장애인복지관	취업상담은 물론 스팀세척 작업반, 사업체 개발 등의 특화 사업 운영	(054)633-6415~8
제천장애인복지관	취업지원, 취업 후 교육, 장애인 일반 취업 및 경쟁 채용도 실시	(043)652-0900~3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민수를 도와주세요.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4)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성금 보내주신 분

박상환 50,000원

총 누적금액 41,593,050원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수맥파 차단 카드

만병의 근원 수맥파! 가정에 1장이면 우리가족 건강!



(크기 8.5cm×5.5cm)



맬토차단캡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병원을 신축할 때 수맥파를 차단하는 동판을 깐다. 병상밑에서 발산되는 수맥파 때문에 치료효과를 거둘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의사들은 만성질환 환자를 치료할 때 치료 효과가 없을시 환자의 가정에 수맥파를 탐사하는 일이 종종 있다. 수맥파는 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산되어 사람은 물론 동물 까지도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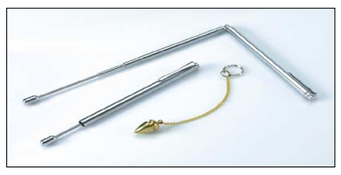
일본의 산업의학연구소는 수맥파가 있는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수맥파는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중증 질환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안상태와 우울증과 불면증, 무기력증 등에 시달린다. 또한 학생이 있는집에 수맥파가 흐르면 시험에 대한 불안, 초조, 공포감과 자신감을 잃고 산만해 진다. 수맥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학술발표가 잇따르면서 살고 있는 주택에 수맥파 차단카드 붐이 일고 있다.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돼 발명특허까지 출원된 수맥파 차단카드는 간단하게 안방장농 밑에나 침대밑에 놓고 맬로차단캡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20평주택은 완벽하게 차단된다. 수맥파카드는 5~6개월에 한번씩 햇볕에 3시간 정도 충전하여 사용하면 반영구히 수맥파를 차단하고 자고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대단히 가뿐해진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수맥파 차단 카드및 맬토 차단캡 포함

가격75.000
문의(02)741-4477
농협053-12-102911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세요

누구나 배울수 있고 정신집중에도 좋고 부업 또는 노후 대책도!





지금가지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것은 수맥지사 또는 氣전문가의 신비스러운 영역으로만 생각해 왔다. 氣의 입자 파장에서 세상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미세한 파장이므로 오랜경험과 경륜에 의해 감지하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탐지기의 발달로 보편적인 수맥과 수맥파는 일반인들도 연습하면 찾아 낼 수 있다. 수맥지사들은 주택의 60~70%가 수맥이 흐르고 수맥파가 발산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집 어느곳에서 몇미터 땅속에 수맥이 흐르고 물의 양은 얼마나 되는가 대단히 궁금하다. 그렇다고 지사를 모시게 되면 수십만원을 드려야 하므로 그냥방치하고 살다보니 건강에 해를 입니다. 그림 1 같이 수맥탐지기 엘로드를 가지고 집안곳곳을 탐사하다보면 그림2와 같이 엘로드가 십자가 모양으로 모이게 된다. 이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그림3 같이 그곳에 수맥추를 대고 정신집중을 하고 있으면 수맥추는 회전을 하는데 한바퀴 도는데 10m로 마음속에 정하고 5번이 돌았다면 50m땅속에 수맥이 흐르고 수맥추가 도는 속도에 따라 빠르게 돌면 한바퀴를 1톤으로 보고 5톤의 물이 하루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정신집중이 잘되지 않는 사람은 엘로드가 오작동을 하므로 참선이나 요가등 수련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노후대책으로 배워 둘만하다. 전국 氣기능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銀나노 엘로드와 탐사추 및 차단캡1개, 탐지법소책자 셋트 가격55,000
문의(02)741-4477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색)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불경에 입각해 부처님법구제작 전문업체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 불공속에 만들어낸 영험의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관세음보살 수진언 42가지 영험 중 1번으로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 금은 보화가 들어오며 땅을 소유하고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는다는 영험을 담고 있다.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내부구조가 일반 지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섬세하게 꾸며져 있다. 지갑앞면에는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고 영험의 불력으로 금은 보화를 들어오게 하는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부착해 자신감을 갖게했다. 여성용장지갑에는 귀금속 장신구 지퍼주머니가 내부에 만들어져 있고 신분증, 면허증, 주민등록증을 꽂을 수 있는 창 3개와 만원권 천원권 및 수표, 영수증, 명함꽂이 공간과 신용카드 11개를 꽂을 수 있으며 지갑 뒷면에는 동전 지퍼주머니가 별도로 있는 복지갑으로 안과 밖이 고급 천연소가죽으로 품위있고 세련되게 제작되어 있다. 축원불공을 마치고 판매하고 있는 관세음 복지갑은 출시 100일도 안되어 신비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다. 안돼던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도직전에서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지 못해 못팔고, 팔지못하던 부동산이 팔리고, 잃어버린 돈이 들어오는등 윤년이 끝나고 관세음보살 축복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관세음보살의 색상은 보화와 보물이 들어온다는 뜻에서 보라색으로 여성이 보라색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보화가 끈이지 않는다는 영험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정성껏 보내드리며 남여공용반지갑 5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이다.
문의(02)741-4488
입금농협:053-12-102911

함량미달 종단, 불교 이미지 흐린다

일부 신생종단, 무속행위 · 재산권 분쟁 '눈살'
교계-정부 협력 법인등록 검증체계 마련해야

새롭게 생겨나는 종단과 종교법인 중 일부가 비불교적 행위와 재산권 분쟁 등으로 불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1년 법인 등록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이후 종교법인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져 불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종단 구성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종단,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종교법인을 제도적으로 검증하고 규제할 장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산하에는 26개의 종단이 등록돼 있지만 이외에도 80여개의 종단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불교의 가르침에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몇몇 종단은 유명 종단 또는 사찰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불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등 문제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는 무속 등 불교에 맞지 않는 행위를 통해 신도를 끌어들이는 등 순수 불교종단으로 보기 어려운 곳도 적지 않다.

편법으로 종교법인을 구성한 후 지자체의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친인척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이에 더해 법인 재산 분규 등 말썽을 일으키는 종단도 있다. 2001년 경상북도에서 법인허가를 얻은 A종단은 2002년부터 법인 재산을 둘러싼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제대로 된 불교행사 한번 열어보지 못했다.

A종단의 종정 측은 "스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스님이 오랫동안 피땀을 쏟아 건립한 종단 사찰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前 총무원장측은 "법인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법인 재산을 빼내 종단과 법인을 빈 깡통 상태로 만들었다"고 맞서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포교는 커녕, 지역민들의 비난을 사고 불교 망신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재단법인 47개 사단법인 74개 외에 얼마나 많은 종교법인이 활동 중인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불교계는, 정체불명의 종교법인들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해도 이를 규제하거나 감시할 뚜렷한 수단조차 제대로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이를 막을 방도는 없는 것일까. 종단협 김석오 사무차장은 "불교계와 정부의 협력적 검증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함량 미달의 종단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들이 법인까지 만들어 활동하며 더 큰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비불교적인 종단과 불교법인을 걸러내는 '필터링' 작용을 할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단 등록과 법인 허가에 앞서 문화관광부와 해당 지자체가 종단협에 검증을 부탁하고, 종단협이 지역 사찰, 스님, 불자들과 연계해 이를 검토한다면 비정상적인 종단의 등장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종단협은 최근 지자체의 이와 같은 요청을 검토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6월25일 열린 삼회향놀이 국제 학술회의 개회식에 참가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왼쪽 두번째)과 부원장 춘광 스님(왼쪽 첫번째).

"삼회향놀이 시대맞게 정립해야"

천태종-진단전통예술協 국제학술회의

"영산재의 예술성을 지니고 있는 삼회향놀이를 고증을 통해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게 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과 진단전통예술보존협회(이사장 홍윤식)가 6월 25일 관문사에서 연 불교축제인 삼회향놀이 복원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한중일 국제학술회의에서 이상일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한국축제의 구조적 특성과 영산재 · 삼회향놀이' 주제 발표를 통해 "오늘에 전하는 영산재의 예를 보면 기본틀은 제의성과 예술성의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뒷풀이 형식인 예술성을 갖고 있는 삼회향 놀이 가계승 발전돼 한국 축제문화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문화요소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삼회향놀이는 영산재 의식이 끝난 이후 뒷풀이 형식으로 베풀어지는 가무를 겸한 불교적 연희의 한 형식. 해방후 불교계의 혼란등으로 인해 삼회향놀이의 명맥은 사실상 끊어졌었다. 이에 천태종의 중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가 당시 범패와 불교의식에 능통했던 스님들을 초청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원우 기자

천태종 하계간부교육

천태종은 제59회 하계 간부교육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총본산 구인사 관성당 5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박종(동국대) 교수의 '법화경 방편품' '법화경 비유설화', 김주환(동국대) 교수의 '지구의 변화', 장관석(청주 명장사 합창단 지휘자)씨의 '찬불가 배우기', 교육부장 용암 스님의 '계율특강', 인간문화재 신응수씨의 '불교건축특강'이 열린다. 문의 (043)423-7100 김원우 기자

온가족 산사에서 하룻밤
선암사 가족 수련법회

태고보우승가회(회장 호명)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제2회 산사체험 불자가족 여름수련법회를 개최한다.

'푸른 숲 맑은 마음 부처님 마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법회는 어린이 · 청소년 · 성인그룹 등 세대 중심으로 진행돼왔던 기존의 수련회 형식을 탈피하고 이들 세대가 함께 수행하는 가족중심의 수련일정으로 짜여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수련회는 참가자들이 대중들에게 자기 가족을 소개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시켜주기 위한 만남의 시간과 선암사에 주석했던 역대 고승들의 행적과 일화를 소개하여 참가자들의 신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암사 주지 금용 스님 특강 등으로 짜여졌다.

또 숲속명상과 잊혀져가고 있는 불교의 전통 참회의식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스님들과 함께 독송하는 염불수행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수행기간의 긴장된 마음을 풀고 가족과 이웃간의 대화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캠프파이어와 조계산 등반대회도 펼쳐진다. (02) 763-5213

김원우 기자



진각종 예비스승들이 만다라 그리기 체험을 하고 있다.

진각대 정진실수 교육

진각종 스승양성 교육기관인 진각대학(학장 경정 정사)은 6월 20~24일 경주 산내연수원에서 '정진실수' 교육을 실시했다.

진각대학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정진실수 교육은 정진, 종조법어 독경, 실행론 묵독, 만다라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 매일 오전 4시~오후 9시 정진실수교육에 참가한 진각종 교육부 과장 주원 처무는 " 맑고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염송수행의 참 맛을 맛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스스로 신심을 갖고 수행을 다시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정진수행 교육에는 보당(사서실), 주원(교육부), 청효(기획실), 혜운(문화사회부), 명인(심인중), 정목(시경심인당)처무 등 8명이 참여했다. 김원우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스님들이 지난 4월 화재로 전소된 낙산사 원통보전 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조계종 총무부장 현고, 낙산사 주지 정념, 총지종 통리원장 우승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천태종 총무부장 문덕 스님.

종단협, 낙산사에 성금 1억원 전달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6월 29일 지난 4월 5일 화재로 전소된 낙산사를 방문,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인 운산(태고종 총무원장) 스님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은 굳은 신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은 "한국불교계 모든 종단이 낙산사의 어려움 극복에 함께 해 주시니 힘이 절로 솟는다"며 "정성을 다해 낙산사를 복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부장 현고 스님은 "저희 종단의 사찰을 방문해줘 감사하다"며 "이 시대 명찰로 다시 태어나도록 의미있는 불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낙산사 복구기금 전달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천태종 총무부장 문덕, 총지종 통리원장 보승 정사, 진각종 재무부장 증광 정사가 참석했다.

글 · 사진/양양=김원우 기자

진각종 전주에 전라교구청 신설

대전교구청에서 분리

진각종 전라교구청이 신설된다.

진각종 원의회(의장 회정 정사)는 6월 24일 제 238회 원의회를 개최하고 대전교구를 대전과 전라교구로 분리키로 결의했다. 이에따라 대전교구 산하에 소속돼 있는 항수, 관행, 묘향, 보덕, 영광, 봉은심인당은 전라교구 소속으로 이관된다.

원의회는 이와 함께 항수심인당(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을 전라교구청으로 지정하고, 교구청장에는 항수심인당 주교 진성 정사를 6월 25일자로 임명했다.

이로써 진각종 교구는 전라교구가 신설됨에 따라 6곳에서 7곳으로 늘어났다.

이어 원의회는 종조법어 자료 연구모임을 새롭게 결성키로 하고 연구위원으로 혜인, 지정, 덕정, 일학, 혜언, 법경 정사와 김경집, 김치온 연구원을 위촉했다.

김원우기자

태고종 전법사 수계산림
9월5~11일 선암사서

태고종은 9월 5일부터 11일까지 17일간 태고총림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전법사 연수교육 및 전법사계 수계산림을 설판한다.

올해로 세 번째 설판되는 전법사계 수계산림은 사찰을 운영하면서 신도교화를 담당하고 있는 남녀 전법사들이 수행과 교화에 필요한 기본습의를 확실하게 습득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성직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포교일선에 사설 수 있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 전법사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종단의 포교사와 교임 중에 아직 전법사계를 받지 않은 전법사들이며 1, 2기 전법계를 받은 전법사들도 참석 가능하다.

(02) 382-7361 김원우기자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060-700-1080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우리이웃
1080 누르고 福 지으세요

수신토종오가피
禮獻
禮獻(예헌)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때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진상품을 일컫는 말
국내 최대의 토종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24년의 기다림!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수/신/토/종/오/가/피/ 예헌 禮獻
품질로 평가받겠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 규격과에서는 연구논문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오직 900분께만 매월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갑을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오가피에서도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1달에 오직 900갑만 생산할수 있습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기때문입니다.
수신오가피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복제를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매월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안겨드립니다.
※ 신삼베양근이 함유되어 있다는 모 업체의 오가피 제품은 성광수씨나 수신오가피와 하등의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예가 서병호 교수가 직접 제작한 분청다완을 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수경사 사태에 대한 사과문

본 재단은 소속 사찰인 수경사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부대중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경사는 1997년 본 재단에 등록된 사찰로, 그동안 언론에 각종 미담이 소개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아 왔으므로, 이와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허물은 재단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여 오늘의 수경사 사태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재단은 정법과 중생을 수호하지 못한 허물을 참회하고 사회적으로 쏟아진 모든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재단에서는 수경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사찰의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경사 사태는 묵묵히 자비행을 실천하며 무연고아를 양육하고 있는 제방 사찰에게도 적지 않은 누를 끼쳤습니다. 이에 본 재단은 해당 사찰의 선량한 대중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05년 6월 29일

재단법인 선학원 임직원 일동

대구불교방송
BBS 광복60주년 기념 국토사랑순례
금강산 · 신계사
8월13 ~ 15일(광복절연휴)
선착순 120명
www.dgbbs.co.kr
053)427-5114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국내 최초의 양 · 한방 디지털 협진 병원 이라는 일산불교병원의 개원 첫 날, 1층 창구앞에는 진료를 받기위해 병원을 찾은 불자들로 붐볐다.

“꼭 와보고 싶었어요” “잘 오셨어요”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개원 하던 날



일산불교병원은 불교정신을 반영한 건축양식을 채택했다. 사진은 고집멸도 사성제를 상징한 4층 높이의 외래진료동 로비 전경.



진료 개시식을 마친 이사장 현해 스님(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현성 스님, 홍기삼 총장(왼쪽 끝) 등 재단 임원들이 병원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원장 이석현)이 1000만 불자들이 염원을 안고 6월 29일 문을 열었다.

개원을 알리는 오색천이 내걸린 현관문을 들어서자 유리지붕 아래로 넓고 확 트인 병원로비가 펼쳤다. 오전 일찍부터 개원 첫날 진료를 받기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적지 않았다.

먼저 외래접수대로 걸음을 옮기자 친절한 미소와 깔끔한 새 유니폼을 반듯한 차려입은 여직원들이 반겼다. 모든 것이 새것이어서인지 깨끗하고 상쾌한 느낌이다. 국내 최초의 양 · 한방 협진 디지털 병원이라는 일산불교병원의 자랑처럼 원-스톱 서비스로 진료시간, 담당의사 등을 안내 받고 1층 정형외과 로비에 앉았다. 통합의료정보서비스 덕분에 모든 창구에서 진단서 처방전 수납 퇴원수속 등이 네트워크를 통해 한번에 처리되고 있었다. 대형 LCD모니터에 진료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뜨고 차례를 기다리는 환자들.

이날 환자들은 그동안 불교병원 개원에 관심을 두고 지켜봐왔던

국내 최초 양 · 한방 협진 디지털 병원 차트 네트워크화, 통합의료시스템 자랑

불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고양시 원당에서 찾아왔다는 이숙자(68)보살은 도선사 신도. 불교병원 개원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이 보살은 “다들 친절하고 새 병원이라 더 맘에 든다”며 환하게 웃었다.

박희화(65) 보살은 아침 7시 안양서 집을 나섰다. 조계사 신도라는 박 보살은 “먼 길이지만 불교병원 개원이라니 꼭 한번 와 보고 싶었다”며 “자원봉사활동에 자주 참여하면서 일산불교병원 개원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오랫동안 허리와 무릎 관절질환을 앓아온 박 보살은 이날 오전 우리나라 정형외과 최고권위자라는 태석기 교수로부터 검진을 받았다.

일산불교병원은 1994년 병원 설립을 결의하고 1998년 5월 착공을 시작, 2002년 9월에 준공됐다.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건립된 일산불교병원은 건축 설계부터 불교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특히 스님과 불자를 배려하여 특별히 마련된 공간들이 돋보인다. 총 1,000병상(초기 400병상가동)의 초대형 종합병원으로 연건평 2만7천여 평(지하 2층, 지상 12층)에 외래진료동과 입원병동, 진료지원동, 장례식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공사비로만 1300억원 가까이 지출됐고, 초기 개원 준비에 따른 장비도입과 시설 등을 포함해 약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개원시기를 결정하지 못해 수차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대로 된 불교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불자들의 원력은 꺾이지 않았다. 수백억의 삼보정재가 모였고 결국 이날 병원은 개원했다.

일산불교병원의 정식 명칭은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

이름에서처럼 국내 최초로 양 · 한방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갖춰 의료계의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통합 효과를 극대화시킨 일산불교병원은 치료 · 예방 · 요양에서 건강관리까지 연계된 종합 의료체계를 지향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 모든 차트는 유 ·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돼있다. 따라서 병원 내에서 필름이나 종이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큰 특징이다.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된 17곳의 수술실,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무균수술실,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등 최첨단 의료장비 역시 국내 최고 수준이다.

특히 아산중앙병원을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 키워낸 민영일 교수팀, 심장전문 이명묵, 정형외과 태석기 교수 등 권위 있는 의료진을 초빙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소화기병센터, 심장혈관센터, 관절질환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전문센터를 주축으로 양방병원 32개, 한방병원 8개 진료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건강증진센터는 양 · 한방 최고의 명의가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는 일산불교병원만의 자랑이다.

지난 2004년 10월 의무원장에 취임한 이석현 원장은 “최고의 의료진, 100% 디지털화 된 시설, 첨단장비, 불교적 심성을 가진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가 일산불교병원의 강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병원을 찾은 불자들은 한결 같은 마음으로, 천만 불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병원으로 일산불교병원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031)961-7000 www.duih.org

일산=조용수 기자 · 사진 고영배 기자

■ 일산불교병원 돌아보기

3D 64슬라이스, 생생한 입체 영상 보여줘
병원내 법당 마련, 사찰음식점 입점 예정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소화기병센터를 시작으로, 정형외과, 내과, 피부과, 비뇨기과, 소아과가 위치해 있다. 특히 통합진료실은 환자에게 현재 질병 외에 다른 질병이 발견될때 곧바로 연계 치료가 가능하도록 모든 진료과가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스님들의 경우 우선해서 통합진료실 이용이 가능하다.

중앙에 위치된 분수대를 사이에 두고 최첨단 자기공명영상(MRI)와 CT 장비를 보유한 영상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및 응급실을 1층에서 만날 수 있다. 국내 단 3대뿐인 ‘3D 64슬라이스(신체를 64방향에서 입체촬영)’ CT기는 마치 몸속의 장기를 직접 꺼내 보는 듯 생생한 입체영상을 제공한다.

2층은 심장혈관센터를 주축으로,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및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가 있으며, 내과 중환자실과 심혈관센터 검사실, 소화기 검사실, 신경계 검사실 등이 위치해 있다.

7월 19일에 개원하는 한방병원이 위치하는 3층은 한방치료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현 원장과 민영일 교수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강증진센터는 약 500여 평의 규모로 4층에 배치됐다.

일반 병동이 시작되는 4~11층은 환자들의 요구에 맞게 테마별로 포진해 있다. 4층은 주로 산부인과와 소아과 중심으로 병동으로, 5~6층은 양 · 한방 통합진료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한방병동과 신경계중환자실로 설계되어 있고, 무균실인 조혈모세포이식실이 7층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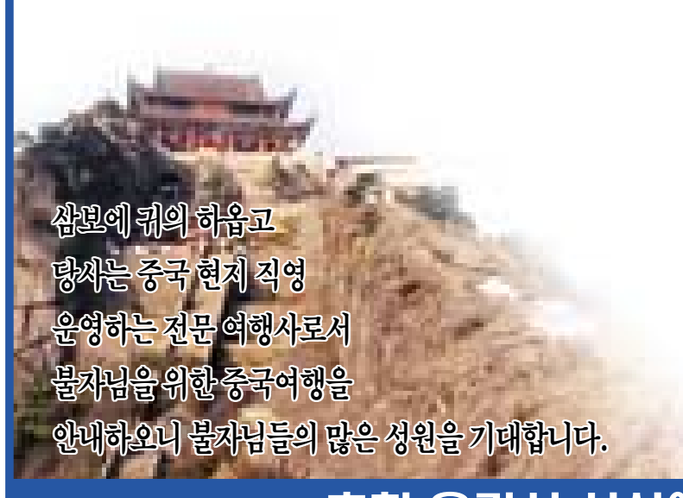
일산의 전망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11층의 특별 병실 3곳은 35평 규모로 회의실과 가족실을 갖추고 있다. 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찾아와 예불을 올릴 수 있는 5층에 약사법당, 지하 1층에 지장법당이 있어 불보살의 가피를 얻을 수 있게 했다.

선식의 대가인 선재 스님이 운영하는 사찰음식점도 곧 들어설 예정이다.



내부 장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최첨단 CT촬영기.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티벳 성지 순례 8일
여행경비 : ₩ 1,890,000원
(중국 비자비, 가이드, 기사팁 포함)
왕자 싯다르타에서 깨달은자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오묘한 묘음에 밀교 티벳 불교 성지순례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미얀마 태국 성지 순례 6일
여행경비 : ₩ 1,290,000원
화려한 황금빛 에머럴드 사원이 있는 부처님의 나라 태국과 세계 8대 불가사의중 하나인 천년 보고 앙코르와트의 신비를 간직한 미얀마가 여러분을 불은(佛恩)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 790,000원
10명이상 출발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무늬' 벗고 참불자 되세요



불자는 계를 받아 지니고 신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진은 회원들의 올바른 신행관을 키우기 위해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안양시청불자회원들의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수계는 불자의 첫째 요건
원찰 정하고 신행활동 동참
교육 받고 바른 믿음 키워야

참 불자의 요건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설문결과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은 3.5%에 불과했다. 1년에 한두번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도 불자라 할 수 있을까?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만난 A씨. 정기적으로 다니는 원찰이 없고 수계도 받지 않았지만, A씨는 마음 속으로 늘 사찰과 불교를 좋아한다. A씨는 과연 불자일까 아닐까. 답은 '무늬만 불자'다. 그렇다면 참불자의 요건은 무엇일까. 수계, 정기법회 참석 등이 불자의 기본요건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수계-지계 필수

오계를 받고 법명을 수지하는 일은 불자가 갖춰야할 첫째 요건으로 꼽힌다. 수계는 불 · 법 · 승 삼보를 진실로 믿고 따르겠다는 다짐이요 서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를 받는 시점이야말로 불교에 들어서는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계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지계다. 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수계의 참 뜻이기 때문이다.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장 철우 스님은 "계를 받아 지니고 지키는 일이야말로 불자의 첫째 요건"이라고 강조한다.

#원찰-신행의 뿌리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행을 점검하고 인도해 줄 사찰과 스님이 있어야 한다.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불자라 하기 어렵다. 믿음의 행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신행이고 이를 실현하는 공간이 사찰이다. 또한 사찰은 삼보에 귀의하는 의지처이자 법을 구하는 귀의처다. 원찰(原刹)을 갖고 정기법회에 참석해 스님의 법문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찰은 불자에게 신행의 뿌리와 같은 존재이다. 공부하는 이에게 스승이 있어야 하듯이 불자에게는 신행지도를 받을 사찰과 스님이 있어야 한다. 정해진 원찰 없이 이절 저절을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도의무 다하라

신도는 승단을 구성하는 기본요건. 여기에는 신도의 역할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불교를 믿는 신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며, 불자는 기꺼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가운데 소속 사찰이나 종단에 신도의 무금을 납부하는 일은 신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찰과 종단에 대한 소속의지와 참여의지를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불자라면 신도의무금을 내는 일을 비롯해 신도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기본교육 받아라

올바른 신심을 갖고 신행활동을 펼치는 일은 신도의 기본요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신도기본교육은 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일반적으로 사찰에 신자접수를 하게 되면 기본교육을 받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시스템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뒤 계를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소규모 사찰일 경우에는 기간을 두고 한꺼번에 기본교육을 실시하므로 수계를 먼저 받을 수도 있다.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입문하지 않으면 불교를 취미로 생각하거나 임의적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타행 실천하라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실천하는 일은 불자들의 의무다. 따라서 불자들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이타행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저 알음알이에 머문다면 참다운 불자라 말하기 어렵다. 이타행이야말로 불교의 근본사상이기 때문이다.

이타행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 보시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행으로 나타날 때 바른 믿음을 가진 불자라 할 수 있다.

가평 백련사 주지 승원 스님은 "어쩌다가 가고 싶을 때나 절에 간다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이를 불자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원찰을 갖고 기본교육과 계를 받아 바른 믿음을 키우고 실천하는 이야말로 참불자"라고 말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단체 이사람



김주효
前 전국병원불자연합회 회장

지난 5년 '병불련 활성화' 앞장
남은 시간 마음공부를 화두로

30여 의료기관 불자회로 구성된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이하 병불련)를 이끌어온 김주효 前 회장(국립서울정신병원 간호과장).

2000년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창립때부터 지난 6월까지 5년간 회장을 맡아온 그는 가입기관 확대, 의료기관 불자회 창립, 연합의료봉사 등의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지난 5년 동안 김 前 회장의 화두는 '병불련 활성화'였다.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꾸려가는 일이 쉽지 않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병불련을 대표하는 인물로써 한계를 느낀 적이 많았지만, 힘 닿는만큼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활동했어요. 대단한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채찍질한거지요."

39년을 의료인불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김 前 회장은 1966년 간호학교를 졸업한 뒤 공주결핵병원을 첫 근무지로 발령받은 이후 충남의료원을 거쳐 1979년부터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일해 왔다. 며느리, 아내, 엄마의 역할을 해야 했던 가정생활과 의료인의 사명을 다해야 했던 직장생활에 매여 있다보니 종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한다.

그러면서도 "퇴근후 가정일에 매달리다보니 절에 자주 갈 수가 없으니 직장에서라도 기도시간을 갖고 정진하자"던 1992년 국립서울정신병원 불자회를 창립할 당시의 초발심을 가슴에 담고 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어렵게 만나는 회원들이 너무 소중한 인연이 되었어요. 병불련과 국립서울정신병원 불자회가 앞으로 부처님법에 따라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신행모임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어요."

공적(空寂)이란 법명을 갖고 있는 김 前 회장은 친가의 어머니가 다녔던 서울 영화사를 원찰로 삼고 있다. 시간이 많아지면 오랜 직장생활 때문에 하지 못했던 마음공부를 하고 싶은 것이 김주효 前 회장의 작은 바람이다.

"어렸을때 햅곡식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어머니의 정성이 저를 불교로 인도한거나 다름 없어요. 간호학교 시절 개신교를 믿던 친구가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자고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은 것도 그 기억 때문이지요. 지금은 부처님 법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쁠 뿐이에요."

박봉영 기자



국회 정각회는 6월 30일 서울 관문사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와 정기총회를 열었다.

국회 정각회 창립1주년 조찬법회

부회장에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

제17대 국회 정각회(회장 이용희)는 창립 1주년을 맞아 6월 30일 서울 관문사(주지 춘광)에서 조찬법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박세일 前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궐석이 된 부회장에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을 선출했다.

기념법회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정각회원들이 한국정치에 활기를 불어넣고 정치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라"고 법문했다.

이용희(열린우리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이 땅에 부처님의 뜻을 펼치겠다는 각오로 1년전 창립한 정각회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반성과 함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이용희 회장과 안홍준 간사장, 이상배 한나라당불자회장, 이영호(열린우리당), 김정부, 김정훈, 김학송, 이계경, 이계진, 이인기, 장윤석, 정갑윤, 주호영(이상 한나라당) 의원, 한화갑 민주당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박봉영 기자

의료 · 신행 모두 힘써주길…

고대의료원 불자회 결성, 7일 안암병원서 창립법회

고려대 부속병원인 고대의료원에도 불자회가 생긴다. 이번 고대의료원 불자회 창립은 의료기관 불자회 결성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고대의료원불자회는 7월 7일 오후 7시 안암병원 대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고대의료원불자회에는 고대의료원 안암병원과 구로병원, 안산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불자 7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불자회 창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김우주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초대회장으로 내정됐다.

고대의료원불자회는 앞으로 회원 확대에 힘쓰는 한편, 의료원내 법당 개설, 정기법회 봉행, 의료봉사, 성지순례 등의 활동을 펼친다. 특히 회원들과 불교신자 환자 · 보호자들이 활용할 법당을 마련하는데 힘써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병불련 회장에 이원철 씨



30여 의료기관 불자회로 구성된 전국병원불자연합회를 이끌어나갈 새 회장에 이원철(사진) 동국의료원 일산불교병원 한방병원장이 내정됐다.

병불련은 6월 28일 동대부속여중고 정각원에서 김주효 회장의 이임법회를 열었다.

김주효 회장은 "의료인불자들의 신행활동을 권장하고 도울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이 힘써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계 잘 지키겠습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6월 25~26일 양산 통도사에서 제5차 합동수계법회를 열었다. 법회에 참석한 54개 기관 8백여 공무원불자들은 일주문에서 금강계단까지 3보1배를 한 뒤 5계를 수지했다. 공무원불자들이 참회진언을 외며 연비하는 모습.

최첨단 Thunderstorm 원리로 세계시장을 완전 석권한 - 리빙에어

EcoQuest

EPA Est. Reg. No. 065975-TN-001

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꿈꾸십니까?

無필터 無병균 無악취 첨단기술방식 공기청정기 Living Air



◆산업공해 연구원(시험성적표) ◆고려대학연구소 측정확인서
◆캐나다 환경청 인증서 ◆미국환경청 인증서

미국 EcoQuest사에서 제작된 LivingAir는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격찬을 받고있는 세계적인 공기 청정기 시스템으로서 최첨단 신기술(Thunderstorm : 천둥.번개+RCI : Radiant Catalytic Ionization : 광촉매방식)의 신산화작용(AOP)으로 약취와 VOC' S(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감소 시킴과 동시에 살균 효과로 언제나 숲속에 있는듯한 상쾌한 기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 리빙에어의 다양한 효능 ❖

▶새집증후군으로부터 배출되는 유기화합물 분해
▶환경오염으로 오는 비염, 알레르기, 아토피등의 질병예방
▶애완동물의 털, 먼지, 음식냄새, 담배냄새 제거 탁월
▶곰팡이, 박테리아 살균 및 습기로 인한 악취제거
▶유해냄새및 담배연기로 인한 두통, 만성피로감에서 탈피



Breeze AT
· 공기청정기부분 미국 제1의 매출실적
· 소독기능 장치 / 리모콘 기능
· 소음이 거의 없음
· 오존발생 일시 제거기능
· 5평에서 70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사용



XL-15Classic
· 제작 20년의 기술축적
· 5평에서 84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사용
· 필터 교환의 번거로움이 없어 비용이 절감
· 높이 30cm, 폭20cm, 무게8kg 으로 자유롭게 이동 설치
· 카드플레이트의 세척만으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



Fresh Air
환과 정화를 위한 정확한 공간의 면적을 표시해 주며, 조정 가능한 살균방식에 남은 시간을 알려줍니다.새로운 SynAirG5 시스템은 광촉매 기술로 하여금 보다 빠르고 더욱 효과적인 에코테크 과정을 촉진합니다.

■ 오투에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3-7 이오빌딩 518호) ■ TEL : 02)2055-0202 ■ FAX : 02)2055-0279 www.o2air.net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2004-8200 /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개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채용용 / 인테리어
6. 생활정보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사문의
011-869-8560 진우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 전수자 모집
기초부터 특수반까지 여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
바라무 작법무 기타 법무
개인지도 각 행사 대행해드림
영남불교전통범음범패전수원
051)554-1518
011-849-0961

학 인 모 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에서 범음·범패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무보시 학인을 모집합니다.
바라, 사물 다루는 법, 49재, 의식 및 전통교육
문의처 055)381-1199

易(역) 초급반 모집 00명
기초에서 전문과정까지 색다른 강의로 한문때문에 망설이는 분
• 수강료 5만원. 스님 직강
02)952-8131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8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 02)720-5719/720-5682

눈
• 밝은눈, 맑은눈, 천연한방차
• 눈건조, 컴퓨터 눈건조, 시력향상
하루 3잔드세요 02)478-6262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바라춤.작법.살풀이
49재,천도재,기타의식에 정성을 다해서 안무해 드리겠습니다 _()_
010-9209-0142
불교무용 속성 강좌

사주명리학 확실하게 배우실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기타
주2회(화,금요일) 2시간씩 5개월간
초보(입문)에서 예행, 연수까지 책임완성
수료후 재청강은 무료, 개업 부업 적극지원
6호선 망원 전철역 2번출구 인근
해동명리교육원 02)336-8484

경동시장 한의원
(안채)한옥 1채
포교당이나 철학관운영하실분
명리, 역학, 동양의학에 관심있으신분 환영
(경동시장 제일학원 뒤)
02)961-8835
서울 동대문구 천은당 한의원

서울시내 조용한 조계종 사찰입니다
신심깊은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16-9755-8988

행 자 모 집
천일기도후 수계
자격: 40세 미만, 남,녀 고졸이상
천일기도 의지가 있는 분만 연락요!!
011-468-90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대, 서울 구로동)
011-9123-3770
019-369-0453

비구니,기도스님 행자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 곳 동해사
033)672-2900
033)671-6079

비구니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사무직보살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40~50대)
011-828-3618

부전스님 모십니다
유서깊은 도심사찰
금법당 수국사 사부대중 합장
02)356-2001,
011-746-8698

조용한 암자에서 수행 기도하면서 평생 절에서 사실 보살님이나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41)567-5085
011-337-3991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31)632-4885

비구니 주지스님 모십니다
▷성남시 소재 암자
011-9759-066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스님에 한함
(원주스님 포함)
041)567-0391

불심고 신심있는 종무보살님 구함
경리와 PC가 가능하고 친절한분
30~45세 미만
011-351-2993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576-2737

기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6-9730-3003

기도스님 모십니다
▷40~50세
051)542-4848
011-551-1719

급 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386-092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남양주 지역(40대 후반~50대 후반)
031)571-5424
017-681-9858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춘천)
011-370-5904

대한불교조계종 고령산 파주 보광사 천년고찰인 지장도량 납골당 영각전 서울에서 30분 소요. 운전할 수 있는 처사님 업무 보실 보살님 모집합니다
031)948-7700~1
031)948-4440

신심있고 건강한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도심속의 신축건물 사찰임
▷울산 선암사
011-860-8793
052)282-8793

중앙승가대학 93학번 '무아' 비구니스님을 찾습니다
이 신문을 보신 즉시 연락바랍니다
011-819-1570

행 자 모 집
천년고찰이며 전통수행도량인 본 사찰에서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신심과 원력을 가진 수행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설악 백담사 033)462-6969

영남 제일 지장기도 영험도량
• 웅장한 산세아래 기운이 숨쉬는곳
• 교통사통팔달, 조용한 분위기. 15m 동굴곡 기도처
• 최신식 방사완비 인연있는 불자 및 심신수련을 원하시는분 5명 독방사용 선착순, 숙식제공
055)941-0979
주지스님은 30년 지장기도 가피받은 현몽으로 맺은사찰(암자)입니다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장전3동 614-6 (부산 동래온천시장 내)
• 총 50평(3층 건물 중 2층)
• 호불 400불, 인등 600등, 연등 500등, 원목닫집(단청필)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절충(법당 최고 시설)
010-3191-7370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눈
• 충혈,눈물,피로,눈곱,눈이 뻑뻑함
• 침침함,눈부심,안구건조,가려움 등
눈 전문 특수영양식품
일본특허 2790212 식약청HSK 2106909099
미국특허 5382714 KIST승인 KDAR03G-3K
일본 성인병예방협회 추천제품
제조 : 日本(株)MERCURY-MK
눈밝은 세상 : (02)2234-8004
황암 특보
각종 암,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뚜렷한 치유의 기쁨을 확인시켜드리는 일본제품을 소개합니다.

전국 제일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감포도량, 뉴욕도량, 서울도량
▶신입생 주·야간반 모집
• 주1회 공부/학력,연령 제한없음 • 일반신도교육, 조계종포교사 배출기관
• 최첨단 시설
▶행자(예비스님 남·녀)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 – 45세미만,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우학스님 – 직접강의 ('저거는 뱬날 고기묵고'의 저자)
대구도심사찰 최초! 남골당 운영
문의전화 : 053)474-8228 011-9852-0075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 오며, 단, 10㎏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1Box(60포 – 20만원)~~ ~~• 2Box(120포 – 35만원)~~
1Box(60포 : 15만원) 2Box(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과일의 왕 두리안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두개 6.5KG이상 55,000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원
Sale!
후식으로 보이산차 장미차 국화차 중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판매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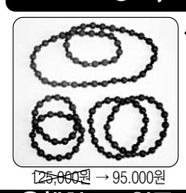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배개볼 1인용 ~~55,000원~~ → 45000원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잇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등 이외의 죽어가는 것도 다 살릴 수 있어요.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신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어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손발이 자주 붓는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125,000원 → 95.000원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이 붓거나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氣를 골고루 전달, 심장박동원활, 신진대사촉진, 신경 및 피가 맑아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아요.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강북구
- 임법당: 40평
- 부지: 61평
- 가액: 3억5천

- 위치 : 경기 가평
- 법당 : 25평
- 요사 : 실 90평
- 부지 : 672평
- 가액 : 4억

- 위치 : 전북 순창
- 법당 : 17평
- 요사 : 25평
- 부지 : 350평
- 가액 : 1억5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① 서울시내큰사찰-45억
② 경기신축사찰-4억3천
③ 강원문화재사찰3만2천평-7억
④ 경기산속사찰3000평-8억
⑤ 봉천동사찰175평-4억5천
⑥ 서울토굴국유지150평-1억5천
⑦ 충청여법한사찰3천평-9억
⑧ 여주1200평-1억2천

♦사찰다량보유,공양주부전스님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평수 : 200평
- 법당 20평(기와단청), 삼존불, 약사전, 신중단, 각단 후불탱화, 범종, 원불, 삼성각(5평기와), 요사채 20평, 방3칸, 입식부엌(정화조 유), 산신지지가 응집된곳
- 가액 : 상담후 결정

010-6440-3062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신축 2층건물
- 대지: 105평 ● 법당: 28평
- 요사채: 45평
- 시설: 화장실 4, 심야보일러, 수도, 지하수, 창고, 상수도
- 가액: 2억 8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1-785-5670
053)986-2227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군청 소재지
- 땅 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18평 외 미륵불
- 요사: 23평, 용왕전
- 급매 1억2천, 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40평
- 법당 : 12평
- 요사 : 12평
- 가액 : 2억 3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 평수: 60평 (대지 402평) 대웅전: 33평 (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 7층석탑 전망좋고 수행과 포교에 적합
- 가액: 7억3천만원

011-9411-5302

신 축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옥천(대전 20분거리)
- 대지: 200평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목조) 요사채 18평 11평
- 옥천읍 5분거리에 270호의 촌락의 끝이면서 산자락에 자리한 작고 아름다운 사찰로써 비구니스님께 적합
- 가액: 1억1천만원

011-9405-8186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 (대전에서 20분거리)
- 부지 405평 건평 목조 한옥 20평
- 가액: 1억 8천

041)753-8137
010-4202-3699

사찰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56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7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도심속 사찰 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지역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대지 8×6미터 코너 112평 건평 120평 1층상가 4개 2층법당 최고시설 완벽함 1층상가 매월 임대료 120만원 나옴
- 총 가액 4억 8천중 상가보증금 융자금 빼고 2억 7천이며, 개인사찰 등기 완료
-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께서 답사하시어의논바람
- 주차 80%. 가능성 없는 전화사절

010-3166-8483/032)667-848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평창
- 부지 : 10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 ※ 계곡 및 산세좋음

- 위치 : 부산시내 서구
- 부지 340평
- 법당 40평
- 요사 40평
- 가액 4억5천(융자가능)
- ※ 산세좋으며 바다 전망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자리중에 자리! 국내 최고의 자리!

영험의 자리!(백문이 불여일견)

- 신당동 중앙시장 건너편
- 평수 : 20평
- 보증금 1,000만원 / 월7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2)2236-2284
019-634-3069

포교당안내

-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가격절충 가능)
- 즉시법회. 몸만들어오면 됨

019-571-1732
02)2208-6098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
- 법당 : 12평
- 삼존불, 신중, 칠성, 각단탱화
- 요사채, 방 4개, 공양실 창고, 욕실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5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8678-9950

토굴암자터안내

- 위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2리
- 맑고 청정한 소나무 숲속도량
- 조용히 공부하며 사실분 적합
- 차진입 전기들어옴 컨테이너 가로등있음
- 관리지역 725평
- 가액: 4500만원

011-373-485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1천 2백만원 포함)

019-503-7959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경남 양산시
- 법당: 70평(방2)
- 보증금: 500만원(월38만원) 시설비: 2500만원
- 특징: 아파트 밀집지역의 포교당임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부지 : 70평(사용평수:200평)
- 법당 : 25평(기와, 단청:임법당)
- 요사 : 15평
- 가액 : 1억9천만원
- 특징: 숲과 계곡이 있는 도심 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서면에서 도보로 10분거리
- 평수 : 60평 5층건물 5층
- 전세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5백만원

010-2245-3534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 60평
-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가액 : 1억9천만원 (3천5백만원 융자포함) 절충가능

011-9543-022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통영시 인근섬
- 대지: 120평 밭: 200평 요사채18평(방4개) 법당: 30평(삼존불 각단탱화)
- 특징: 불심있는 지역으로 포교불사에 관심있는 스님 적합
- 가액: 1억6천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1-9576-1648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천호 4동 암사역 2분거리 ● 평수: 48평(5층 건물중 2층)
- 시설: 사존불 외 집기일체 후불탱화, 방 2칸, 주방, 화장실, 베란다, 시설완비, 대로변, 역세권 유동 인구 많고 위치 최고 좋음 포교원 운영해 보실분 인연기다립니다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7324-511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대명동
- 건물(시설): 방2개, 주방(총 40평)
- 법당: 삼존불, 신중, 시왕 탱화 모셔져 있음
- 특징: 에어컨, 집기일체 완비, 몸만들어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600만원, 월 23만원 (외유관계로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011-9850-2946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 상동
- 대지: 370평
- 법당: 20평
- 요사: 임법당
- 가액: 1억7천
- 풍수만점 토굴 별장으로 개조가능

- 위치: 경주 ↔ 포항
- 대지: 650평
- 법당: 20평
- 요사: 55평
- 가액: 4억
- 포항20분, 경주30분 거리 편안한 신라고찰터 암자

- 위치: 부산
- 대지: 2천평
- 법당: 30평
- 요사: 50평
- 가액: 15억
- 여법한 도심사찰 산아래 남향 전망만점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1)581-1599, 018-563-9575
대길부동산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임법당 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불광동
- 단독, 법당,방1,거실, 주방,욕실 3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2)352-9810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주지실 3평 주차장 200평

051)941-0195
010-6480-6960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대조동 (불광 터미널 앞 위치)
- 약 23평,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 1천300만원 월 45만원

010-8963-9983

포교당안내

- 위치 : 안양역 부근
- 50평. 3층 건물에 2층
- 가액 : 보증금 1천 7백만원에 월 6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31)466-0706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도봉구 창동 (전철역 3분거리)
- 규모 : 17평 아파트 1층 (복도식 코너)
- 가액 : 8,500만원(답사후 절충)
- 현재 법회 운영중 (철학 겸비 호조건)

연락처 011-9036-999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찰안내

- 위치: 부산 강서구 녹산동 부근 경내에 500년생 괴목 2그루 (부산시 보호수)있음
- 법당. 요사(큰방1, 각방3) 등기필
- 가액: 3억5천만원

010-5655-1250
051)973-4562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대 지하철역 부근
- 법당 35평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0-7181-1878

포교원안내

- 위치: 충남 천안시 원성동
- 평수: 30평 2층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옥상사용가능, 3층창고 6평
- 보증금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700만원

010-9465-6808

포교당안내

- 위치: 인천 중구 내동 3층건물중 3층 전체
- 평수: 30평 방3개
- 가액: 전세 6500만원

011-9952-1413

사찰(불교대학)안내

- 위치: 인구 60만(대구 달서구 소재) 8차선 대로변 지하철1분거리
- 건물: 3층(70평) 방4개 창고1개, 법당(30평)삼존불 후불탱화 원불 인등
- 가액: 보증금 2천5백만원(월 70만원) 시설비는 최저로 보시합니다

011-699-9120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서울에서 1시간30분)
- 화장터 장례예식장 300m사이
- 법당납골당 최고 명당자리 (민원없음) (건축설계, 토목공사 완료)

- 위치: 경기도 광주 (서울에서 30분)
- 대지: 290평 건평: 110평 새통나무 기와집 2동 대웅전 요사채 방8개
- 경기도 광주사찰 투자하여 운영하실분 모심

011-9109-3660/031)767-0837
011-9004-3613

사찰안내

- 위치: 경북 경산
- 대지: 240평 텃밭 700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 가액: 1억5천

010-3131-5842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신모라 사거리
- 평수: 약40평
- 전세금: 보증금 3천만 월 10만 시설비: 절충 후 결정
- 교통편리, 아파트 단지 인근 포교최적지로 즉시 입주가

051)317-0011

사찰안내

- 수원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주택밀집지역 도심포교최적지
- 가액: 5억8천

011-9916-2820

- 부산 북구APT밀집지역 산 밑에 있어 주택지와 바닷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최고의 경관지임
- 가액: 4억2천만원

011-9916-2820

사찰, 법당, 앰프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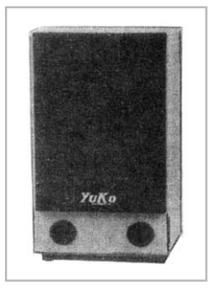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비구니 행자(女)구함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중심가 상권밀집
- 평수 55평
- 가액: 보시 5천8백만원

010-8678-5442
011-9193-2351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낭성면
- 평수(대지): 466평
- 법당 26평(2층), 요사 26평, 창고 30평
- 가액: 1억6천만원

016-467-5822

사찰안내

- 위치: 의령읍 용덕면 25년 정동 의령읍 5분거리
- 대지 180평
- 법당 요사 차량 마당내 진입 양도, 전세 1년세 모두가능
- 가액: 형편따라 절충

011-296-5036

사찰안내

- 위치: 부산 광역시
- 전세: 1억5천 가액: 4억
- 대지 2000평 건물 4동
- 절충가능함

016-591-3510

사찰안내

- 위치: 경북 경주시
- 대지: 86평 1층 34평 요사채 2층 24평 법당
- 특징: 시장옆 주택 밀집지역 교통편리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
- 평수: 2층 3층 각 30평 2층: 접견실, 공양간(큰방), 스님방 3층: 법당(삼존불 각단탱화) 지장보살(탱화) 산신각(산신탱화)
- 가액: 보증금 1000만 월 60만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3167-1774
032)662-1774

사찰안내

- 위치 : 강릉시 옥계면. 신축사찰
- 대지 150평, 전 430평
- 가액 : 전세 3천만원, 양도가 1억원

양산포교당

- 평수 : 3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35만원. 절충가능

010-4841-3499
055)362-0199

사찰안내

- 위치: 충청도 부여
- 사찰 부지 3600평
- 산세수려한 경관 뒤 울창한 산림에 관음기도도량 약수물 논농사 밭농사등 토종 오가피나무 두릅 등 재배중
- 요사채3동, 방5개, 공양실, 창고, 욕실, 기도실
- 바로불사법회 가능
- 자동차 법당입구까지 주차가능
- 가액: 4억5천(절충가능)

016-661-7381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서2동 부산은행 앞
- 평수: 40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 집기일체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 됨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200만원

052)295-3700
010-4846-5194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 평수: 30평. 3층건물중 3층
- 시설: 사존불외 일체 후불,지장,신중,산신 탱화 방1칸, 주방, 화장실, 베란다, 에어컨 시설완비
- 유동인구 많음, 배 300여척 드나듬
- 가액: 보증금+시설비 3500만원 월 30만원
- 역술하는분 환영

010-7181-7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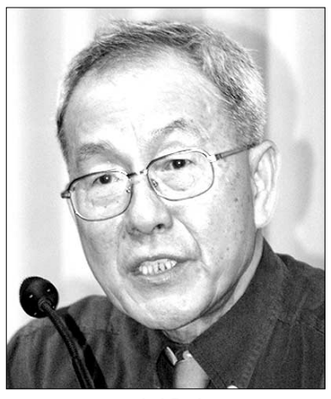
종교성 약한 불교학 '문제'

종교문화硏, '불교학 형성과 오리엔탈리즘' 주제 심포지엄

'불교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모든 불교학자가 안고 있는 고민이다. 단적인 예로 불교를 학적으로만 접근하다보면 신앙으로서의 의미가 반감되고 신앙으로서의 측면만 강조하다보면 학문적 가치는 퇴색하기 쉽다. 이같은 딜레마 속에서 오늘의 불교학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종교문화연구소(소장 박규태)는 2005년 상반기 정기 심포지엄 '불교학 형성과 오리엔탈리즘'을 6월 25일 서울 출판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논문은 이민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의 '서구 불교학의 창안과 오리엔탈리즘'과 심재관 강릉대 강사의 '한국불교학 속의 서양불교학의 위상'. 이 이사는 불교학의 종교성 회복을, 심재관씨는 불교학과 전통불교와의 상보적 조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민용씨


심재관씨

이민용씨 "불교 현장 배제 … 문헌학 중심으로 흘러"

심재관씨 "객관주의적 서구 불교학 이식, 전통 상실"

이 이사는 "불교가 동양에서 2500여 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서구가 이를 새로이 발견하고 창안한 것은 300여 년에 불과하며 그런 연구의 역사 속에서 불교학의 특성이 규정됐다"고 말하며 서구 불교학이 안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적 한계를 부각시켰다.

이 이사는 대표적인 초기 불교학 연구자로, 서구 불교학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뷰르느프(Eugene Burnouf, 1801~1851)에게서 이 같은 한계를 발견한다. 뷰르느프는 <인도불교사 입문(1844)> <법화경 역주(1852)> 등을 펴낸 인물.

뷰르느프는 '부처님의 역사적 실재성 분석' '경 · 율 · 론(經 · 律 · 論)에 따른 불전 분류' '역대 불전 주석가의 해석에 대한 관심' 등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삼으면서도, 불교 현장은 철저하게 배제했다. 후대의 서구 불교학자들은 뷰르느프의 방법론을 답습했고, 서구불교학의 경향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 같은 언어 · 문헌학 중심의 서구 불교학에서는 문화적 형태로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역동적인 종교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불교 연구가 제국주의적 필요성에 따라 이뤄졌고, 서구 종교적 배경 하에서 단지 호기심의 대상으로서 다뤄졌다는 데 있다고 이 이사는 설명했다.

이 이사는 "이처럼 서구중심적 관점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적 자세를 극복해야 한다"며 "종교성을 회복하는 것이 불교학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심재관 강릉대 강사의 서구불교학에 대한 인식도 이 이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한국불교학의 문제는 문헌학적 객관주의에 입각한 서구 불교학이 이식되면서 종교성을 상실, 불교와 불교학이 이질적인 것으로 분리됐다는 데 있다. 그 결과 "불교학은 연구영역이 축소되고, 불교는 지성적인 전통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지적이다. 전통 교육기관인 강원의 기능은 현저하게 위축되고, 아직까지 자기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심씨는 "불교학의 서양학문 종속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의 불교학이 한국의 불교현실과 유리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불교학 연구자들의 경향까지도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불교학 연구 성향을 문헌학 · 실용학 · 체계불학으로 구분했다. '문헌학'적 경향은 텍스트 내의 개념분석이나 철학사상을 불교원전비평이나 문법적 분석을 통해 탐구하는 형식을 뜻한다. 심씨는 "유럽과 일본에서 유학한 이들이 문헌학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한국의 불교현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실용학적 연구자들은 사회적 제문제에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대부분 국내에서 연구과정을 거친 이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심씨는 설명했다. 심씨는 여기에 동국대 고영섭 · 김종욱 교수, 중앙승가대 김응철, 순천대 안옥선 교수 등을 포함시켰다.

또 '체계불학'에 대해서는 "서양의 문헌학 중심의 불교연구가 가져오는 전통과의 단절, 신앙행위를 전복시키는 이론의 등장, 학문과 종교의 분리 등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아직은 연구경향으로 정립되지는 못한 하나의 대안적 불교학"으로 규정하며 김성철 동국대 교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불교연구가 사회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다보면, 연구자와 수행자, 신자들을 아우르는 통일적 이해의 구심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불교연구가 전통불교, 살아있는 불교전통과 상보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17>

윤회

1960년대에 청춘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미국의 가수 Brothers Four를 기억할 것이다. 특히 이들을 통해서 유명해진 피터 시거즈의 노래 '꽃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는 한국에서도 많이 유행한 노래다. 가사는 '꽃들을 젊은 처녀들에게로, 처녀는 사나이에게로, 사나이는 모두 전장으로, 그리고 무덤으로, 그 무덤은 다시 꽃들로'라고 적고 있다. 반전과 평화를 갈망한 노래라고 보이지만, 윤회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눈치 챌 수 있다.

윤회야 말로 불교 역사상 가장 많은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킨 개념일 것이다.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인 '무아', 즉 나라는 본질이 없다는데 도대체 윤회는 어느 것이 한단 말인가?

주체가 없는 윤회라는 개념에 대한 현대과학은 윤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성냥이 불에 타는 것은 성냥을 이루는 탄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서 에너지(열)를 내고, 탄산가스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성냥에 불을 붙여주는 행위는 이 현상이 빠르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일로 볼 수 있다.

화학에서 이러한 현상을 '촉매작용'이라고 한다. 가만히 있어도 반응은 일어나지만, 느끼지 못할 만큼 서서히 일어나므로 속히 반응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촉매의 역할이다. 생명에서는 단백질이 촉매작용을 담당한다. 생물이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배우자를 좋아하는 것,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 좋아하는 뇌의 신경학적인 작용 역시 신경 전달물질인

번뇌는 수억겁 생의 결과로 생긴 뇌의 작용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DNA 반응 달라져

밀란다왕의 집요한 질문에 대해서 나가세나 존자는 식사를 위해서 등불을 들고 집 꼭대기 방에 올라갔다가, 지붕을 태우고, 집과 마을 전체를 태운 사건을 들어 비유하고 있다. 비록 불이 식사를 위한 불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마을을 태운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불이라는 인연이 등불에서 집과 마을로 옮겨간 것과 마찬가지로 윤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다음 생으로 옮겨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가세나 존자는 "대왕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현재의 명칭과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명칭과 다르기는 하지만, 두 번째의 것은 첫 번째로부터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악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단백질이 담당하고 있다. 단백질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이 생명을 이루고 있는 핵 속에 한결같이 존재하는 DNA이고, 이 DNA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므로, 결국은 부모에게서 촉매 현상의 방법(즉, 불을 붙이는 방법)을 물려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과학은 놀랍게도 현재 나의 행동이 거꾸로 이 DNA의 발현하는 모습을 바꾸어 준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이유 없이 번뇌가 일어날 때, 수억겁의 결과로 생긴 나의 뇌에서의 촉매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자. 그리고 어떻게 업을 닦는 가에 따라서 나의 세포 모습 또한 다른 모습으로 다음 생으로 유전한다는 과학이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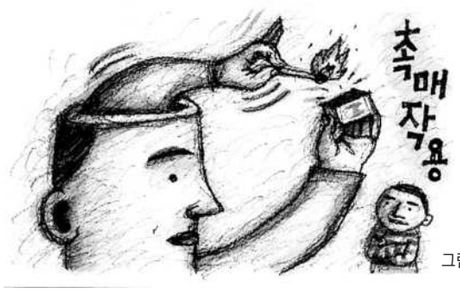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서산마애삼존불 보호각 부분철거

문화재청, 지붕만 남기기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서산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 보호각(1974년 건립 · 사진)이 지붕만 남기고 철거된다.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위원장 안휘준)는 6월 23일 위원회를 열고 불상보존 및 관람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논란 끝에 보호각의 부분철거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보호각으로 인해 통풍과 자연채광이 안 돼 곰팡이가 피는 등 불상이 훼손되며, 관람에도 크게 방해된다"고 보고 보호각의 통풍을 개선한 상태에서 변화상태를 조사해 개선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보호각 전면 철거를 염두에 뒀으나, 보호각의 지붕을 철거하면 산성비를 직접 맞게 돼 훼손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지붕은 남겨두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몇 년 동안 보호각 해체를 주장해온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서산마애삼존불의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반기며 "보호각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산마애삼존불 보호각과 함께 안건이 됐던 경주 배리삼존불보호각은 일단 존속시키되, 주변의 담장은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배리삼존불은 보호각으로 통풍이 안돼 녹조류가 피고, 송화가루가 고착되는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배병선 실장은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지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보존환경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보호각을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해 관람 여건을 최대한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보호각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가을 심포지엄을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익순 기자

괘불조사보고서 3집 발간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전국사찰소장 괘불조사보고서 제3집>을 최근 발간했다.

제3집에는 산청 율곡사, 청도 적천사, 영주 부석사 등 경상남 · 북도 11개 사찰에 소장된 11점의 괘불이 수록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괘불의 안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가 수록됐다. 안료의 성분을 파악함으로써 조선시대 불화의 보존관리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확보됐다.

괘불을 보관하는 궤(櫃)에 대한 연구결과가 수록된 점도 이번 보고서의 특징이다. 궤에 대한 연구는 처음 시도된 것으로, 궤에 적혀 있는 작자와 제작연대를 통해 한국 전통 목가구 양식의 변천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움직이는 禪의 숨결 템플스테이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골굴사 · 선무도 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 및 일반인을 위한 선무도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절제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생활이나 휴가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 지평'**이란 평가를 받은 선무도의 수련을 통해 평소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며 화랑의 호연지기를 맛봄으로써 **건강하며 활기찬 삶, 화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배워 익힐 수 있습니다. 주말과 휴가를 이용한 일반인 템플스테이는 년 중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언 제 : **하계 - 7월 ~ 8월 (2달간)** ▶ 모집 인원 : **수시모집 (1주, 2주, 한달)** ▶ 대 상 : **초등학생이상 개인 및 단체**

※ 동참금은 청소년-1일 2만, 한달 60만원, 성인-1일 3만, 1개월 65만원이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하셨더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확정이 안되오니 미리 해당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농협 721107-52-037300 (예금주 : 설기준 골굴사)

수련내용

1. 안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판소리, 활쏘기, 다도)
2. 기림사, 감은사지, 장항사지, 동해 문무대왕릉 등의 성지순례
3. 주지스님의 초발심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정화 및 한문공부
4. 매일 영어 회화를 원어민(외국인 행자님)이 지도합니다.(해외 연수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지도진 : 스님 · 사범 등 10명, 판소리강사 1명, 다도강사 2명, 영어강사 1명
※ 준비물 : 개인 세면도구 · 필기도구 · 우산 · 운동화 · 운동복 등
※ 접수 및 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홈페이지 : www.sunmudo.com

일 과 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독서와 사색
5시	좌선	14시	오후수련(학생)
6시	조깅, 등산	15시	전통문화 강습(학생)
7시	아침 공양(발우 공양)	16시	울력 (도량청소 및 정비작업)
8시30분	불교 강의	18시	저녁 공양
9시	오전 선무도 수련	19시	예불, 자율학습 및 참회록(학생)
11시	108배 참회기도, 자아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 공양	21시	점호 및 취침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선무도 대금강문 • 선무도 대학

청동 불상 제작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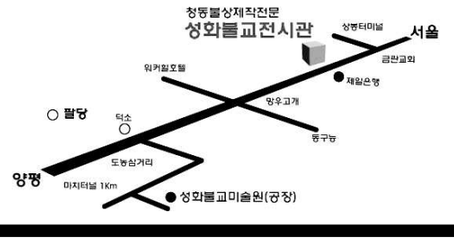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www.sh-buddha.co.kr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일주문



백담사 관내노인 초청 경로잔치

인제 백담사 회주 오현 스님은 6월 29일 지역 경로당 노인 150여 명을 만해마을로 초청해 위문공연 및 경로잔치를 열었다.



장애인 선수 초청 불교체험 행사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6월 29일 대구-북경 장애인체육교류전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와 임원 30여 명을 초청해 불교 체험행사를 열었다.



제11차 역사기행 개최

좋은벗들 이사장 법륜 스님은 8월 1~9일 고구려와 발해,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는 제11차 역사기행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를 개최한다.(02)587-8996



'내 안에서…' 출판회서 특강

공주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은 7월 5일 오후 3, 7시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내 안에서 찾는 붓다> 출판기념 특강을 한다.(02)737-7378



한파 스님 초청 개원법회

부산 성불사 주지 도원 스님은 6월 25일 김해불교사암연합회 이사장 한파 스님을 초청 법사로 이전 개원법회를 봉행했다.(051)294-1204



대불련 대경동문회 성지순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구경북동문회 임해수 회장은 6월 26일 회원들과 함께 영주 부석사, 풍기 희방사, 안동 봉정사를 순례했다.

동국대 일산병원 지도법사에 중제 스님



6월 27일 일산불교병원 초대 지도법사에 중제 스님(前 낙산노인복지요양원장 · 사진)이 임명됐다. 중제 스님은 "우선 불자들에게 불교병원을 널리 알리고, 700명이나 되는 병원 식구들의 신행관리 · 지도에 진력하는 등 지도법사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곧바로 개원에 들어간 탓에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중제 스님은 "병원이 필요로 하는 불교 자원봉사 조직을 적극 유치하고, 정기적인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중제스님은 "일산불교병원은 불자들의 염원으로 지어진 병원답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올바른 회향을 이끄는 지도법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제 스님은 91년 해인사 금강굴에서 대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 운문사 강원을 나왔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노인복지와 임종간호 분야를 공부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남의 행복 먼저 챙겨요"

英 텐진 팔모 스님 내한 도선사 등서 강연



"우리는 마음과 뜻, 말과 행동으로 삶에서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작은 것이라도 타인의 행복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매일 말과 행동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불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 초청으로 6월 28일 내한한 텐진 팔모 스님(사진)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비의 실천'을 주제로 도선사 호국참회원에서 6월 30일 강연을 했다.

영국에서 태어나 티베트에서 출가한 스님은 "삼독심이 삶의 고통을 만들어낸다. 자비는 근원적으로 남들과 함께 느끼는 것이다. 남의 슬픔 고통을 내 것인양 느끼는 것이 자비이다. 자비는 불자의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이것이 없이 나만의 삶이나 수행을 이루어 나가기가 힘들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얽매임, 나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남을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이다"라고 강연했다.

입장 바꿔 생각하기는 바로 수행의 다른 이름이라고 강조한 스님은 "평소에는 우리 자신의 의견으로 마음이 꽉 차있고, 나만의 생각 나만의 집착 나만의 정체성을 의심하는데 이런 수행의 순간에는 나를 잠깐 비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양로원 고아원에 갈 때 자비심을 내지만 자비심 자체는 그보다 훨씬 깊고 심오한 것이다. 자비는 실제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 마음속에 갈등이 존재하고 조화로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자비를 설명했다.

자비를 실천하면 지혜가 생긴다고 역설한 텐진 팔모 스님은 "자신의 내면에 생긴 문제와 불안한 마음을 볼 수 있고 동시에 그것이 내 마음 속 근본적 무지 탐심에서 생겼다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면 남의 마음 속 일 역시 알아볼 수 있다"며 "자비 지혜가 같이 가야 불법의 세계로 이끌어 줄 수 있다"고 법문했다.

텐진 팔모 스님은 봉은사 불광사 청암사 운문사 등에서 강연을 하고 7월말 출국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폐사지 중요성 일깨우는 계기되길…"

장지현 시인 '잊혀진 가람탐험' 출판기념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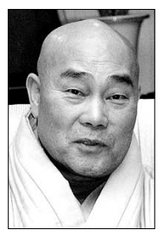


장지현 시인(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의 폐사지 답사기 <잊혀진 가람 탐험> 출판기념회가 6월 27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열렸다(사진).

출판기념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 법타 스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명진 스님,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 신계륜 국회의원, 불이회 윤용숙 명예회장을 비롯해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장 시인은 인사말에서 "폐사지에 대한 발굴과 보존은 얼마든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복원만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답사를 통해 깨닫게 됐다"고 강조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 민주평통 부의장 선임



예산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사진)이 7월 1일 출범한 제12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선임됐다.

또 길음사회복지관장 제원 스님은 복지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불국사 주지 종상,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원택, 前 법주사 주지 지명, 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자월, 천태종 총무원 부원장 춘광, 성남 정토사 주지 보광, 조계종 기획실장 법안 · 호법부장 종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초격 스님 등도 직능 상임위원으로 활동한다.

유철주 기자

"승가화합 · 재가교육 강화"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새회장 법혜 스님



"체제 정비와 기존 산하기관의 활동을 보완해 내실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6월 30일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제9대 신임회장에 취임한 법혜 스님(대구 대각사 주지 · 사진). 스님은 "연합회가 재가자 교육과 대구불교회관 건립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해 왔지만 최근 활동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사업에 전력을 쏟아 연합회가 지역 불교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뛰어난 강사를 초빙해 마하야나 불교대학(구 대구불교교육원)의 이미지도 바꿔나갈 생각"이라는 스님은 재가자 교육을 강화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스님은 또 "불교회관에 일원불을 봉안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원불은 불교회관 건립 당시부터 지역 불자들과 약속했던 일. 이와 함께 스님은 불교회관 6층에 천불전을 조성해, 이를 바탕으로 신도교육과 복지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대구 동화사와의 신뢰관계도 다져나갈 방침이다. 법혜 스님은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자주 만나 상부상조할 일을 찾겠다"며 "만나다보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혜스님은 1957년 도원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61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환경부장관에 대불련 출신 이재용씨



신임 환경부장관에 이재용 前 대구 남구청장(사진)이 임명됐다.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후 환경운동에 매진한 이 장관은 서울불교학생회에서 활동했다.

"대화로 종교간 이해 도모"

조계종 종평위 상임위원장 손안식씨



"종교인들이 함께 만나는 다양한 사업을 마련할 것입니다."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 29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손안식 상임위원장(조계종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 · 사진)은 '대화'가 종교평화의 필수 요소라며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중앙신도회가 가톨릭 평신도회와 추진하고 있는 홈스테이 같은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의 종교편향문제는 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손 위원장은 "종교편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종교평화 교육 활동을 벌이는 등 종단 내 교육홍보 사업에도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또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철주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군포교 후원금 전달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2005년 6월 28일 이사장실에서 군불교위원회 위원장 성광 스님에게 군법당 건립 및 군불교 발전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자리에서 홍승희 이사장은 "군불교 발전을 위해 진흥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후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증 서명 바자회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는 6월 26일 사회복지법인 연화원(대표 해성)과 함께 서울 광림사에서 '장기기증 서명 및 행복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광림사 청각장애인 불자회와 스님들이 참여해 골수기증 운동은 물론 바자회, 먹거리 장터, 수화공연 등을 진행, 원만 회향됐다.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 본지 논설위원

수경사에서 일어난 일

자녀출산은 하늘이 그 부모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선물한 것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천국이라면 생명 탄생에 대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느낌, 그들 스스로 그 신비한 생명탄생에 기여했다는 벅찬 감격,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사랑스럽기만한 천진무구 그 자체의 아기 얼굴 등 일 것이고, 지옥이라면 탄생 그 순간부터 온 밤, 잠을 설치며 온 신경을 열어두고 전력을 기울이며 양육의 험로를 걸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 해도 아직 대부분의 부모들은 '지옥' 같은 그 양육의 험로를 '천국'적 감격으로 덮어가며 '지옥'을 행복의 수순으로 바꾸어 간다.

이른바 모성애나 부성애와 같은 본능적 사랑이 지옥조차 천국으로 바꿀 힘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혈육이 아닌 타인이라면 어떨까?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들을 입양할 때까지 맡아 키워주는 위탁모들에게서도 우리는 모성애 비슷한 것을 발견한다. '낳은 정' 못지않은 '키운 정'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불과 몇 달을 돌보았어도 자신의 품을 떠나는 아기를 보며 위탁모들은 눈물을 쏟는다.

자비라든가 사랑 측은지심 등의 종교적 심성도 세상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 예부터 동 서양 여러 종교단체에서 고아나 노약자 사회적 약자 등을 보호하고 돌보아오지 않았던가.

한국전쟁으로 한 때 최대의 고아 발생국이 되었던 한국에서도 당시 종교단체들의 눈부신 활약을 보아 온 터다.

하지만 자비나 사랑 등 종교적 심성을 우리는 눈에 보이게 계량해 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초발심'이 한번 일었다 해서 그것에 지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현실적 어려움은 여기서 출발한다.

진실을 파헤치는 역을 맡은 서양문학은 중세 이후 서양 복지 시설과 그 운영의 참상, 그 거대한 위선을 끊임없이 고발해 왔다. 한국 현대 문학도 한국 고아원의 참상과 운영자들의 위선을 파헤치는데 그동안 게으르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시설의 올바른 경영은 문학이 아닌 행정의 몫이다.

얼마 전 한 방송사가 미인가 복지시설 수경사의 아동학대와 아동매매 등을 폭로한 프로는 자칫 선한 행위가 얼마나 쉽게 혐오할만한 위선으로 돌아 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 할 수 있다.

사찰에 첫 업둥이를 받아 들였을 때의 수경사 비구 사미니 두 스님의 초심은 자비였을 것이라 믿고 싶다. 그들을 변질시킨 것은 당국에 인가받을 수 없을 만큼 열악한 환경 등 모든 조건들과 함께 방송 신문 등의 검증 없는 선행 과장보도도 한몫 했을 것이다.

한편 수경사는 그 과장보도들 때문에 지금 더 심한 사회적 몰매를 맞고 있다.

수경사 등 복지시설뿐 아니라 어린이집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성의식에 눈뜨기 전부터 출산의 경험을 갖게 된다는 오늘의 신세대 성의식은 영 유아 유기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수경사 식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당국에서도 복지시설의 인가 기준을 높이는 등 제도적 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도나 감독, 지원을 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일이 행정당국의 안이함에 대한 일깨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산하에 복지시설을 두고 있는 여러 종교단체에서도 새로운 배려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2000년 10월에 착공하여 2002년 12월에 건물공사를 마치고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대단한 산통(産痛)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시간이다.

그에 비례하여 출산의 기쁨이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무작정 손뼉만 칠 수 없는 것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7월 19일로 예정된 한방병원의 개원, 인사문제, 차입금에 의존해야 할 1000억 원의 개원 준비금 등이 그것이다. 특히 재정 문제는 조기 흑자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동국대의 동반 부실을 불러올 수도 있다.

최대한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병원 운영만 잘 되면 모든 문제는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 인구 100만 명의 고양 · 일산권은 이미 의료 공급 포화상태다. 병원 당국에서는 "지역에 뿌리를 두면서도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병원으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동국대병원, 경영도 '매머드'로

하지만 그것은 원론적인 계획일 뿐이다. 매머드급 종합병원치고 '전국화 · 국제화'를 지향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1차적으로 지역 사회와 1000만 불자들의 기대에 최대한 부응해야 한다. 손에 잡히는 고객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잠재 수요를 자극할 수 없다. '타깃 마켓의 사이즈는 작을수록 좋다'는 마케팅의 고전적 경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은 '일산불교병원'으로 불리어 왔다. 그런데 최종 공식 명칭에서는 '불교'가 빠졌다. '불교병원'이라는 명칭이 병원경영에 부담된다는 판단에 따라 동국대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지만 아쉬움이 많다.

명칭이야 어찌됐건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은 분명 불교병원이다. 설립과정에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하기도 했다. 불사(佛事)를 표방했던 것이다. 조계종립대인 동국대가 아닌 일반 사학이었다면 발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은 불교의 가르침에 투철해야 한다. 세상의 아픔에 자비로 대응하는 부처의 화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최선의 의료 서비스요 최상의 경영이 아닐까. 불교를 내세우는 데 주저하지 말 일이다.

■ 윤제학(아동 문학가)

이렇게 들었다 부동산 정책

전륜성왕의 바른 법은 무엇인가? 법에 의지해 바른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또 올바른 법으로써 여자들을 가르치고 법답게 왕자나 대신, 관리, 백성, 수행자 등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한다. 〈중아함경〉

경제부총리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만 치솟을 뿐이고 다른 대부분 지역의 중 · 소형 아파트 가격은 안정돼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이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30여 차례나 강남 집값을 잡으려 했으나 오히려 강북이나 지방의 집값과 서민경제만 흔드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이것은 당연히 빈부 격차의 확대로 표현해야지 부동산 대책의 효과라고 우기는 자화자찬은 듣기 거북스럽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은 결코 없다"는 청와대 정책위원장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이 정부 들어 좌파정책이라는 비난까지 받은 부동산 보유세는 올해 0.15%에서 2013년 0.5%로 오르는 게 고작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자율만 0.25%씩 무려 네 차례나 인하했다. 여기에다 지난 2년간 수도권에만 대형 개발에 따른 16조원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풀렸다. 각종 설익은 개발계획의 남발로 땅값이 너무 올라 건교부가 도로공사를 위한 토지보상비만 두 배나 올려 달라고 하지 않는가. 이 정도의 저금리에 이만큼의 마구잡이 개발이라면 사상 최대의 토건형 경기 부양이라고 불러야 옳다.

문제를 풀려면 결과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우선이다. 부끄러운 결과를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되풀이되는 말장난은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부의 능력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만 깊게 할 뿐이다.

■ 노병철(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이‥'의 제작 방식 유감

6월 25일 SBS의 수경사 관련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시청했다. 아이들을 학대한 사미니는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프로는 두 가지점에서 의도적인 불교 흠집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첫째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아이를 걱정하는 사회복지과 여교수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바로 장로신학대 교수였다. 비판의 주인공인 비구니승을 취재하며 하필이면 장로신학대 교수를 인터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마치 잘못된 불교를 비판하고 야단치는 정의로운 기독교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은 나만의 것이이었을까.

둘째, 아이들을 구출(?)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데려오는데, 아이들을 안고 있는 수녀님이 아이들을 걱정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마치 지옥같은 불교단체에서 구출된 아이들을 안전한 가톨릭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느껴졌다. 불교신자의 지나친 반응이 아니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인터뷰할만한 사회복지과 교수는 신학대 외에도 많다는 점과 수경사에서 구출한 아이들을 데려간 곳은 가톨릭단체나 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신월동(붓다뉴스)

이번기회에 시설 점검을

SBS의 수경사 관련 방송이 세상에 준 충격은 자못크다. 이 참에 불교 뿐만 아니라 가톨릭 개신교등 종교 인가 · 비인가 복지시설을 다 조사해 보자. 외국에서 한국을 조롱하는 루머가 있다. 한국 최고의 걸작 수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정품 어린아이'라는. 부유국이 되었는데도 연간 수천 명씩 해외 입양이라는 말로 공개 수출하는 것이 아닌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참회하는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으로 해결해야할 급선무일 것이다.

그것만 알고 싶나(붓다뉴스)

거듭 느끼는 군포교의 중요성

우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장병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한다.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발방지와 아울러 금번 사고로 드러난 군내(軍內)의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사람의 분노와 원망이 얼마나 큰 화가 될 수 있는가를 이번 사고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실 현재 신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나 성향에 비해 전반적인 군의 분위기는 그에 발맞추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임과 인터넷 등 자유로운 온라인에 길들어 있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상명하복과 절대복종이 강조되는 군사문화는 마냥 어렵게만 느껴질 것이다.

군법사들이 비주얼 세대인 신세대장병들을 위해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거나 어렵게만 느껴지는 불교교리를 만화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각 군법당별로 온라인커뮤니티를 만드는 등 그들에게 맞는 신세대포교방법을 찾아내느라 고심하는 것도 일반적인 일이 됐다.

군법당에서도 이러한 신세대 장병들을 위해 다양한 인성검사나 상담활동 등을 통해 그들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좌절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려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건만 이번 일을 통해 더 많은 정진과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케 한다.

응병여약(應病與藥)이라. 어진의사가 환자의 병에 따라 약을 가려 쓰듯, 때와 상황에 맞추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받아들여지는 모습도 달라져야 한다.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들 가슴속에 살아 숨쉴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과연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고민하게 한다.

전방부대 군법사(국방부 방침에 따라 필자의 구체적인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현대' 만평 심 민 섭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업그레이드 된 '부다피아'서 불교공부를!

buddhapia.com



편리한 기능과 풍부한 콘텐츠가 보강된 새로운 부다피아의 메인 화면.

"북한대장경·6천여 논문·불교용어사전 바로바로 찾아 쓰세요"

불교계 정보화를 선도해온 '현대불교 미디어센터(HBMC)'는 2005년 7월7일부터 국내 최대의 불교 포털 부다피아(www.buddhapia.com)를 전면 개편, 새 얼굴로 선보인다. 인터넷 현대불교신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온라인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www.yosiamun.com)과 함께 통합회원제를 운영해 온 부다피아는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과 깊이있는 정보를 갖추고 불교정보의 총본산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방침이다.

새로워진 부다피아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도 깊이있는 정보검색 시스템을 갖췄다. 색인을 매긴 10년치 현대불교 기사를 비롯한 각종 텍스트, 동영상, 오디오, 사진, PDF파일 등 방대한 DB를 기반으로 독자가 원하는 정보를 족집게처럼 찾아준다.

특히 키워드에 부합되는 7만여 장의 사찰, 문화재, 그림, 인물 사진과 선지식들의 동영상 파일을 클릭 한번으로 동시에 제공한다. 1만9천 여개의 불교용어사전과 2만6천여개의 기관/단체 검색, 북한 한글대장경 검색 기능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부다피아는 불교계의 대표 월간지였던 <대중불교>와 <불일회보>를 비롯 1953년 이전 절판된 불교잡지 등 총 21종 1만 1221개 기사의 잡지 기사를 PDF파일로 안방에서 열람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했다. 또한 70여 종, 111권의 희귀 불교고서를 정밀 스캔해 PDF파일로 제공한다.

부다피아는 수행과 봉사, 불교문화 등을 공유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각 분야 전문가 및 아마추어, 사찰 및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웹페이지 빌더(사찰 및 단체 홈페이지)를 무료로 오픈한다. 유명 예술가와 동호인들의 사진, 그림, 조각, 공예 등의 작품을 감상하고 필요시 소장까지 할 수 있는 '사이버 갤러리'도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국내 최대의 불교DB를 바탕으로 부다피아는 불교정보를 단계적으로 추가해 본격적인 인터넷 해외포교에도 심혈을 쏟고 있다. 지난 2002년 3월 영문 부다피아(http://bud.buddhapia.com/eng/)를 오픈, 해외포교에 나선 부다피아는 5월 23일 국내 처음으로 러시아어 불교사이트인 '러시아판 부다피아(russia.buddhapia.com)'의 문을 열었다.

또한 7월 14일 '중문 부다피아' 오픈에 이어 8월 말경 영문 부다피아를 전면 개편, 영문판에서도 불교포털로서의 위용을 드러낼 계획이다.

부다피아는 앞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불교자료의 축적, 자료 공유 및 전달을 위한 매체기술 확보와 활용, 불자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포털로서의 편이성을 갖춘 다양한 기능들, 멀티미디어 DB를 갖춘 방대한 정보, 불교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한다.

편리함에 놀라고 실속에 감동하는 새 기능들

■무료 홈페이지 웹페이지 빌더



부다피아는 사찰이나 단체들이 무료로 웹페이지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서버 사용료나 관리비 등 홈페이지 운영비가 전혀 들지 않으며 관리가 쉬운데다 신도 및 회원관리에 편이성을 갖춰 불교 신행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부다피아 홈페이지의 가장 큰 장점은 홈페이지 내부의 글과 정보를 올리면 부다피아 내 검색뿐만 아니라 구글 같은 검색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별 단체들이 올린 행사안내나 기타 모집 등 공지사항이 부다피아 통합게시판에서 공지되는 기능도 갖췄다.

특히 배너 관리, 설문조사, 클릭통계, 디자인변경, 인물/단체/행사 등의 콘텐츠의 경우 부다피아 DB와 연동되어 따로 자료를 입력하지 않아도 최신 데이터가 유지되어 부다피아 인물/단체/행사 페이지와 검색 페이지에서 제공된다.

■참여 마당(유저 콘텐츠 입력 기능)

부다피아 웹페이지 상의 콘텐츠를 보다가 유저가 그 메뉴에 해당하는 글을 직접 입력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삽입했다. 이는 웹페이지 빌더의 첫 단계를 응용한 기능이다.

■기관/단체 주소록 검색 기능

2만6천여 불교 기관 및 단체의 주소록 및 연락처 검색이 가능하다. 종단, 사찰, 복지단체, 불교단체, 교육단체, 시민단체 등에 대한 정보를 갖추었다.

■관련 정보 섹션 강화

주요 색인 및 검색어를 통해 나타나는 기본 정보 이외에 다양한 보충정보가 하부 섹션에 추가된다. 보충정보는 관련 뉴스 및 카테고리, 논문(4천254권)/고서/잡지, 이미지, 불교용어사전(1만9천 단어), 멀티미디어, 지식검색(추후 오픈), 경전/법문, URL 링크 등이 첨부된다.

■'역사 속의 오늘' 표시

매일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불교사 연표, 한국사 연표, 세계사 연표를 날마다 보여준다.

■무료 스크린 세이버

컴퓨터 모니터상에 불교관련 사진과 그림, 법문을 담은 스크린세이버를 설치해 날마다 부처님 오신 참뜻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부처님오신날 테마별 봉축행사, 부처님 생애(팔상성도), 경전 및 스님별 법어 등 모두 37종의 스크린세이버를 무료로 다운받아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다.

■새로운 콘텐츠 소개 창

부다피아 메인화면에 실시간으로 추가 입력된 콘텐츠에 대한 소개 글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도록 해, 유저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국·내외 불교 사이트 정보 제공

부다피아에서는 주요 불교 사이트(외국 포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 사이트는 하루에 한번씩 사이트를 점검, 사이트가 다운되어 있는지를 표시해 유저의 편리성을 더했다.

■사이트 링크(URL 소개) 강화

최신, 추천, 인기 사이트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관련 사이트 링크를 강화했다. 예를 들면 불교경전 인기사이트, 법문 인기사이트, 수행법 인기사이트 등 실용적인 분류기준을 마련했다.

미술관·상담소 바로 간다

■사이버 갤러리 대폭 확대



유명 예술가와 전문가들의 사진, 그림, 조각, 공예 등의 작품을 인터넷을 통해 감상하고 필요시 소장까지 할 수 있는 인터넷 전시관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의 '안양암에 담긴 중생의 염원과 꿈' △허허당 스님의 선화 △원성 스님의 '동승전' △김규현 작가의 '신 왕오천축국전' △문범강 작가의 '현대미술'을 비롯 △안장헌 사진가의 '불상사진전' △청우 윤상민 서예가의 '서예전' △라규채 사진가의 '사진으로 본 남도들꽃' △고미술전문 갤러리 '예술과 세상'의 '파불(破佛)전' △김윤오 단청장의 '단청전' △사찰문화연구원의 '전통사찰 사진전' △송광사의 '옛 사진 전' △지수 스님의 '종이공예전' △현대불교 고영배 사진기자의 '경주 남산전' 등 총 14개의 갤러리가 꾸며진다.

■신행·수행·복지 상담

상담코너는 전문가를 초빙해 불자들의 고민이나 궁금증을 해소하는 카운슬러 역할을 한다.

선(禪)수행 분야는 △현웅 스님(서울 육조사 선원장)과 △운거 스님(지리산 선림원 원장)이 직접 불자들이 수행과정에서 겪은 장애와 의문점을 풀어준다.

△복지정보 상담은 '나눔마을' 박왕호 이사가, △불교복지 및 노인문제 상담은 강지현 박사(부다피아 사회복지부 팀장)가, △불교신행 및 자원봉사 상담은 이남숙 조계종 포교사가 각각 맡아 노하우를 일러준다.

동영상 법문·다큐, 잡지·고서 총망라

■동영상 법문·강의 자료 확대



현대 고승들의 법문과 출·재가 선지식들의 법문 및 강의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대폭 확대했다. 조계사 선원장 대법회, 범어사 설선대법회, 불광사 수행법대강좌 등에서 활영한 동영상 법문을 비롯해 부다피아 영상팀에서 기획한 '사이버 백고좌'에 모신 고승들의 법문을 무료로 제공한다.

■동영상 다큐·불교뉴스 자료 강화

범어사, 은해사, 폐사지 등 사찰관련 다큐멘터리와 지율스님 관련 환경다큐, 세계여성불자대회 현장다큐, 바위 속의 부처 등 문화재 다큐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최신 불교뉴스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HBMC영상 섹션을 대폭 늘렸다.

■선역(鮮譯) 한글대장경 검색서비스

북한에서 번역한 한글대장경을 제목별, 경전별로 해제와 내용을 검색해 열람할 수 있다. 총 17권 8천767 쪽의 텍스트 문서를 무료 제공한다.

■불교 용어사전

1만 9천여개의 불교용어를 한글 및 영어본으로 검색할 수 있어 인터넷 불교사전 기능을 갖추었다. 중문 부다피아가 오픈되면 중국어본도 추가된다.

■논문 검색

6천여 논문의 제목과 내용, 초록 등 주요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영어논문의 경우 영문 초록(abstract)까지도 제공한다.

■만화로 보는 불교

청소년 포교를 위해 만화를 대폭 추가했다. 만화로 읽는 경전(아함경, 법구경, 백유경 등)이야기, 만화로 보는 스님이야기, 만화로 이해하는 불교용어, 영어로 된 불교만화, 현대불교 연재만화 등 제공.

■'대중불교' 등 불교잡지 보기

<대중불교>와 <불일회보>의 모든 기사를 PDF파일로 볼 수 있다. 1953년 이전 절판된 17개 불교잡지를 비롯해 21종 1만여 기사를 안방에서 볼 수 있다.

■방대한 사진자료 제공

7만여 장의 사찰, 문화재, 그림, 인물사진 등을 즉시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고해상도의 사찰, 인물사진을 사용하려면 온라인 상에서 주문하면 된다.

■고서 무료 열람

70여 종 111권의 희귀 불교고서를 PDF파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각 권당 10페이지 씩 볼 수 있으며 추후 회원제로 무료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 정보 제공

총 418개 불교관련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역별, 분야별, 서비스대상별로 제공한다.

"드디어 우리단체 홈피가 생겼어요"

복지시설 무료 홈페이지 제작 지원

본사 부다피아에서는 6월 25일 사회복지단체를 위한 무료 홈페이지 제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금까지 홈페이지 운영에 뜻을 두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홈페이지 제작에 드는 비용 때문에 망설였던 복지시설 및 단체 10여 곳의 참여로 이뤄졌다.

이날 교육에 동참한 '네팔 불자의 집(대표 나렌드라 구름)' 총무 프루나 씨는 "좋은 기회로 우리 단체의 홈페이지를 만들게 돼 기쁘다"며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한국에 있는 네팔인들이 고국의 소식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꾸려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무료 홈페이지 제작을 원하는 단체들은 전화로 신청한 후, △단체의 약도(사진, 그림 자료) △단체 소개글 △사진(단체장과 단체 활동 사진, 단체 로고 혹은 상징 사진) 등을 준비하면 된다. (02)2004-2285

김강진 기자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달마 관음 지장

뒷면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연꽃 처걸이
※ 50개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06-5587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쓸고 닦고 '희망 지켜요'

'안동문화지킴이' 총무
김호태
향기 도반의


청백리 김계행 공(公)의 청렴함이 배어있는 만휴정을 내집처럼 쓸고 닦는 안동문화지킴이 회원들. 문화재 청소는 안동문화지킴이의 주요활동 가운데 하나다. 맨 왼쪽이 김호태씨.

여느 해보다도 빨리 찾아온 무더위로 지쳐버린 토요일 오후. 한 손에는 떡 상자를, 다른 한 손에는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든 안동문화지킴이(대표 임재해) 총무 김호태씨가 퇴약볕 아래 걸음을 재촉한다. 넷째 주 토요일인 6월 25일 오늘은 안동문화지킴이 정기모임이 열리는 날. 이런 날은 늘 이렇게 바쁘다.

40여명의 회원이 만휴정(경북유형문화재 제173호, 1500년 건립)에 모였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따라나선 꼬마아이부터 향토사전문가까지 다양하다.

정기모임은 청소로 시작됐다. 뜰의 잡초를 뽑고, 만휴정을 쓸고 닦으며 참가자들은 정자를 세운 청백리 김계행 공(公)의 기품도 느껴본다.

안동문화지킴이는 안동문화와 문화재를 지키자는 취지로 1997년 출범한 안동의 시민단체다. 지난 8년간 안동 지역 내 꾸준하고 왕성하게 문화재보호 활동을 벌여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특히 안동문화지킴이의 '한 가족 한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문화재청이 올해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1문화재1지킴이' 운동의 모델이 됐다.

안동 경일고등학교 국어교사인 김호태씨는 안동문화지킴이 발족의 주역으로, 지난 8년간 실무지킴이 · 총무지킴이 등을 역임하며 살림을 도맡아왔다.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바쁜 와중에도 안동문화지킴이 정기모임, 문화유산해설사 교육프로그램 강의, 월간 <사람과 문화> 편집 등 안동문화를 지키는 일이라면 팔을 걷어붙였다. 이를테면 오늘의 안동문화지킴이를 일군 숨은 공신인 셈이다.

김씨의 안동문화사랑의 이력은 1993년부터 시작된다. 김씨는 안동문화연구회를 만들어 향토사학자들과 함께 안동문화를 공부하는 한편, 1995년부터 그가 재직하던 경일고 학생들과 안동문화사랑반을 꾸렸다. 줄을 꼬아 줄다리기를 해보고 차전놀이도 해보는 등 학생들의 직접적인 문화체험을 도왔다.

그런 작은 활동 가운데 김씨는 문화재 시민운동이 절실함을 깨닫게 됐다. 학창시절을 마치고 타지로 떠나고 나면 안동문화를 접할 기회를 잃고 마는 청년들, 안동에 살면서 정작 지역 문화재의 가치에 무지한 채 그냥 지나쳐버리는 무심한 주민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안동문화는 머잖아 사라지고 말 것 같은 위기감마저 들었다.

"안동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지 개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었지요.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안동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이 선행돼야 함을 알았습니다. 안동문화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개발만 하다보면 정작 안동의 멋은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김씨는 뜻을 같이 하는 5~6명과 함께 안동문화지킴이를 1997년 발족했다. 민속학자인 임재해 안동대 교수를 대표로 위촉했다. 회원들은 안동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문화재를 찾아가 직접 쓸고 닦으면서 몸으로 안동문화를 배웠고, 문화재와의 거리를 좁혀갔다. 그들의 열정적인 활동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덕분에 출범당시 50여명에 불과했던 회원수가 지금은 600여명(회비납부자기준)을 헤아릴 정도로 성장했다.

회비 만으로 시민단체 살림을 꾸려가기가 쉽지는 않다. 아직도 변변한 사무실 한 칸 없이, 지인의 도움으로 건물 복도 공간을 빌려 쓰는 형편이다. 하지만 김씨는 큰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시민운동 하는 이들이 '돈이 없어 어렵다'고 말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돈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 이유는 간단하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림을 줄여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큰 욕심 내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안동문화지킴이를 운영하다보니, 단체의 자산은 불어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재산인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안동문화지킴이는 안동시민 사이에서 '자발적이고 깨끗한 시민단체'로 통한다.

"뜻이 바르고 하는 일이 옳다면 억지로 서두르지 않더라도 사람이 모이고 돈도 모이는 법"이라고 믿는 그에게 모든 것은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그는 이 같은 지혜를 불교에서 배웠다고 말한다.

"고등학교시절 불교학생회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안동 대원사에서 1080배 정진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났죠. 하지만 죽비 소리에 맞춰 천천히 1배 1배 올리다보니 결국 1080배를 해낸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안동문화지킴이를 시작할 때도 '그게 과연 잘 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래도 김씨는 확신을 갖고 한 걸음씩 걸어왔고, 여기까지 왔다.

불교 얘기가 나오자 봉정사 신도답게 봉정사 자랑을 이어간다.

"봉정사 만세루는 사방이 탁 트여있어 그 곳에서 내려다보면 천등산 자락이 봉정사 정원인 양 펼쳐집니다. 700여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의 흔적이 아로새겨진 극락전 대웅전 등과 자연이 어우러진 장관을 보면 숨이 턱 막히고 맙니다. 순간 '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지요."

8년간 안동 문화재 찾아 다니며 보호활동
'한 가족 한 문화재 지킴이 운동' 전개도
옳다면 서두르지않는 지혜 불교에서 배워

김씨는 봉정사의 또 다른 매력으로 구석구석 남아있는 민가의 양식을 꼽는다. 지금은 대웅전에만 남아있는 툇마루와 난간이 본래 극락전에도 있었다는 것. 양반집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안동지역만의 특색이며, 그래서 더 정겹단다.

하지만 봉정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봉정사는 극락전 등 국보와 보물이 즐비한 사찰로 유명하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까닭은 이곳이 수백 년 동안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찾아와 기도하던 곳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지극정성으로 기도드려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이 자라나면 다시 이 절을 찾아와 기도를 하고…. 그렇게 대대로 이어온 조상들의 정성이 이곳 봉정사에 어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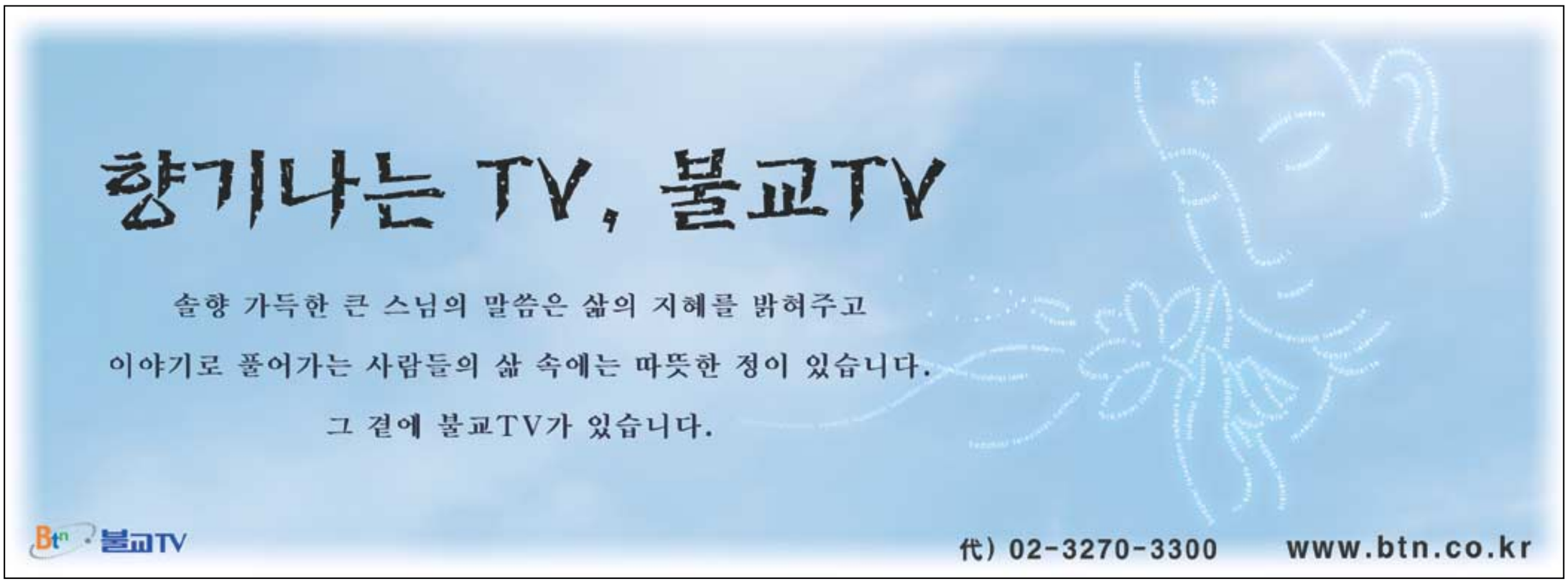
최근 몇 년 새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무척 높아졌다. 지킴이 활동에 아이들 손잡고 나타나는 부모들이 점점 늘고 있고, 올해 시작한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에 참가하는 이들의 열기가 뜨겁다.

김씨는 거기서 희망을 발견한다. 문화재는 결국 사람이 가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킴이 활동은 결국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는 김호태씨. 문화재를 지키고 가꾸려는 그의 원력이 안동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글=박익순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안동 봉정사 영산암에서의 김호태씨.



나의 수행법

이미화 (中)



사경 수행을 계속하다 보니 집안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아이들도 모두 잘 자라주었다. 3형제 모두 지금, 마음씨 고운 색시를 맞이하였다. 모두 부처님을 믿는 아름다운 인연들이다. 아마도 '저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도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하도록 해 주소서!' 하는 발원을 생활화한 덕분인 것 같다. 이후 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을 들려주며 부처님 말씀을 정성으로 사경하고 전법 할 것을 권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게 사경수행에 대한 자만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조금 사경수행을 안다는 마음에 어깨가 우쭐했을까?

다시 수행자의 자세를 돼새겼다. '초발심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하며 스스로 채찍질을 했다.

자만심으로 혼란 겪을 무렵 만난 김경호 선생이 수행 방향 잡아줘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대구불교대학에 입학을 했다. 2년간의 교리공부는 내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귀한 인연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삶의 최고의 인연인 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장 만난 것이다. 그간 부처님 말씀이 좋아 무조건 사경하고 외우고 전법을 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였는데 이제야 바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사경의 첫 수업, 김경호 선생님의 앉은 모습에서 나는 빛이 남을 느꼈다. 사경실이 맑은 향기로 그득했다. "사경은 육근을 모두 이용하는 수행법입니다. 눈으로는 보고 코로는 호흡을 가다듬고 입으로는 읽고 귀로 들으며 손으로 쓰면서, 마음에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기는 수행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경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행자가 스스로의 마음자리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 나갈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탐진치를 부처님의 법으로 말끔히 걷어내는 수행법이 사경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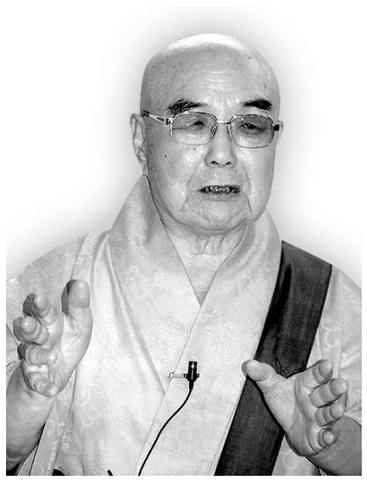
모든 사경수행자들이 선생님의 말씀에 도취되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또 관세음보살 42수진언으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말 좋았다. 내가 처음 절에 갔을 때, 스님께서 주신 책이 〈관세음보살 42수진언〉이었는데, 진언들 속에 관세음보살님의 무한 자비가 배어 있어서 내가 힘들 때마다 외운 이 진언은 사경의 재미를 무한대로 이끌었다. 한문과 한글, 그림, 선 등 모든 배워야 할 내용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서 초학자가 배움에 적합한 것 같았다. 하지만 "법신사리를 조성하는 수행법인 만큼 굳센 신심을 지니고 바른 자세로 꼿꼿이 세워진 붓끝에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사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김 선생님의 말은 내 마음같이 쉽게 되질 않았다.

난 부처님께 발원을 했다. '부처님, 열심히 사경을 하고자 하오니 붓 끝에 마음이 오롯이 모이도록 도와주소서!' 그러니 사경 하기에 앞서 관세음보살님을 관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모아 사경을 하다 보니 관세음보살님과 대화를 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기를 2개월, 사경반 회장을 선출한다고 했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에 계시는 보살님이 나를 추천했다. 처음에는 못 들은 척 했는데 또 다른 보살님이 추천을 했다. 난 '부처님 제가 맡아야 합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 순간 '네가 맡아라. 맡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란 부처님의 음성이 들렸다.(계속)

■ 사경연구회 경북지회장

부처님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았네



효란 스님이 말하는 '무량수경'의 핵심

'〈무량수경〉의 핵심은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어미의 젖을 문 아기가 그것이 독인지 약인지 따지지 않고 어미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어미가 아기에게 젖을 주는 행위는 부처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본원(本願)의 구현이다. 바로 여기서 염불수행이 시작된다.'

정토신앙의 소의경전 〈무량수경(無量壽經)〉. 연천 오봉사 효란 스님(사진)은 이 경전으로 염불수행 하는 까닭을 이렇게 설명했다. 아미타불의 근본서원을 믿고, 모든 것을 내맡겨야 비로소 염불수행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럼, 효란 스님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6월 23일, 서울 내자동 삼보제자경전강좌 강의실에서 〈무량수경〉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효란 스님에게 이 경전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지 다른 수행법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물었다. (011)9868-2484

▲〈무량수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량수경〉은 〈관무량수경〉 〈아미타경〉과 함께 정토삼부경으로 불리는 경전입니다. 〈관무량수경〉은 범부중생의 근기를 설한 경전이고, 〈아미타경〉은 부처님과 중생이 화합해 부처님이 중생을 정토로 인도, 성불시키고자한 그 뜻을 성취했음을 담은 경전이지요.

그럼 〈무량수경〉은 어떤 경전일까요? 법신불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근본서원을 세우고, 직접 오겁(五劫)이란 긴 세월 동안 중생을 대신해 수행하고 쌓은 공덕을 중생들에게 회향하겠다는 것이 〈무량수경〉의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온 목적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무량수경〉의 핵심이지요. 때문에 〈무량수경〉은 이미 중생들이 구제돼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경전은 '여시아문(如是我聞)'으로 시작합니다. 즉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들었다'는 의미죠. 반면 〈무량수경〉은 '아시여문(我是如聞)'으로 출발합니다. '듣고 보니 부처님 말씀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을 말한 것이지요. 부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부처와 중생의 관계를 설명한 경전이 〈무량수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법신불이 중생구제의 원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 모든 중생구제의 준비를 완료했다는 내용을 〈무량수경〉은 담고 있어요.

"이미 중생은 구제돼 있어"

▲사실 염불만 하면 됐지, 소의경전은 볼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 염불하면서 정토사상의 소의경전인 〈무량수경〉을 공부해야 하나요?

-원래 팔만사천 경전 모두는 서로 통하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승경전인 〈금강경〉 〈화엄경〉 등의 마지막 부분은 늘 '나무아미타불'로 회향하게 돼 있지요. 달리 말하면, 〈무량수경〉을 이해하면 〈금강경〉 〈법화경〉 등의 뜻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기본원리는 하심(下心)에 있습니다. 어느 경전을 읽든 행보다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해요. 모든 불교사상은 결국 아미타로 회향시키려고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요. 이 때문에 정토사상의 소의경전인 〈무량수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듣고보니 부처님 말씀을 알았다"

▲염불과 다른 수행법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또 스님이 강조하는 '믿음'은 수행법간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믿음'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근본서원인 본원을 믿는 것이지요. 이것을 신근(信根), 즉 '믿음의 뿌리'라고 해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부처님의 서원이 굳건하기에 여기서 확고한 믿음이 생겨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염불이든 참선이든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죠. 종교는 믿음을 생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으로부터 행이 나옵니다. 불교에서 믿음은 하나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염불이든 선이든 그 행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염불은 타력수행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청화 스님 같은 분은 '염불선(念佛禪)'을 주창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화두 삼아 '염불하는 이 놈이 무엇인가'를 참구하라고 했습니다. 자력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인데요. 그럼 염불수행의 원리와 성격은 무엇입니까?

-염불수행에 자력과 타력 중 어느 것이 있느냐고 내게 물으면, 난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대신 염불수행을 하는데, '불력(佛力)'이 있는지 없는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염불은 중생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중생을 생각해 구제하고자 마음입니다. 염불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처님이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수행이기 때문이죠. 중국불교에서는 이를 '선정쌍수(禪淨雙修)'라 했고, 한국불교에서는 '선정일치(禪淨一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불교는 선과 염불을 두 가지로 나눠 수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불교는 아예 염불과 선이 같다고 했지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믿어야 해요. 아기가 조건없이 어미의 젖을 무는 것처럼 아미타불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열면 그 부처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부처님 품안에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모든 존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참선이든 염불이든 믿으면 하나

▲수행의 목적은 성불이라고 합니다. 모든 수행법들이 성불 하기 위한 방편이 됩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길만 다를 뿐인데요, 염불은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어떤 길을 가는가요?

-믿음에 따라 달라요. 믿고 행하는 것과 믿지 않고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의미죠. 육조 혜능 선사의 제자들이 염불수행을 하던 선도라는 대사를 보고, 육조 선사에게 "스님, 우리들은 죽도록 참선만 하는데, 저들은 염불만 하니 무슨 이익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육조 혜능 선사는 "일구미타무변염(一句彌陀無變念 : 일념으로 믿고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 염불하면) 불로탄지도서방(不勞彈指到西方: 손가락 튕기는 힘도 들일 것 없이 서방정토에 태어난다)"라 말했지요.

육조 혜능 선사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수행자의 인연에 따라 수행법이 다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불에 이르는 방편이 다를 뿐이고, 행법의 우위는 없다는 말이지요.

글 · 사진=김철우 기자

"강의하다 죽고 싶다" 30여년 정토신앙 법문

효란 스님은 '믿음이 확고해야 수행도 확고해진다'는 확신으로, 정토신앙 관련 법문을 30년 넘게 해왔다. 스님은 올해 87세의 고령에도 일반인들에게 〈무량수경〉을 강의하고 있다. 이번에 하늘북출판사가 6월 2일부터 6개월간의 일정으로 마련한 〈무량수경〉 강좌에서도 스님은 식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KBS 사장을 역임한 태고종 지연 스님, 서울대 교수들을 비롯해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강의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직은 강의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참석자는 많지 않지만, 스님은 마지막 강의라는 생각으로 열강을 해 수강생들이 감동을 받고 있다. 〈정토경〉에 대한 관심은 둘째치더라도, "강의하다 죽고 싶다"는 노스님의 원력이 대단할 뿐이다.

1919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스님은 31년 수덕사에서 만공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후 조선독립운동을 이유로 일본에서 3년3개월 옥고를 치르고, 43년 일본 와세다대학 문학부를 졸업했다. 46~65년 경성제대 법문학부 및 보성전문학교 등에서 문화사를 강의했으며, 68년 동헌 스님을 은사로 건당을 했다. 78~83년 조계종 반야회 회장, 83~84년 군법사단 후원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고대 한일불교문화교류협 창립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관무량수경 의역과 해설〉〈불교의 전통신앙〉 등이 있다.

☑ '무량수경'은 어떤 경전?

〈무량수경(無量壽經)〉은 중생들을 대신해 수행, 아미타부처님이 된 법장보살이 모든 중생의 구제가 보장됐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 즉 부처님의 능력인 불법력(佛法力)을 설한 것이 〈무량수경〉이다. 이외 정토사상 경전으로는 범부중생의 근기를 설한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부처님과 중생이 화합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성취됨을 설한 〈아미타경(阿彌陀經)〉이 있다. 흔히들 이 세 경전을 일러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이라 한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남 합천군 가야산 홍류동 계곡
전화번호 : (055)934-1282 자수 대진 합장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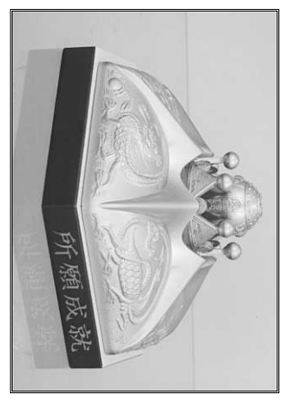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재로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재로운 좋은 앞길이 열리며
재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재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긍정·공경·찬탄·회향의 밝은 수행

'하고 싶은 수행' 전문가에게 묻다 ④ - 보현행원(普賢行願)

'출생으로서 천인 또는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의해 천인도 바라문도 된다' 〈경집〉. 행위가 일체를 결정한다는 부처님의 말이다. 출생신분과 관계없이 '오늘의 행동'이 핵심을 이룬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설한 10가지 보현행원은 단연 '원왕(願王)'이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는 결정적인 행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 보현행원의 원리는 무엇일까. 또 어떻게 수행하는 것일까? '행동 하나하나에 원을 세운다'는 보현행원(普賢行願). 곽주현(42·경기도 남양주시), 박현수(41·경기도 일산) 씨가 6월 28일 10년 넘게 보현행원 수행법을 보급하고 있는 이종린(서울 홍익소아과) 원장을 찾아 '보현행원수행의 ㄱㄴㄷ'을 물었다.

#행동 하나하나에 원을 세우고

평소 〈천수경〉 기도를 해오다 최근 보현행원을 시작한 박현수씨. 첫 질문부터 직접적이다.

"보현행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수행이에요.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보현행원의 요체죠. 그럼 생명은 어디서 자랄까요? 밝은 곳에서 자라요. 밝은 곳은 어딜까요? 긍정, 찬탄, 공경, 회향이 있는 데가 밝은 곳이에요. 보현행원은 이처럼 밝은 수행이에요."

박 씨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왜 보현행원을 합니까?"

"부처님행을 실천하기 위해서죠. 부처님은 중생을 깨닫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일체 중생이 이미 깨달아 있음을 알리려 오셨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에 원을 세워야 하겠죠? 그래서 보현행원을 해야 해요."



이종린 원장(사진 왼쪽)이 박현수(가운데), 곽주현씨에게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설명해주고 있다. 사진=김철우 기자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 말하세요

이번에는 곽주현씨가 말문을 열었다.

"보현행원 수행법의 특징은 무언가요?"

"온갖 장애가 극복되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돼요. 행원은 하는 것만큼 즉각적으로 공덕이 와요. 우선 부정적이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며, 자신이 기쁨과 환희 속에 잠기게 되죠. 또한 내 주위의 분들이 나로 인해 기쁨을 얻고 부처님 품에 들게 돼, 내가 바뀌고 다른 이도 바뀌며 더불어 이 사회가 바뀌게 돼요."

'공경하면 자연히 하심이 된다'는 말에서 보현행원의 매력을 느꼈다는 곽씨. 질문은 보현행원 수행의 장점으로 이어졌다.

"보현행원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삶 자체를 수행으로 만들죠. 그 자리에서 바로 저절로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요. 특히 보현행원은 배워서 하는 수행법이 아니에요. 중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요. 칭찬과 공경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어 박씨가 구체적인 행법에 대해 묻자 이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우선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보현행원을 하려면, 소원을 세워야 해요. 소원은 누구나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갖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조건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세요. 보현행원을 몰라도 그대로 부처님 공덕의 바다에 들어가게 되죠. 불자들은 나를 기쁘게 하려는 욕심을 내지 말고, 부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원을 가지면 돼요. 대상을 '나'에서 '부처님'으로, '욕심'을 '원'으로 바꾸면 되죠.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보현행원 수행의 핵심이에요.

#준비가 필요 없다, 믿으면 된다.

잠시 후, 박씨가 보현행원 수행을 하기 위한 마음자세에 대해 물었다.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어요. 보현행원이 수행임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자기 형편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 생명으로, 살아가면 돼요. 사실 준비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황당해 하지요. 보현행원은 모든 것이 중생을 위한 삶으로 회향되고, 본래 불성이 이미 다 갖춰져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삶 자체가, 이 자리가 부처님의 참생명과 같음을 알면 그대로 수행인 거죠."

곽씨가 어렵게 한 마디를 던졌다. "보현행원을 하다보면, 남들에게 뒤쳐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강경〉 독경하는 사람들은 '한 호흡지간에 일독이 끝난다'며 자신의 수행력을 확인하는데, 저는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보현행원만 한다'고 생각하니, 늘 제자리에 맴도는 느낌을 받아요."

"보현행원은 상호배타적일 수 있는 모든 수행법을 하나로 통합시켜요. 바로 법공양의 의미를 지닌 '여설수행공양(如說修行供養)'이 그것이죠. 여설수행공양은 참선, 염불, 관법 등 다양한 수행법들을 하나로 묶어 오로지 부처님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수행법은 우선 본인의 발전에는 기여하지만 타인에게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하지만 행원은 그 하나하나가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행원을 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같은 수행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죠."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늘 부처님을 기쁘게

▌보현행원 수행 포인트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임을 아는 것이 보현행원 수행의 핵심이다. 가령 화두를 들어도, 깨달아 부처 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기쁘게 하고 내 깨달음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들면 화두 드는 것이 그대로 보현행원이다.

이런 보현행원 수행은 입정→삼귀의→〈반야심경〉 〈천수경〉 독송→총원(總願)→〈금강경〉 〈보현행원품〉 독송→별원(別願)→회향 발원 순으로 대략 1시간 정도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총원은 공부의 기본방향을 정한 후, 극진한 공경과 공양의 마음을 독경으로 닦아 나가기 위한 것이며, 〈금강경〉 〈보현행원품〉의 합송은 총원을 굳건히 해주기 위해서다.

'널리 바치고 섬겨라' 감동과 충격



▌이종린 원장은 이종린 서울 강서구 홍익소아과원장(51·사진)은 1994년 불혹의 나이에 '널리 바치고 섬겨라'는 '광수공양(廣修供養)'이란 〈보현행원품〉의 언구에 이르러 엄청난 감동과 충격을 받고, 보현행원 수행을 시작했다. 불문에 처음 발을 내딛은 것은 지난 1974년 서울대 의과대 재학 시절로, 이후 이 원장은 운허 탄허 청화 혜암 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을 친견, 구도의 길을 걸었다. 이 원장은 〈실천 보현행원〉 등의 저서를 펴내며 보현행원 수행법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02)2659-1035 cafe.daum.net/bohhyun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24〉 비구니 때문에 깨친 구지 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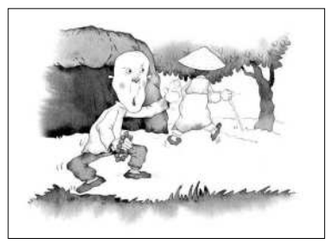
운현궁 근처에서 복지관계 일을 하는 비구니스님이 종무소 오는 길에 들렀기에 차를 한잔 나누었다. 이런저런 복지관계 일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다가 무심코 니(尼)들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 몇 마디 주고받게 되었다. 출가자이면서 여성 그리고 모성(母性)을 함께 소유한 까닭이다. 결론은 비구니는 너무 여자 같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남자인양 해도 안 된다는 거였다.

이 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임제종 관계자 한(灌溪志閑 ?~895) 선사와 말산요연(末山了然) 비구니와의 문답에서 정리된 바 있다.

말산에서 법을 펴고 있는 요연 스님이 비구니인줄 알고 관계 선사가 한번 보자고 하니 '남녀의 상은 아니다(非男女相)'란 대답이 돌아온다.

어쭈! 이봐라. 그래서 호기있게 '할!'을 한번 하고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어째서 변하지 않는 거요(云何不變去)?" 물으니 "귀신도 아닌데 무엇으로 변하리오(不是鬼神 變什)?"라고 대꾸한다. 비구랍시고 비구니 회상에 가서 한마디 했다가 남녀라는 분별상에 빠져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그순간 한 생각 돌이켰고 그 수업료로 삼년동안 그곳에서 농장을 돌봐주는 원주 소임을 자원하게 됐다.



법거량 청한 비구니에게 말한마디 못하고 망신
분심 일으켜 이 악물고 용맹정진 해 안목 열려

구지 선사는 비구니 덕분에 깨치게 된 경우라 하겠다. 그는 천태산의 토굴에서 혼자 정진했다.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실제(實際)라는 비구니가 찾아와 삿갓을 쓰고 석장을 든 채 선사 주위를 세 바퀴 돌고서는 말했다.

"바로 대답하면 이 삿갓을 벗겠습니다."

복색도 복색이거니와 그 내뱉는 질문도 듣는 비구로서는 고약하다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세 번이나 반복했다. 기분이 별로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비구비구니를 떠나 '법다이' 한마디를 해야만 했다. 그런데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그 비구니는 그냥 가려고 했다. 안목 없는 비구 옆에 더 있어봐야 시간낭비라는 실망한 표정이 삿갓 속에 감추어져 있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그런 것은 모두 접어두고 날도 저물었는데 밤길을 가겠다고 하니 비구 이전에 '싸나이' 입장에서 한마디 안할 수가 없다.

"날이 어두워졌으니 내일 해가 밝으면 떠나시지요."

그래도 실제니(實際尼)는 똑같은 말만 거듭 반복할 뿐이었다. "바로 일러 주시면 하룻밤 묵고 가겠습니다."

망신살 뻗치네. 꿀 먹은 벙어리마냥 가만있으니 그 니(尼)는 뒤도 안돌아보고 가버렸다. 구지 선사는 그날 이후 얼마나 분심이 났던지 이를 악물고 용맹정진 하였다. 얼마 후 대 선지식 천룡 선사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 한마디'를 청하였다. 이에 천룡 선사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 하나를 치켜세울 뿐이었다. 그 순간 구지 선사는 깨쳤다.

아마 그 때 다녀간 사람이 비구였다면 똑같은 경우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 정도 분심을 일으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어쨌거나 삿갓 쓰고 석장 짚고 느닷없이 나타나 스트레스를 주고 사라진 그 니 덕분에 다시 발심해 안목이 열렸으니 이는 제대로 된 만남인 셈이다.

뭐니뭐니 '비구니 어록'의 압권은 동산 양개 화상의 회상에서 있었던 일일 것이다.

선방앞에 웬 비구니가 와서 큰소리로 말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마조성향의 비구들은 그 소리에 혈압 좀 올라갔을 것이다.

만약 신라 땅에서 유학 온 성질 급한 '경상도 비구'가 그 곳에 있었더라면 당장이라도 좌복을 박차고 죽비 들고 쫓아나갔을 것만 같은 어투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내 자식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회상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 즉답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묵묵부답. 결국 동산 선사가 대신 한마디를 해야만 했다.

"나도 그대에게서 태어났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개 천지조화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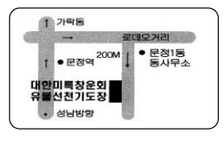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51)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불교(佛敎), 붓다의 위대한 가르침

점수(漸修)는 돈오 그것을 실천하는 일

좀 엽기적이었나요. 돈오가 '깨닫는 경험 혹은 사건'을 말하지 않고, '깨달음의 성격'에 대한 지적(知的) 통찰 혹은 이해라는 말에…. 아직도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 말을 좀 더 부연해 보기로 합니다.

왜 돈오가 제창되었습니까. 거기에는 불교가 오랫동안 깨달음의 성격을 오해해 왔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때까지 불교는, 계율을 지키거나 좌선을 오래 하고 있으면 우리의 정신이 고양되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어떤 경지가 열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같은 점오(漸悟)를 일거에 망치로 두들겨 깬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선의 실질적 창시자 육조(六祖) 혜능(惠能)입니다.

몸은 보리수, 마음은 거울

너무나 유명한 그 화두를 기억하시겠습니다. 나이 든 신수가 벽에 붙인 시 구절은 어떠했습니까. "내 마음은 거울이니, 시시로 부지런히 거기 낀 먼지를 닦아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스승 홍인의 실망감은 컸습니다. "그리 하면 큰 죄는 짓지 않겠지…. 다들 신수를 본받아라."

그러나 정작 인가를 받은 사람은 스무 살 청년인 혜능이었습니다. 혜능이 남방의 오랑캐였고, 또 일자무식이라는 사실이, 혹은 허구적 설정이, 돈오(頓悟)를 말하는 돈교(頓敎)의 파격적이고 혁신적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무대장치 같지 않습니까.

혜능은 "몸은 보리수도 아니고 마음 또한 거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디 먼지 앉거나 때가 끼는 곳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마음이 신분 · 성별 · 직업 · 인종 · 차종(車種)에 상관없이, 아파트 평수, 강남 · 강북, 서울 · 지방에 상관없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완전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닦을 것도 찾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오입니다.

하여 제가 해석하기에는, 돈오(頓悟)란 "깨달음(悟)이 이미(頓) 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선은 다른 말로, "깨달음에는 점차(漸次)와 계제(階梯)가 없다!"고도 즐겨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은, 즉심즉불(卽心卽佛), "네가 곧 부처이니, 어디 딴 데서 찾을 생각하지 말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수행이 필요하지? 이미 깨달아 있다면서…." 깨달음에 대한 지적 통찰은, 그것을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가는 일에서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을 우리는 점수(漸修)라고 부릅니다.

돈오는 그런 점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돈오는 불교적 진실에 대한 지적 통찰이니, 그것은 이제 시작이고, 전제일 뿐입니다. 그 불이(不二)의 진실을 삶에서 구현해나가는 것은 그의 삶 전체를 바쳐야 하는 멀고 힘든 길입니다. 왜 지눌 스님이 해오(解悟)를 앞에 두고도 다시 증오(證悟)를 내세웠겠습니까. 그 고구정녕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돈오와 점수는 새의 양날개

제2강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돈오(頓悟)는 쉬운데 정말 점수(漸修)가 어렵습니다! 불교의 이치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되, 그 이치를 진정 믿기가 어렵고, 또한 그 가르침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돈오를 이렇게 천박하게, 가볍게(?) 해석하는데 대해 눈을 흘기시는 분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방패막이 삼자면, 이 또한 제 독단이나 창안이 아니라 옛적 지눌 스님께서 돈오를 해석하신 그대로입니다. 스님은 돈오란 다름 아니라 "마음의 실상에 대한 지적 이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돈오(頓悟)를 '살아가는 것'이 점수(漸修)에 속합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심화와 지속의 실천적 과정입니다. 깨달음 한 번에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마치겠다는 턱없는 과욕과 오만을 버리십시오. 그럴 수는 천만 없습니다. 경허대사의 탄식인지, 자부인지 모를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돈오라는 점에서 내가 어디 부처와 다르겠느냐만, 다생(多生)의 습기(習氣)가 깊어서… 바람은 멎었으나 물결은 아직 일렁이고, 진리를 알았지만, 상념과 정념이 여전히 침노한다(頓悟須同佛, 多生習氣深. 風停波尙湧, 理現念猶侵)."



그렇습니다. 돈오와 점수는 새의 두 날개처럼,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를 지켜주고 보완해주는 쌍둥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즉, 돈오한 '이후에' 점수를 하라는 말이 천만에, 아닙니다. 또 성철스님은 돈오로 대장부 일대사 모든 것이 끝났으니 점수를 더 이상 언급도 하지 말라고 단칼로 내치시지만, 그러나 어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자라도 대생의 습기는 떨치기 어렵고, 또 유혹과 실수 앞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엄과 선이 같은 곡조를

그래도 제가 돈오와 점수를 매우 자의적으로, 제 멋대로 해석한다고 몽둥이를 드시는 분이 많을 듯합니다. 전 시간에 읽은 원효의 〈화엄경 소〉 '서(序)'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⑷ "지금 이 경(經)은 원만무상(圓滿無上)의 돈교법문(頓敎法門)이라, 법계법문을 널리 열어 무변의 행덕(行德)을 현시한다. 행덕을 거리낌 없이 내보여도 계단이 있는 까닭에 가히 닦을 수 있고, 법문이 끝이 없으나 열어도 모두 부합하는 까닭에 가히 나아갈 수 있다."

"그 문에 초입(超入)한 사람은 들어섬이 없기 때문에, 들어서지 않음이 없다. 이 덕(德)을 닦는 사람은 얻음이 없기 때문에 얻지 않음도 없다. 삼현십성(三賢十聖)이 이에서 행함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고, 삼신시불(三身十佛)이 구비치 않은 덕이 없으니(화엄경의) 그 문장이 밝게 빛나고 그 뜻이 넓고 무궁함을 무슨 말로 칭탄하랴."

⑸ "대방광불화엄(大方廣佛華嚴)이란 이름은, 법계가 무한하기에 대방광(大方廣)이요, 행덕이 끝이 없으므로 불화엄(佛華嚴)이다. 대방이 아니면 불화를 넓힐 수 없고, 불화가 아니면 대방을 장엄할 수 없다. 이래서 방(方)과 화(華)의 뜻을 함께 들어 그 광엄(廣嚴)의 종(宗)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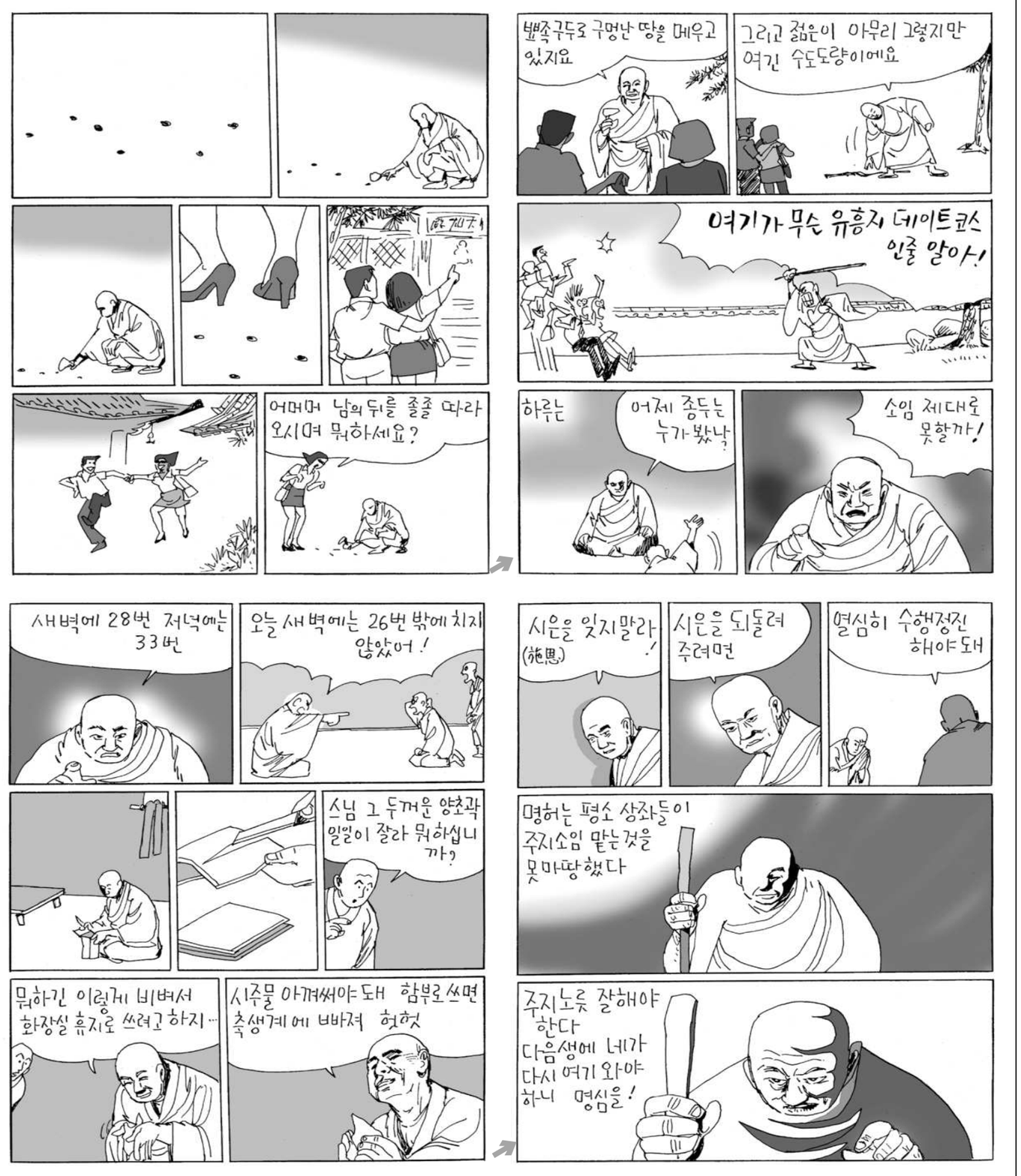
앞뒤 제하고, 여기 법계(法界)는 '이미 완전한 세계'를 가리키고 있고, 행덕(行德)은 그 세계를 삶에서 실현해나가는 중생들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계가 돈오(頓悟)를 가리킨다면 행덕은 점수(漸修)를 보여줍니다. 각각의 중생들은 이미 완전한 세계에서, 자신들의 몸과 입과 마음의 업(業)으로, 삶이 완전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이미 완전하므로, 그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분, 직업, 인종, 빈부와 귀천에 상관없이 그들은 이 완전한 우주를 화엄(華嚴), 즉 꽃으로 장식하는 주인공들이니 말입니다. 우리 중 누구 하나가 빠져도 이 세계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큰 믿음과 자부를 가지고, 이 짧은 한 생, 책임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사십시다. 그것이 불교(佛敎), 붓다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⑦③ 명허 스님의 '양초곽'

조태호



명허 스님(1897~1970): 법명 동근(東根). 서울 마포에서 태어나, 1912년 풍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 금강산 마하연, 부산 범어사 등에서 수도. 1970년 해인사 홍제암에서 입적.

네티즌 교리문답

수리수리 마하수리란?

문 "수리수리 마하수리…얍!"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어린이프로그램에 도사가 나와 주문을 외는 장면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또 〈천수경〉에도 '수리수리 마하수리…'란 다라니를 외고 있지만,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마구 하는 예가 많아요. 무슨 의미인가요? (수리수리맨)

답 1 : 도사의 주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수경〉에서는 이 진언을 구업(口業)을 맑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수경〉은 우리나라에서 〈반야심경〉 다음으로 불교의식에서 독송수지되는 경입니다. 아침예불전 도량석으로 〈천수경〉이 염송되며 모든 예식의 전후에 천수경을 외웁니다.

〈천수경〉의 첫 시작은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이지요.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하는 참된 말'이 정구업진언인데, 그 진언이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지요. 이 진언을 세 번 외고 〈천수경〉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진언)

답 2 : '수리'란 범어로 길상존(吉祥尊)이라는 뜻입니다. '마하수리'의 마하는 '크다'는 뜻이므로 마하수리는 대길상인 것이지요. '수수리'의 수는 '지극하다'의 뜻이고, '사바하'는 '원만(圓滿)' '성취(成就)'의 뜻입니다. 따라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를 이어 해석하면 '길상존이시여 길상존이시여 지극한 길상존이시여 원만 • 성취하소서…'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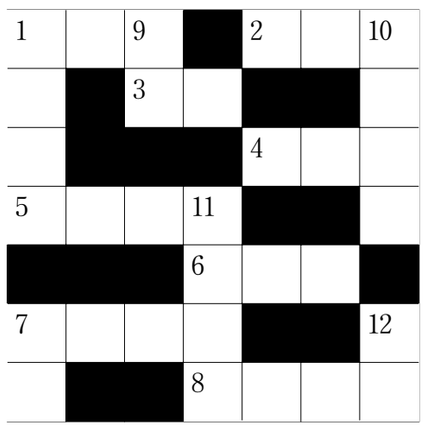
이렇게 세 번 외움으로써 입으로 짓는 업을 깨끗하게 한다는 진언이다. 입으로 짓는 업이라면 거짓말, 이간하는 말, 아첨하는 말, 남을 욕하는 말 등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잘못은 입으로부터 전달되고 입으로부터 익혀집니다. 따라서 모든 공덕의 시작을 입을 잘 다스리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천수경의 근본취지는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길상)

답 3 : 진언은 혹은 주문(呪文)이라고도 합니다. 주문을 열심히 외우면 높은 공덕을 지닌다는 주장은 〈능엄경〉 제7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람이 전생의 업과 습기(習氣)가 두터워서 그를 없애지 못할 경우 '능엄신주'를 일심(一心)으로 외우면 그 업이 제멸된다고 합니다. (능엄)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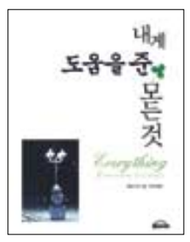
정답은 26면에

가로 1. 모든 번뇌를 끊어서 자유자재한 지혜를 얻으며 그 사실을 아는 능력 2. 고구마의 평안도 사투리 3. 여러 개의 날개를 장치한 바퀴를 높은 곳에 달아 바람에 회전하도록 해서 동력을 얻는 장치 4. 민물에 사는 거북 5. '아주 단단함'을 불가에서 일컫는 말 6. 더하고 빼는 셈 7. 부처님이 열반에 든 후 관이 열리며 석존이 금빛 몸을 드러냈다는 전설 8. 생산과정에서 새로 덧붙인 가치.

세로 1. 매우 많은 돈 7. 담배 피는 것을 금함 9. 바람을 잘 통하게 함 10. 예로부터 지금까지 11. 이름난 집의 어진 며느리 12. 날짓과의 바닷물고기로 가슴지느러미가 길게 발달해 있어 해면 위를 날아오를 수 있음.



길 잃은 당신, 감사하고 용서하라



내게 도움을 준 모든 것
레슬리 가너 지음
정지현 옮김
브레인 펴냄
9천8백원

신문 칼럼니스트가 전하는 주옥같은 삶의 지혜

데일리 메일, 이브닝 스탠다드 등의 신문 칼럼니스트이자 시사문제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은이가 30년 동안 쓴 메모와 기사, 일기를 모아둔 자료집의 내용을 선별해 꾸민 책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움이 되는 대처법, 그리고 인생의 여정을 계획하고,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정리했다. 이 책은 꼭 첫 장부터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흥미로운 부분부터 찾아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정서적 자유기법', '감정은 순간이다', '흥분을 가라앉혀라', '20분의 마술' 편 등은 마음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응급치료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중 '20분의 마술'이란 뭘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일할 때 어느 일정 시간만 참으면 계속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쉽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에 집중이 잘 안되거나 막다른 길에 몰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짧은 시간에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지은이는 조언한다. 앉은 자리에서 교향곡 전체나 제 1악장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20분 동안 몇 소절을 쓰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기비판의 두려움은 전부 잊고 피아노나 오선지 앞에 앉아 20분을 넘긴다면 그 이상도 얼마든지 앉아서 작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중의 하나로 '명상'을 추천한다. 발레리나가 바를 잡고 연습하고, 음악가가 음계를 바탕으로 작곡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명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명상을 통한 자기 훈련만이 모든 것과 일치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는 '할일이 많을수록 더 자주 명상한다'고 지은이는 소개한다. 지은이는 마음을 고요하고 차분하게 만드는 연습을 계속하면 혼란에서 멀어진 상태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며 독자들에게 명상을 권한다.

사람들은 고통보다 지루함을 더 싫어하는데, 그럼 과연 지루한 것이 나쁜 것일까란 의문에 지은이는 이의를 제기한다. 지은이는 오히려 지루함이야말로 인생을 더 길게 만들고 우선 순위를 깨닫게 해준다는 색다른 의견을 조심스럽게 건넨다. 지루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면, 무언가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삶을 진지하게 사는 것에 대한 지은이의 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은이는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도구인 감사와 용서를 연습하라고 말한다. 감사는 삶의 풍요로움을 깨닫게 해주고, 용서는 매일 쌓이는 분노와 상처의 파괴적이고 어두운 파편을 깨끗이 제거해 준다는 것이다.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기분을 전환해 고통과 절망의 감정 때문에 생긴 상처에 감사의 마음이라는 연고를 듬뿍 발라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은이는 또 우리는 매일 조금씩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기 때문에 매일 용서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계속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상처가 낫지 않은채 재발하므로 몸과 마음 모두 고통과 비참함, 분노로 망가질 수 있다며 인생은 과거를 떠안고 고통을 느끼면서 살기에는 너무짧다고 이야기 한다.

지은이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의미심장한 조언을 던지면서 이 책을 마친다. '결코 죽기전에는 실패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특히 젊은 사람이 실패했다고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고 털어놓는다. 인생은 하나의 진행중인 작품이므로,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단지 진전이 없는 상태일 뿐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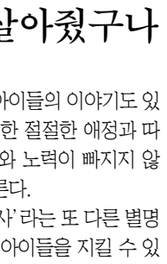
지은이도 실직의 아픔을 겪으며, 인생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잠시 슬픔에 잠긴적은 있었지만, 그것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 결코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 슬픔에 잠겼을 때 지은이가 우연히 책에서 본 솔로몬왕의 '죽기전에는 누구도 행복했다고 하지 말라'는 말을 새기며 희망을 꿈꿨다고 한다. 그 희망은 지은이를 유명한 칼럼리스트로 만들어 주었다.



레슬리 가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명상이라고 말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마즈타니 오사무 지음 | 김현희 옮김
에이지 21펴냄 | 9천원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12년간 밤거리를 헤맨 일본의 한 고교 선생이 그동안 밤거리에서 만난 아이들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도 오래 되었다. 일본도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기는 우리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즈타니 오사무의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는 12년간 야간고등학교에 근무하며 방과 후 밤거리 순찰을 돌면서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해온 한 교사의 감동 어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미즈타니 선생은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것은 그들을 어둠 속으로 내몬 어른들이며, 아이들은 그 피해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모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씨앗'으로 어른들이 제대로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꾼다면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울 거라는 게 미즈타니 선생의 굳건한 믿음이며, 그가 12년간 밤거리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진실이다.

이 책 속에는 지은이가 12년간 만나온 밤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때로는 교사의 욕심으로 아이에게 소홀해 죽음으로 내몰게 된 뼈저린 후회도 담겨 있고, 끝내 선생님의 사랑과 신뢰에 대한 보답으로 건강한 생활로 돌아간 아이들의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에는 아이들에 대한 절절한 애정과 따뜻한 시선, 그리고 한없이 기다려주는 인내와 노력이 빠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를 '밤의 선생'이라고 부른다.

밤거리 아이들아, 잘 살아줬구나

'일본에서 가장 죽음에 가까이 서있는 교사'라는 또 다른 별명을 갖고 있는 그는, 약물이나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면 폭력단 사무실이나 폭력집회에 혼자서 찾아가는 것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는 항상 "밤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낮의 세계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라고 말한다.

"내게는 아이들의 과거 같은 건 아무래도 좋다. 현재도 아무래도 상관없다. 시간이 걸려도 좋고, 누군가의 도움을 빌려도 좋으니까, 그들이 자신의 뜻과 힘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그러려면 무조건 살아야 한다. 나는 어른들이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줬구나 라고 그들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를 인정하고, 제대로 칭찬해주었으면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그를 이끌어 온 신념의 모든 것이다. 왜 밤거리의 아이들은 미즈타니 선생에게만은 '마음을 여는 것'일까? 그것은 아이들에 대한 절절한 애정과 따뜻한 시선, 그리고 한없이 기다려주는 인내와 노력때문이다.

일선에서 학생들을 선도하는 학생부 선생으로서 이 책을 읽고 많은 반성을 했다. 나는 '등교거부를 하는 아이들 곁에서 침묵하며 기다린 적이 있는가?', '학생들이 왜 죽고 싶어하는지에 대해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있는가' 등에 대한 물음을 내자신에게 던졌다.

방황하는 청소년, 그러한 청소년을 자녀로 가진 부모,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려는 교사들에게 마즈타니 선생은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라고 조언한다.

■유정옥(마장중학교 교사)

법비 내리는 곳! 부처님 광명이 충만한 곳!
동 해 사
어떤 소원도 이루는 곳.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소원 이루어 보세요


▶ 낙산사 홍련암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3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점심 공양 제공(예약에 한함)
답답한 분 상담은 혜명스님과...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671-6079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청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山寺 기청량 조청 1.2kg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372-5721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평상,벤치탁자

◆ 평 상 1500 × 820 × 400[mm] 가격:150,000 할인가:133,000
1800 × 1030 × 480[mm] 가격:220,000 할인가:190,000
◆ 벤치탁자 set 1500 × 1790 × 750[mm] 가격:420,000 할인가:370,000
갈라지거나 터짐이 전혀 없고 주기적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어 반 영구적이며 특히 촉감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목상, 가든, 휴양원, 해수욕장, 업체, 공원 등등에서 사용 할 수 있는제품.)
지구산업 TEL:(063) 323-3010-1 FAX:(063) 323-3012
http://지구산업.com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박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지역대리점 모집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지 / 저작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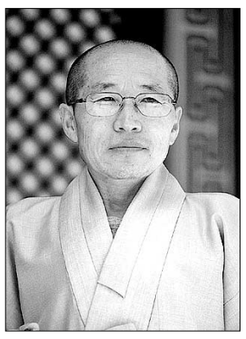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천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시조시장경
경암 스님 지음
여시아문
2만원

시조로 듣는 부처님 말씀 새롭네



30여년 시조시 지어온 경암 스님 불경 시조집

"형상에 마음 주고 차별망상 짓지 마라/ 순간도 영원함도 느껴 갖는 망상의 틀/ 이 세상 최상의 수행 그 이름 '반야바라밀'." (반야시 제7장 中)

시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읊는다? 불입종 총무원장 경암 스님(제천 송화사 회주 · 사진)이 한국문학사상 최초로 불경을 시조시(時調詩)로 노래한 <시조시장경>을 펴냈다.

경암 스님은 1970년 첫 시집 <낙뢰목의 여진>을 선보인 후 <시조문학>에 '부앙저회'란 시조시로 등단했다. 시조의 운율에 불교의 진리를 실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스님은 <법시(法施)>와 <불입(佛入)>지 등의 불교계 잡지에 시조시를 발표하기 시작해, 30여 년간 '시조시 불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지은 시조시만 해도 540여 수를 헤아린다.

이번에 선보인 <시조시장경>에서는 시조시를 '팔상성도'와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순으로 정리해 실었다.

그 중 부처님의 열반을 노래한 시조시를 살펴보자.

"부처님 열반드심, 중생이여 슬퍼말라/ 게으름 없이 닦아 그 마음 법에 살며/ 열반은 그대의 둥지, 본래 슬픔 없는 것."(열반시 제2장 中) "네 성품에 들어있는 부처성품 찾아내라/ 분명히 살펴알아 드밝게 깨친다면/ 부처님 비밀법장에 들어가게 되리라."(열반시 제5장)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수행과정, 가르침 등을 함축적이면서도 운율이 살아 있는 시조시로 되살려내 누구나 쉽게 읽고, 그 뜻을 헤아려볼 수 있도록 했다. 청주 관음사 조실 이두 스님은 '시조시장경의 문학사적 의의'란 글에서 "최초의 장경 시조시집인 <시조시장경>은 시작(詩作)으로 써진 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은 뚜렷한 원력의 표현으로 써진 것"이라고 평했다.

경암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조시의 그릇에 나누어 담느라 긴 세월을 보냈다"며 "많은 사람들이 시조시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님은 월사 스님을 은사로, 태허 스님을 계사로 득도한 후 고산사와 금강암 보덕사 등에서 수행 정진했다. 1977년 법화유치원을 설립했고 현재까지 17년간 불입종 총무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여수령 기자

종교의 존재 이유를 묻다

50가지 키워드로 종교계 문제점 조목조목 짚어



종교는 없다
권오문
문이당
1만3천원



이 시대 종교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일까? 권오문씨는 "오늘날 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류의 정신적 안정을 돕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한국갤럽이 지난해 1월 실시한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가량인 53%의 응답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67.9%)' 종교를 믿는다고 답했다. 이는 1984년 조사 때보다 종교인 비율이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시대가 각박하고 힘겨워질수록 종교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남을 보여준다.

하지만 종교인의 증가가 종교의 '순기능' 향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종교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종교인의 자질 논란과 목회직 세습, 교권 다툼 등이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자본주의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절대선을 추구하는 종교가 어느새 '권력'과 '수단'으로 변질된 한 단면이다. 최근 서점가에 <승려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한국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는 다소 과격한 제목의 책들이 선보이는 것도 종교의 '타락'을 경계하는 목소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종교전문기자로 활동한 권오문 세계일보 기획실장이 펴낸 <종교는 없다> 역시 오늘날 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 보는 책이다. 분쟁과 전쟁으로 치달은 종교계의 분열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 행태 등 오늘날 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50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하나님, 부처님을 격하시키는 기복신앙 행태'편에서는 종교를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오늘날의 종교 행태를 꼬집는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처를 교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이라는 지은이는 "불자들은 복을 비는 행위를 복을 짓고 닦는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하고, 이는 마음 닦는 수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처님 모시기 경쟁'에도 따끔한 일침을 가한다. "불사란 이름 아래 대형 불상 경쟁을 벌이거나 수많은 불상을 조성해 시줏돈을 모으는 행위는 타종교인들이 불상을 '우상'으로 여기게 만드는 원인"이며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정진할 때 불상이 우상이냐 성상이냐 하는 논란은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헌금 유용과 횡령, 교회 세습 등으로 얼룩진 한국 개신교와 '공자 사상의 한계상' 논란에 휩싸인 유교 등도 짚어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지은이는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종교계는 이제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종교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 진리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인류 구제'와 '세계 평화'라는 종교의 목표를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교단과 교리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해야 합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유심 2005 여름호>**(만해사상실천선양회 펴냄, 7천원)=기획특집 '종교적 상상력과 문학' 2편에서는 박찬두 교수(중앙승가대)의 '문학을 알면 경전이 보인다-법화경의 방편과 비유', 김종회 교수(경희대)의 '현대문학과 기독교 사상', 박영호 교수(협성대)의 '현대 서사와 도교적 상상력' 등의 논문이 실렸다. 또한 박시교, 이태수, 송수권 시인에 대한 '시인론'도 담겨 있다.



■ **<달마를 말하다>**(김류현 지음, 청수원, 9천6백원)=달마도를 10만 여점 그려 보급한 '달마작가' 김류현씨가 달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펴낸 책. '달마 이야기' '구도이야기' '글모음'의 3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에서 달마의 일대기와 수행과정, 자신이 달마를 그리는 이유 등을 적고 있다.



■ **<빨치산의 딸>**(정지아 지음, 필맥, 전2권, 각권 9천5백원)=1990년 출간됐다가 '이적표현물'로 분류돼 판금조치 됐던 <빨치산의 딸>이 복간됐다. 출간 당시 출판사 대표는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고 작가 자신은 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는 곡절을 겪었다. 소설가 정지아씨가 남로당 일원이었던 부모님의 삶을 재구성한 실화소설로,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가족이 겪어야 했던 수난사를 그리고 있다.



■ **<식물의 잃어버린 언어>**(스티븐 해로드 뷰너 지음, 박윤정 옮김, 오영주 감수, 나무심는사람, 1만3천원)="걷잡을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난 그 다음 해 봄, 몇 헥타르에 달하는 숲에는 야생 상추가 자라났다. 야생 상추는 순한 아편 같은 식물로, 통증을 멈추거나 완화해주며 수면을 돕는 효과가 있다. 우리 중 누가 이보다 더 나은 약을 처방할 수 있겠는가?" 약초와 식물을 연구해 온 지은이는 우리가 복용한 조제약의 대부분은 화학적 변이나 물질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자연으로 배출되며, 이는 수중생물의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생태계의 파괴 없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7억 년 전부터 지구에 존재한 '식물'이라는 것이다.



죽음이 삶에게 보내는 편지
에크낫 이스워런 지음
이명원 옮김
이재숙 감수
예문 | 1만2천원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 죽음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는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일'이 바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죽음'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애써 외면해 버리기 십상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블루마운틴 명상센터'를 설립한 인도 출신 명상가 에크낫 이스워런은 인도 경전 <까타 우파니샤드>를 재해석하며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까타 우파니샤드>는 소년 나치게타와 죽음의 신 야마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죽음을 초극하는 법을 제시하는 서사시로, '고대 신비 철학과 시 가운데 완벽한 전범(典範)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지은이는 "이 책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라며 "죽음이란 본래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죽음이란 끝도 없고 시작도 없으며, 단지 또 하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은이는 분노와 적개심, 화 등의 감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곧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며, 명상수행을 통해 죽음을 초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쾌선(箕城快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향(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시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숭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전등록 전 30권을 5권으로 완간!
전강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의 번역.
기존의 학술적 번역과 달리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른 법을 밝게 밝혀주는 <바로보인 전등록>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일광스님의 신행수기, 기도발 이야기

기도발 祈禱發

<< 출판기념법회 >>
· 장소 : 서울 영등포구 탑사(塔寺)
· 날짜 : 2005년 7월 14일
· 시간 : 오전 10시 30분
· 전화 : 02)2635-2611

부처님의 가피력은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불자에게 발현된다.

해가 중천에 뜨면 온 세상을 비추어 세상의 만물을 생성 존재하게 하지만 해가 먼 바다에서 떠오를 때 가장 높은 산 봉우리를 비추는 것 같이 지극히 기도하는 불자에게 부처님의 기도발이 있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기도하는 불자가 아름답다.

사바세계 자력(自力)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탐진치 삼독의 결정체가 인간이요 사람이다.
여기에 자력이란 실로 어리석음의 극치요 무지의 소산이다.
겸손과 하심을 배워라. 불보살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불자가 아름답다.

신광사 홈페이지 : www.kidobal.com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법보시용은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구입문의 : 일광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신광사 (051-442-6556)
도서출판 현대북스 (051-244-1251)

미륵은 진정 우리 곁에 있는가



원통 지음 | 신국판 | 394쪽 | 값 9,600원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이 책이 던지는 여덟 가지 질문

1 아함경에서 설하는 **인수 팔만 사천 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소승경전의 **무상성과 대승경전의 항상성은 어떠한 관계**인가?
3 12연기법의 **무명과 대승불교의 광명사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은 **중생이 부처되는 교설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5 화엄경의 세계는 **실세계**인가? 아니면 **상상의 세계**인가?
6 주역에서 설하는 **선천 · 후천의 개벽사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무엇인가?
7 **극락세계**는 진정코 **서방세계**에 있는가?
8 최근에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덟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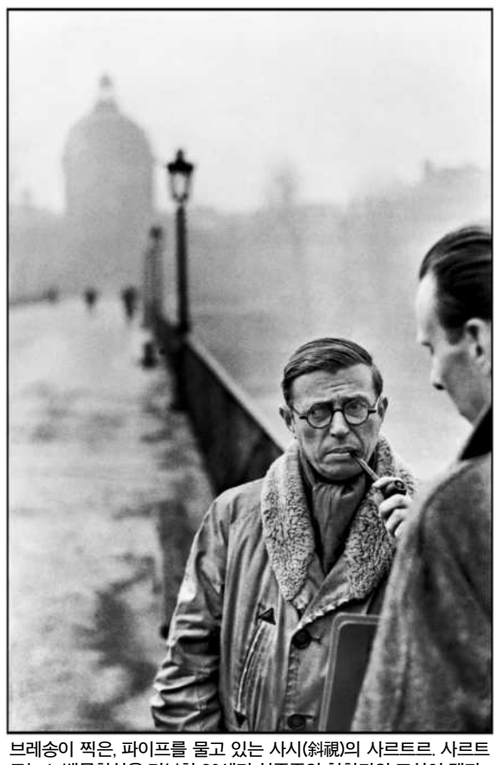
미륵불은 한 사람이 성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6불과 당신 스스로를 포함하여 현세 7불의 본말을 밝혔듯이, 미륵이 오실 때도 7불의 처음과 끝을 밝힌다고 하셨는 까닭에 미륵불은 6명의 도통을 이어서 7번째로 완성하심을 스스로 밝히게 되어 있다. 이제 일곱 분의 도통 연원과 의의를 밝히며 비로소 드러나는 진眞 대승불교의 일불승 사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 해조음 053) 624-5586 / 정토사 053) 622-0333

[해조음 海潮音]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1800-6 불교대구회관 2F Tel 053-624-5586 Fax 053-624-5587 E-mail bubryun@hanmail.net

Henri Cartier-Bresson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찰나의 거장' 展

예술의 전당(7월 17일 까지)



브레송이 찍은, 파이프를 물고 있는 사시(斜視)의 사르트르. 사르트르는 노벨문학상을 거부한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의 표상이 됐다.

"나는 때를 기다리는 신경다발이다
사진가는 분별이나 판단을 하지 말고
항상 주시자로 남아있어야 한다
주시는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브레송은 "자아의 발견은 주변 세계의 발견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내부 · 외부 세계는 끊임없는 상호과정의 결과로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기에 이른다"고 말했다. 작품은 '프랑스 프로방스,'그림자 자화상'.

찰나는 새로운 반복

"합장으로 예를 갖춘 돈독한 불자"
동양철학 접하며 불교에 관심
깨달음 얻듯 한가지 상황에 몰입
팔정도 '정견'처럼 사진 기본은 보는 작업



6월 25일 열린 '선(禪)의 찰나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세미나 현장.

불교와 브레송의 관계 세미나 열려

근대사진의 최고봉이자 현대 영상사진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진작가. 사진을 기록에서 예술로 승화시킨 주역이자, 포토저널리즘의 새로운 역사를 연 20세기 예술계의 산증인. 바로 프랑스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1908~2004, Henri Cartier-Bresson)이다. 그의 서거 1주년을 맞아 예술의 전당에서 대규모 특별전 '찰나의 거장' 전(7월 17일까지)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불교와 브레송의 관계를 조명한 세미나가 마련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경홍 교수(경일대 사진영상학부)는 6월 25일 열린 세미나 '선의 찰나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에서 브레송의 사진작업은 선(禪)과 둘이 아님을 역설했다.

브레송과 불교의 인연은 그간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내용이라 세간과 출세간의 이목이 동시에 집중되고 있다. 세미나 내용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브레송과 불교'를 조명해 본다.

△브레송과 사진

"나는 때를 기다리는 신경다발이다. 그것은 오르고 올라 마침내 터져 버린다. 그것은 육체의 기쁨이고, 춤이고, 시간이고 또 얽힌 공간이다."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은 '결정적 순간', 즉 '찰나'라는 개념 없이 논할 수 없는 사진가다. 그는 움직이는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는 '결정적 순간'을 잡아내는 것을 사진의 핵심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그 찰나는 쉽게 잡을 수 없다. 찰나는 개념도 논리도 아닌 까닭이다. 브레송에 따르면 "머리와 눈과 마음을 같은 축에 모두 담아 대상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찰나와 마주할 수 있다." 또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에게 찰나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 안'의 개념인 순간과, '시간 밖'의 개념인 찰나가 구분된다.

브레송이 잡아내는 찰나의 대상은 인물과 풍경 등 다양했다. 특히 그는 20세기를 빛낸 지식인들의 사진을 많이 찍었다. 사진평론가 최봉림씨는 "일종의 궁사, 저격수의 시선으로 모델들의 내면과 정신의 상태, 그리고 기질을 순간적으로 결정하면서 20세기를 풍미한 인물들의 아이콘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브레송은 2차대전 중에 나치즘, 파시즘에 맞서 포로와 탈주자들을 돕는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면서 사진의 바탕에 인간애를 심게 된다. 사진가 리샤르 아브동은 "그는 사진의 톨스토이였다. 깊은 인간애로 20세기를 증거했다"고 말했다.

△브레송의 삶과 불교

브레송은 불자였다. 한 사진가는 그를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는 합장으로 예를 갖출 정도로 신심이 돈독한 불자였다"고 회고한다.

평소 독서를 즐겼던 브레송은 힌두이즘과 도교 등의 동양철학 서적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특히 입체파 화가로 유명한 브라크로부터 <선불교와 궁도의 예술>이라는 책을 권유받으면서 선불교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를 키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일본 체류기간 동안 '다이토쿠-지 절' 등 선불교 전통이 남아있는 사찰 등을 렌즈에 담으며 영감을 얻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일본 선시(禪詩)인 하이쿠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불교에 조예가 깊은 예술인들과도 자주 만나 불교 이해의 틀을 넓혔다. 선불교와 시학에 대해 정기적으로 강의를 펼치던 프랑스 유명 시인인 이본느 본느프아, 승려와 철학자 저자이자 세포 유전학 분야의 과학자로 일하다 티베트 승려가 된 '마티유 리카르' 등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불교를 배웠다.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는 유명 사진가인 부인 마틴느 프랑크의 영향도 컸다. 부인은 티베트불교 신자로서, 선불교에 심취한 그에게 티베트불교를 소개한 인물이다. 프랑크는 티베트의 환생한 스님들을 주제로 사진을 많이 찍었고, 기회가 닿는 대로 브레송과 티베트불교 스님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브레송은 달라이라마도 여러 차례 친견했으며, 달라이라마를 직접 사진에 담기도 했다. 특히 그는 죽기 1년 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티베트의 한 스님 밑에서 죽음을 준비했다고도 전해진다.

△브레송의 '불교와 사진'

브레송의 선불교에 대한 관심은 그의 사진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에 대한 연구로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경홍 교수는 "그는 사진을 통해 선(禪)의 정신을 마주했으며, 선을 통해 자신의 작업에서의 성취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브레송은 책으로 선을 배웠지만, 사진을 수행의 한 방편으로 여긴 것처럼 보인다. 브레송은 "작업 하나하나가 질문의 과정이었다. 사진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방식이다"라고 밝혔다.



브레송의 작품 '다이토쿠지'.

사진작업도 수도의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선승들이 매 순간 화두참구에 몰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브레송은 "집중되는 찰나에 숨을 죽이고 나를 포함한 모든 결정적인 것을 그 찰나에 개입시킬 것"을 강조했다. 깨달음을 위한 선사들의 치열함을 대변하듯, 그는 한 가지 상황에서 반를 이상의 촬영을 강행하기도 했다.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1908	프랑스에서 큰 섬유회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남
1940	2차 대전 중 독일군의 포로가 됐다가 세 차례 시도 끝에 탈출 성공. 레지스탕스 조직 MNPGD에 참여.
1947	4명의 다큐멘터리 사진가들과 함께 사진작가주의를 지향하는 사진에이전시 '매그넘(Magnum)' 설립
1952	사진집 <결정적 순간(The Decisive Moment)>출판
1954~55	스탈린 죽음 이후 사진작가로는 처음으로 소련 공식 방문을 허락받음. 루브르 박물관에서 사진작가 최초로 개인전 열음.
1981	프랑스 문화부장관으로부터 국립대훈장을 받음
2003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재단 설립
2004	사망

전문가들은 브레송이 강조한 '보는 작업' 역시 불교와 통하는 개념이라고 평가한다. 이경홍 교수는 "팔정도에서 가장 첫 단계가 바르게 보는 것(正見)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보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브레송은 생전에 "세계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기에, 찰나는 새로움의 반복이자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사진가는 분별이나 판단을 하지 말고 항상 주시자로 남아있어야 한다. 주시는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뜻을 전한 바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독백이 남았다. "나는 거기에 있었고 또 그 순간에 삶이 나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어떤 방법이 있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불자들을 위한 하절기 특별 보급행사

도심에서 산사의 시원한 바람을 느껴 보십시오 ● 특별보급기간 : 6월 15일 ~ 7월 30일 ● 특별보급대상 : 사찰 / 스님 / 불교단체

투명한 느낌의 바람이 산사의 기운으로
불자들의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연화2호 SIF-16FBI
- 후면 회전조절
- 3단 속도조절
- 3시간 일반 타이머
- 가격: 75,100
- 특별보급가: 43,000



연화3호 SIF-14GAI
- 전면 회전조절
- 3시간 일반 타이머
- 가격: 75,100
- 특별보급가: 38,000



연화4호 SIF-14GCCI
- 전면 회전조절
- 3시간 일반 타이머
- 5엽 날개
- 가격: 75,100
- 특별보급가: 40,000



연화5호 SIF-16WYI
- 4단 로터리식
- 상하 각도조절
- 전면 회전조절
- 날개크기 60cm(16")
- 가격: 64,100
- 특별보급가: 31,500



연화6호 SIF-07DTG
- 강약 3단 풍량조절
- 후면 회전조절
- 표면 펄도장
- 유럽풍 고전디자인
- 날개크기 7"/4 blade
- 가격: 35,200
- 특별보급가: 28,000

스님용 추천상품



연화 무선 찻주전자 K1
독일 직수입품!
- 한정수량 특별보급
- 300pes한정
- 220V/2000W
- 용량:1.7ℓ
- 고급스테인레스 소재
- 초고속가열 1컵(30초)
- 360(도) 회전
- 찻잎 거름 필터
- 코드보관장치
- 순간 재가열 기능
- 가격: 67,000



연화 삭발기
- 원터치 터보 장착방식으로 날의 움직임이 빠르다
- 충전+전기식
- 원터치 터보
- 특수 MiM 합금날 및 초강력 티타늄 코팅
- 밋살캡 -커트길이 조절
- ABS 소재의 초경량 제품
-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
- 충전시간 : 5시간
- 소비전력 : 5.5W
- 전원 : 110/220V
- 가격: 58,000

빅히트 상품

음이온 냉풍기

연화1호 SIF-2005RT
- 리모콘식
- 음이온기능
- 상하/좌우 풍향시스템
- 3단계 풍속조절
- 7시간 30분 예약 타이머
- 아이스팩 내장
- 바퀴 이동식
- 3D 입체 냉방 시스템
- 실로코팬 시스템
- 소비전력 160W



설치장소 사찰/법당/강당 사무실 등

조기 품절 될 수 있습니다
207,000 ⇨ 특별보급가: 160,000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02-2004-8218~9
Mahamall.co.kr 02-732-1520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29>



출가를 거절당한 청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는 그를 너무나도 귀히 여겨 온 정성을 다하여 가르쳤습니다. 아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려고 좋은 스승에게 교육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몹시 교만하였습니다. 부모의 힘든 고생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는 당연히 그런 사랑을 받는 거라 생각했든지 마음이 허황하여 조금도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아침에 배운 것은 저녁에 잊어버리고, 저녁에 배운 것은 아침이 되기도 전에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 해를 교육시켰지만 조금도 똑똑해지지 않자 부모는 아들을 집으로 불러다 가업을 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허황하여 부지런히 노력할 생각이 없었기에 살림은 점점 궁색해져갔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잘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또 방탕하기까지 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집안 살림살이를 내다 팔아 자기 유흥비로 써버렸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자면, 머리는 마구 흐트러졌고, 맨 발로 다니며 옷은 더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처님이 어서 거두어서 사람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부처님은 의외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도를 구하고자 하면 먼저 그 행실이 깨끗해야 한다. 그런데 너는 저 세속의 때[垢]를 가진 채 그대로 우리 도에 들어오려 하는구나. 부질없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니 무슨 큰 이익이 있겠느냐?"

청년은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소곳이 다음 가르침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거라.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외우고 익혀 목숨을 마칠 때까지 잊지 않는 것이 그대에게는 더 낫다. 부지런히 생업에 힘써 부자가 되어 집안에 근심이 없게 하라. 예의로 몸을 지켜 잘못을 저지르지 말며, 목욕한 뒤에 깨끗한 옷을 입어라.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마음을 다잡고 오롯하게 지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여라. 굼뜨게 움직이지 말고 민첩하게 행동하며 세밀하게 자신의 행동거지를 잘 살펴서 남에게 칭찬받고 흠모의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실천해야 도를 닦을 수 있는 법이다." (법구비유경 제3권)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도나 닦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 닦는 일은 세상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일 뜻대로 안될때 '도나 닦자'라고 말합니다만 생활에 최선 다한 사람에게 출가 자격을 주셨군요

하지만 청년의 출가를 만류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보면 수행이란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출가, 수행하기, 도 닦기.

이런 일들은 재가생활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먼저 자격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을 때 나의 형식이 갖추어지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갖추어지면 나에게는 격(格)이 생길 것이요, 그 격 속에 차츰 내용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제대로 된 격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계율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재가자들이 수지하는 오계라는 것은 사실 뭐 그리 대단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오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제 앞가림을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반듯한 하나의 인격체로 남에게 비쳐질 때 비로소 선정에 쉽게 들 수 있고 지혜를 밝힐 구체적인 수행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불자들이 공부해야 할 세 가지, 즉 삼학(三學)에서 가장 먼저 계율이 자리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지상 백고좌

재덕 스님

(순창 강천사 주지)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는 인과의 도리를 믿고 착하게 살라고 늘 강조하는 재덕 스님.

부처 닮아가는 이가 참불자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뜻을 청정히 하면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입니다. 이 안에 불교가 다 있습니다. 팔만사천 경전에 수많은 내용이 들어 있지만, 그 내용이 전부 마음을 부지런히 닦아 선행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승한 공덕이 있는 것이지요. 불교는 사람이 살고자 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불교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은데, 불교 자체가 어려운게 아니고 '중선봉행'의 삶이 어렵다는 것이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니 어려울 수밖에요.

우리는 '모든 부처님이 왜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고 했을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선인선과 악인악과(善因善果 惡因惡果)'라는 간단한 답으로 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경계는 우연히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전생에 또는 과거에 지은 모든 행위들이 씨앗이 되어 현재의 조건들이 관계지어져 지금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요. 다시말해 원인이라는 인(因)과 조건이라는 연(緣)이 만나 열매(果)가 맺어진 것이지요. 이것이 인과법입니다. 누구도 인과의 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툇마루에 놓여있는 재덕 스님의 지팡이와 고무신.

수행자는 괴로움이 없는 이가 아니라 괴로움에 얽매이지 않아

그런데도 이를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믿는다면 마음 닦는 수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수행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섭수를 근간으로 합니다. 섭수가 없다면 수행은 진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받아들이는 가운데 수행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욕이라 했습니다. 인욕과 섭수를 행하는 수행자에게는 걸림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괴로움이 비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치열한 수행심이 괴로움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괴로움이 없는 이가 아니라 괴로움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수행에 승속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자라면 응당 마음 닦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수구섭의신막범(守口攝意身莫犯)
여시행자능득도(如是行者能得道)

입을 지키고 뜻을 섭수하며 몸으로 범하지 말라
이와 같이 실천하는 이가 능히 도를 얻으리라

선업과 악업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계(戒)입니다. 계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처지에 맞는 계를 줍니다. 스님에게는 스님에 맞는 계가 주어지고, 재가불자에게는 재가불자에 맞는 계가 주어집니다. 신라시대 화랑에게는 불교의 5계를 바꾸어 세속 5계를 내렸습니다. 세속 5계의 내용에는 불살생과는 맞지 않은 살생유택(살생하되 가림이 있으라)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개차(開遮)의 도리가 있습니다.

보조국사 지눌 스님은 이 개차의 도리를 <계초심학인문> 첫 구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릇, 처음 마음을 일으켜 수행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나쁜 벗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벗을 가까이 하라. 오계 십계를 받아 지키고 범하는데 열고 닫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夫初心之人 須遠離惡友 親近賢善 受五戒十戒等 善知持犯開遮.)'

언뜻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를 범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일진대 '열고 닫음을 알아야 한다'고 여지를 남기는 것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죄 역시 연기법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죄는 본래 실체가 없이 연기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잘못된 마음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마음과 죄가 사라지면 그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수백겁에 쌓인 죄업이라도 한 생각에 없어져서 마른 풀이 불에 타버리듯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무자성종심기(罪無自性從心起)
심약멸시죄역망(心若滅時罪亦亡)
죄망심멸양구공(罪亡心滅兩俱空)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자광스님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 친견 상담 환영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종합병원 의사의 어머니가 후

대구경북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화제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두암말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칠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탕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을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켜야 할 일을 병행해서겠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원을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으로 가산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종합 news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람을 놀라게 하기고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몰아내야 하고... 병이 나으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풍기I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Wellbl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칼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칼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시즉명위진참회(是則名爲眞懺悔)

죄는 본래 자성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고
허망한 마음이 사라지면 죄업 또한 없어지나니
죄와 허망한 마음 둘 다 비워지면
이를 일러 진실한 참회라 하느니라.

안타깝게도 우리 불교는 기복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절에 오면 부처님 앞에서 나와 내 가족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쁜 일은 부처님이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복을 바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에 앞서 자신이 복을 지었는지 되돌아 보세요. 복을 지으면 복이 돌아오기 마련이거든요. 절에 가서 인과법을 공부했으면 절을 나서서도 인과의 도리를 믿고 작복을 해야 합니다.

기복과 작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을 빌기만 하면 기복이고 복을 지으면 작복입니다. 작복 불교는 기복을 한차원 높인 신앙이예요. 복 짓는

자연을 마음으로 대하고
잘 살피면 심신 깨끗해져
인과 도리 믿고 복 짓자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당당해져야 합니다. 선한 씨앗에서 선한 열매가 열리듯 복을 지음으로써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들때만 부처님에게 매달리는 것을 바른 믿음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 또한 불자된 도리가 아닐까요? 슬기롭게 산다는 것은 분수에 맞게 산다는 뜻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은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죽는 것과 같아요.

요즘 세상이 참 무섭다고들 합니다. 각종 사회통계를 보면 종교를 믿는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정반대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종교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거나 종교의 가르침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다시말해 수많은 종교인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반증 아닐까요? 종교는 인간이 지녀야할 양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사현정(破邪顯正)과 지악수선(止惡修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삼척 삼장사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매주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저와 목사, 신부를 초청해 매번 같은 시간대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로 안면식이 있는데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세상을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성직자 세 사람이 만나서 서로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던 무수히 많은 벽들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분위기가 밝게 바뀌더군요.

세상 사는 이치는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서면 벽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없는



재덕 스님은, 불교는 사람이 살고자 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일러준다.

벽도 있게 만드는 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란 것이 쉽게 열리질 않습니다. 어떤 현상 앞에 서면 자신이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느껴져 위축되고 말지요.

수행은 마음을 열어주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당당해집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수행' 하면 단박에 부처를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수행의 결과는 그렇게 단박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행을 하면 서서히 몸에서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정작 본인은 이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과 가깝게 지내세요. 자연을 마음으로 대하고 잘 살피면 비로소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당가의 풀을 뽑는 가운데 불교가 있고, 숨을 쉬는 가운데 불교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는 내안에도 있고, 내 옆에도 있으며 내가 없는 곳에도 있습니다.

정리=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재덕 스님은

"재덕(在德)이요 부재흠(不在欠)이니라(덕은 있고 흠은 없어야 하느니라)"

은사의 노스님이었던 박한영 스님이 일러준 가르침을 평생의 화두로 삼아온 재덕(在德) 스님. 16세때인 1940년 순창 구암사에서 청우(聽雨)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장성 백양사 만암 스님 문하에서 불교전문강원을 거친 뒤 동국대 국어국문학과를 중퇴했다.

삼척 삼장사에서 30년간 도량불사와 포교에 매진하면서 얻은 별명이 '포교꾼'.

미래불교 지도자를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로 중 · 고등학교 불교학생회와 불교청년회를 결성했고, 중앙유치원을 건립하는 등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힘써 왔다.

재덕 스님은 1992년 순창 강천산 깊숙한 자락의 강천사로 자리를 옮긴 뒤 매일 풀을 뽑으며 일어나는 번뇌를 다스리고 있다. 법호는 서광(瑞光).



현성 스님의
스님이야기

도일 스님

스님들은 종교인이기에 앞서 수행자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치열한 공부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가부좌를 틀고 참선을 해야만 수행자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은 다만 형식상의 구분에 불과하며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무리 선방에 많이 다녀도 나중에 그 이력으로 한자리 해볼까 한다면 이판중의 사판이고, 절 주지를 살아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청정하게 산다면 그 스님이야말로 사판중의 이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있을지라도 처음 먹은 그 청정한 마음이 변치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행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수행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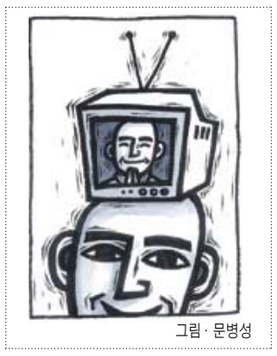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도일(道一) 스님은 수십 년 동안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에 귀를 기울이며 외길만을 걸어온 학승(學僧)이다. 스님은 경전을 독송하거나 공부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스님은 1970년대, 십대 후반 나이로 속리산 법주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경전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했다.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 같은 것은 그 의미와 내용을 모두 외워버렸다.

그런 모습을 강주(講主)스님이나 중강(中講) 스님들이 잘 보았는지, 어느 날 스님에게 행자들을 가르치는 소임이 주어졌다. 그런데 행자들이 모인 방에 가 보니 모두 스님보다 나이가 많았다. 도일 스님의 은사스님 나이와 같은 노행자도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행자의 아들이 스님과 동갑이었다. 그런 나이 많은 행자들 앞에서 강의를 하자 떨렸다. 스님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다. 스님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강이 되고 새로 들어온 스님들을 가르치는 소임을 맡았다.

이렇게 법주사 강원을 졸업한 스님은 불국사에 가서 운기(雲起) 스님으로부터 <화엄경>을 사사(師事)받게 된다. 그러면서 불국사 강원의 역사도 새로 시작되었다. 스님은 그곳에서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중강 소임도 같이 보게 되었다.

그 후 스님은 오래된 고문서들을 번역하는 곳인 국역연수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불교경전이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중국문화와 한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실력을 검증하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스님도 응시했다.

얼마 후 스님은 합격 유무를 알기 위해 고사장으로 가는 택시를 탔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며 길거리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다. 간신히 발표장에 가보니,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게 아닌가. 모두 피난하기 위해 시험의 합격 유무에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스님은 전쟁보다도 합격 유무가 더 중요했는지, 끝까지 가서 합격한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북한의 이웅평인가 하는 사람이 전투기를 몰고 와 투항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잘못 알려진 것이다.

그렇게 5년 동안 국역연수원 생활을 하며 공부했지만, 스님은 공부에 더 갈증을 느꼈다. 학문은 하면 할수록 어려웠다. 특히 한문은 고문(古文)과 현대의 언어인 백화문(白話文)이 쓰이면서

수십년간 경전공부 외길
힘겹게 유학 마치고 講主로

더욱 알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스님은 대만 유학을 결심, 대만으로 건너가 처음에는 맞지 않는 기후 풍토와 생활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는 도움을 받게 된다.

대만에는 스님들의 음식이 철저하게 지켜져서 아예 스님들 채식식당이 있다. 스님도 대만 풍습에 따라 채식 식당에서 매일 식사를 해결했다. 그러나 채식 식당은 일반 식당에 비해 가격이 더 비쌌다.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채식 식당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 주인이 와서, 어떤 신도가 앞으로는 식사비를 모두 내기로 했으니 무료로 먹으라고 하였다. 아무래도 그 대만 신도가 스님의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모양이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갈 무렵이 되었다. 갈 때는 감사 인사를 해야겠기에 식사를 보시한 사람을 만나려고 했으나, 그 보시자는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한 것이다.

그렇게 2년여의 대만 유학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스님은 수십 년 전 출가한 법주사 강원에서 강주(講主) 소임을 맡게 된다. 스님의 말에 의하면, 처음 경전을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강주스님에 대한 존경, 학문에 대한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 진 것 같아 감개무량했다고 회고했다.

스님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을 어떤 때는 불교TV에 나가서 경전을 설(說)하기도 하고, 신도들 앞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포교 전선에 서 있다. 도일 스님의 학문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 ■ 청원 현암사 총무

부모와 함께하는
제1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

수용과 이해와 사랑 키우기

최근 참선, 명상 등 불교수행법이 심리치료 및 인성교육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제시와 함께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름방학을 이용,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동 관심사를 반영하여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를 실시합니다.

• 자신의 원함 찾기 및 자기 창조하기 • 나는 누구인가? 탐구하기 • 마음 알기, 표현하기, 나누기 훈련
• 몸 나누기 명상하기 •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 에니어그램을 통한 자기 이해하기 • 지점토 작업을 통한 자기 보기
• 절 명상 • 절 명상을 통한 참회 명상 • 진언을 통한 자비 명상 • 산행 명상 • 취침 명상 • 감사 명상 • 화해 명상
• 축복 명상 • 버리기 명상 • 불꽃 명상 • 서원세우기 훈련 …

목표 및 기대효과
• 메사에 도움이 되는 질문법을 체화한다
• 자신의 감정과 그 뿌리를 볼 줄 안다.
•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전달하고 또 잘 듣는 태도를 갖게 된다.
• 긍정적인 신념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된다
•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사랑하는 심성을 갖는다.
• 삶의 목표를 세우게 된다.





일 시 : 2005년 7월 21일(목) ~ 24일(일), 3박4일간.
장 소 : 다보사 다보수련원(충북 괴산)
대 상 : 초등학교 5학년~중학생 선착순 60명 (관심 있는 부모님과 교사 참가 가능)
참가비 : 150,000원(월간「불광」· 격월간「불교와 문화」정기구독자 10% 할인)
진 행 : 김남선(교사, 심성수련프로그램 다수 진행) 외 12명

참가접수 및 자세한 일정 안내
월간 불광 http://www.bulkwang.org 02 – 420 – 3200
격월간 불교와 문화 http://buddhistculture.co.kr 02 – 719 – 2606

주최:(재)대한불교진흥원 | 주관·월간「불광」· 격월간「불교와문화」| 후원:불광사 · 불광법회/다보사다보수련원 | 도서협찬:문학동네 · 대숲바람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실크로드 문화탐방 14일

실크로드의 길 중에 하나인 파미르고원은 수많은 서역 구법승들이 넘나들던 전법과 구법의 길입니다. 그 옛날 달마대사가 넘었다는 총령도 파미르고원을 말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는 알렉산더 왕이 현재 파키스탄의 간다라 지역을 정복하였고, 고대 그리스 문명과의 접목으로 간다라 불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쇼카 대왕이래 불교를 부흥시킨 카니시카 왕이 수많은 사원과 불탑을 세운 곳도 간다라입니다. 불교 최고의 부처님 고행상은 파키스탄의 라호르박물관에 있습니다. 수많은 불상과 사원 등 간다라와 파미르고원, 중국의 우루무치까지 고대 유적을 따라 순례하는 전법의 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출발일 : 1차 7월 22일 출발 – 8월 4일 도착, 2차 8월 21일 출발 – 9월 3일 도착
• 일 정 : 인천-파키스탄 라호르 도착-라왈핀디-탁실라-페샤와르-스와트(마애불)-카라코람하이웨이를 따라 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장수 마을)-탁스쿠르칸-카슈카르-쿠차(키질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수미산 순례 24일
• 출발일 : 8월 23일 출발 – 9월 15일 도착
• 일 정 : 인천-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체-사가-파양-수미산-구게왕국-마나사로바-파양-사가-장무-카투만두-인천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 실크로드와 수미산 여행은 불교를 사랑하는 실크로드에 맡겨 주십시오.

게시판

아동심리정서지원센터 개소 구로청소년 수련관은 7월부터 아동심리정서지원센터를 연다. 지역 내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언어치료, 인지치료, 놀이치료와 상담을 진행한다. 또 우수한 강사진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어린이 피아노 교실도 열린다. (02)838-1318

사법연수생 무료법률상담 조계사는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사법연수원 제36기 연수생들이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봉사를 실시한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법률이나 일상생활 속의 법률적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계사 교육관 1층에서 받을 수 있다. (02)732-2115

여름 학생 수련회 불교총지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충남 보령 청소년 수련원에서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제10회 어린이 여름학생수련회를 연다. '산과 바다와 함께 하는 마음수련의 장'이라는 주제로 7월 11일까지 통리원에 접수하면 된다. (02)552-1080



어린이 숲속학교 공주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평사로 어린이 여름숲속학교(사진)를 떠난다. 6세 이상의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접수기간은 7월 1일부터 20일까지. (041)858-3900

20면 상식 퍼즐 정답

누	진	통		호	감	자
거		풍	차			고
만				남	생	이
금	강	견	고			래
			가	감	산	
금	관	출	현			날
연			부	가	가	치

세 번이나 연꽃을 보러 삼지를 찾아오니
푸른 잎 붉은 꽃은 그때와 변함없다.
다만 꽃을 바라보는 옥당의 손님만이
마음은 변함없어도 머리털이 희어졌네.
상련(賞蓮) / 고려시대 곽예





연꽃 향에 취하다

전국 연꽃축제 잇따라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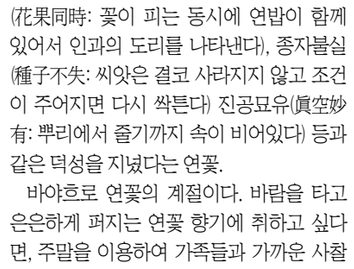
처염상정(處染常淨: 더러운 물에서 살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화과동시(花果同時: 꽃이 피는 동시에 연밥이 함께 있어서 인과의 도리를 나타낸다), 종자불실(種子不失: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조건이 주어지면 다시 싹튼다) 진공묘유(眞空妙有: 뿌리에서 줄기까지 속이 비어있다) 등과 같은 덕성을 지녔다는 연꽃.

바야흐로 연꽃의 계절이다.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지는 연꽃 향기에 취하고 싶다면,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들과 가까운 사찰로 떠나보자. 해마다 각 지자체와 사찰에서 열리는 연꽃축제시즌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것이다.

올해는 김제 **청운사**가 '하소백련축제'로 가장 먼저 연꽃축제의 막을 올렸다. 6월 23일에 시작돼 7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축제가 진행되는 하소백련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연꽃차 생산지. 축제기간동안에는 차를 통해 명상에 들기, 다례시연 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중국 명나라 시대 작품인 길이 53미터의 대형 '오백나한도'가 전시된다. (063)543-1248

강화 **선원사**는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제3회 논두렁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논두렁에 피어난 1만1천여송이의 연꽃이 장관을 이룬다. 올해는 주지인 성원스님이 직접 작곡한 연꽃축제노래로 개막식을 연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연냉면, 연꽃밥 등 연으로 만든 사찰음식도 맛볼 수 있다. (032)933-8234

대표적인 연꽃사찰인 아산 **인취사**는 연꽃이 개화한 시기 동안 언제나 무료로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돼있다. 또 연꽃이 만개하는 7월과 8월 중 경로잔치와 백련시사가 열린다. 올해로 13회째인 백련시사는 사찰 연꽃축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으로 손꼽힌다. 전국 각지의 문인, 시인, 화가, 서예가 300여 명이 모여 연꽃을 감상하며 자유롭게 시 · 서 · 화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다. 연



연꽃이 가득한 연못에서 생태계관찰 체험학습을 하는 아이들.



'무안 백련대축제'에서는 백련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제공=무안군청 관광홍보과

연꽃축제 및 연꽃관찰이 가능한 곳

축제명	장소	기간	연락처
서울연꽃축제	서울 봉원사	8월 16일~30일	(02)392-3007
봉선사연꽃축제	남양주 봉선사	7월 23일~25일	(031)527-1951~3
태안연꽃축제	청산수목원	7월 16일~8월 중순	(041)675-0656
궁남지연꽃축제	부여 궁남지	7월 21~26일	(041)830-2252~5
세계연꽃축제	안동 덕왕사 경내	8~9월	(054)853-3855
망월사연꽃관찰	칠곡 망월사	7월 중순	(054)745-7579
백련사연꽃관찰	전남 강진 백련사	7월 중순	(061)432-0837
전주연꽃예술제	전주 덕진공원	7월 30일~31일	(063)252-9488
대원사연꽃축제	보성 대원사	9월 1일~30일	(061)852-1755

잎을 잔 삼아 연차를 마시고, 연으로 만든 선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또 연꽃분양을 원하는 방문객에게는 무료로 나눠준다. (041)542-6441

지자체가 준비한 연꽃축제도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동양최대의 백련 자생지인 전남 일로읍 회산 백련지에서 열리는 **'무안백련대축제'**는 작년에만 약 7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 10만평에 이르는 백련지에서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멸종위기 희귀종인 '가시연꽃'을 비롯, 홍련, 백련, 수련, 어리연, 왜개연 등 각종 연꽃을 볼 수 있다.

15일은 '불교문화행사의 날'로 지정해 법요식, 괘불조성, 연차시음, 연꽃 및 연등 만들기, 자기소원 걸기 등 여러가지 불교문화행사를 갖는다. 무안군청 관계자는 "무안백련대축제는 연꽃이 갖는 불교적 의미에 주목, 매년 불교문화행사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061)450-5319, 5224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이영화 어때요?

가보지 못한 길을 따라 되돌아 걷다

구름의 남쪽 감독: 주웬 출연: 전장장 장르: 드라마 상영시간: 100분 등급: 15세 이상



유턴과 후진이 없는 인생의 행로에서 그동안 걸오 온 길과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과 동경은 누구나 있기 마련. 영화 '구름의 남쪽'은 이런 '인생의 두 갈래 길'에 대해 지극히 현실적 입장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는다.

공장에서 은퇴한 쉬다친은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산다. 딸과 가족들은 헬스 강사인 딸의 에어로빅 사업에 모아놓은 돈을 투자하라고 그를 부추기나 쉬다친은 그런 일에 남은 미래를 보내는 것이 영 마땅치 않다. 대신 그는 멀리 티베트 근처의 운남에 가고 싶어한다. 젊은 시절 그 곳에서 살 기회가 있었으나 결혼을 하면서 그 길을 포기했던 그는 운남에 갔다면 자신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결국 쉬다친은 아는 이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운남으로 잊고 살았던 그의 젊은 날의 꿈을 찾아 떠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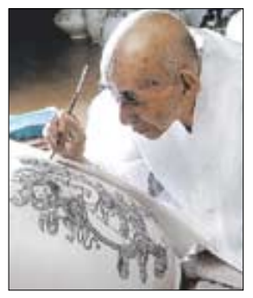
우리는 누구나 선택하지 않은 길을 돌아보게 된다. 인생에서 이러한 갈림길은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는 본인만이 알고 있다. 이런 저런 상황을 생각해보고, 혹은 즉흥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한 번쯤 갈림길에 놓였던 지난날을 생각하며 후회해보기도, 웃어보기도 한다. 인생을 살다보면 사소한 것 하나도 선택의 갈림길에서 인생의 희비를 엇갈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영화가 주는 메세지는 뭘까? 그것은 아마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판단에 따른 '과정의 소중함'이 아닐까 싶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전시

현세에 꽃핀 극락세상

만봉 스님 단청 불화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만봉 스님.

오랜만에 단청장 만봉 스님의 단청 · 불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이동식)은 6월 30일~7월 19일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현세에 꽃피우는 극락'을 주제로 '만봉 이치호 단청 · 불화전'을 연다. '극락도' '관세음보살도' '영산회상도' 등 단청 · 불화 작품 90여 점이 선보인다. 만봉 스님의 최근작품도 만날 수 있으며, 스님 제자인 단청장 전수자들의 작품 20여점도 함께 전시된다. 6 · 13일에는 단청제작시연회도 마련된다.

백수를 바라보는 만봉 스님은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로 6세에 불가에 입문, 9천여 장의 그림수업을 거쳐 18세에 '금어'의 칭호를 받았다. 공주 마곡사 대웅전을 비롯해 서울 도선사, 금강산 표훈사와 유점사 등 수많은 사찰의 전각을 장엄한 바 있다. 관람료는 무료. (02)3453-1685 **강신재 기자**

'선과 면' 경계가 어디인가

전각가 김병윤展 … '궤' 주제로 불경 담아



경전의 글자와 글귀의 뜻은 새로운 형태의 문자로 형상화한 전각 작품.

전각을 접할 수 있는 전시회가 부산에서 열린다. 전각은 단순히 글씨를 조각한 '서각'과는 달리, 글자와 글귀의 뜻을 상형문자와 같이 형상화한 후 돌이나 나무에 새기는 조각예술의 한 형식. 중견 전각 작가인 목어 김병윤 선생은 5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제작한 작품 49점을 7월 4~9일 부산시청 제1전시장에 내어놓는다.

수레바퀴와 규범을 뜻하는 '궤(軌)'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전시회의 백미는 불경을 담은 전각들. 김병윤 선생은 한자로 풀어낸 반야심경을 형상화한 작품 4점을 비롯해, 각종 경전 글귀들을 새로운 형태의 문자로 재구성해 새긴 작품 10여 점을 선보인다. 2000년 11월 '공(空)'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전시회를 가진 이후의 성과들을 모은 자리다.

한국 최고의 전통 전각 작가였던 이석 김재화의 수제자인 김병윤 선생은 한국현대미술대전 금상(1989년), 동남아 미술대전 특별상(1989년), 한국현대미술대전 특선(1991년)을 수상했다. (051)554-0146 **강신재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4일 06:00 불교강좌
5일 06:25 오늘은 좋은 날
6일 11:05 아름다운 초대
7일 07:05 아침저널
8일 09:05 행복한 미소
9일 14:05 진시몬의 낭만라디오
10일 10:00 라디오 법회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4일 08:00 명상음악산책
5일 15:10 명상육아
6일 19:30 열린마당
7일 15:10 휴먼다큐
8일 19:30 절로 가는 길
9일 16:20 부처님경전이야기
10일 15:20 산중대담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7월 8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왜 지금 붓다와 노자인가(7월 7일 아침 8:35~09:20) 동양철학 사상을 대표하는 노자의 도덕경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일깨워 준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연인다인(蓮人茶人)-연화차



새벽이슬을 머금고 피어난 연꽃잎 중에 백련잎만을 정성스레 제다한 무안백련대축제 기획 상품이다.

차를 다관에 넣고 70~80℃로 식힌 물을 부은 후 2~3분 동안 우려내면 은은하고 깊은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 연잎차는 예로부터 피를 깨끗하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준다하여 불가에서 많이 마셨다. 가격 5만원

나를 바꾼 부처님법 (하)

조남희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스승님께서는 매년 미얀마에 갈 때마다 비구계를 받고 수행하신다. 비구계를 받은 스승님과 한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하나의 감동이다.

쉐우민 선원은 새벽 4시부터 예불을 시작하고 밤 9시까지 수행하도록 시간표가 짜여져 있다. 수행처에서 하는 일은 간단하다. 자기 몸 하나만 챙기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밥 먹고, 몸을 씻고 자기 빨래를 조금하고 나머지 시간동안은 수행에 정진할 수 있기에, 집에서 늘 가족들 밥을 챙기던 평범한 주부인 나는 해방감마저 느꼈다.

미얀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이지만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무상으로 밥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준다. 처음에는 밥을 먹는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없었는데 스님들의 탁발을 따라가 보고 나서야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스님들께서 탁발해 오신 것임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밥은 선원 근처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스님들께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올린 것이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밥이 어떤 인연으로 온 것인가를 알게 되자 밥 먹는 일에 대해서도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

미얀마 사람들이 스님들께 가지는 존경심은 2500년 전의 부처님 당시를 보는 것 같아 저절로 신심이 났다.

스님들이 탁발해 오시고 우리는 밥을 받아 먹으며 수행만 하면 되는데 탁발해 오시는 스님들께 미안해서라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는 생각이 확연히 들었다.

좋은 스승님을 만난 인연으로 그렇게 쉐우민 선원에서 수행하고, 미얀마의 여러 불교유산을 보고 마하시선원의 우 자띨라 스님, 우 와사와 스님, 승가대학장 스님, 쉐이진 따옹 절의 주지스님 등 큰스님들을 친견하고나니 돌아올 때 즈음에는 불법에 대한 믿음이 훌쩍 자라나 있었다.

위빠사나 수행을 처음 접했을 때는 법문을 들어도 그것을 실 수행에 적용시키기 어려웠다. 40여년의 세월동안 가져온 고정관념이 단단히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바라고 얽애려는 삶을 살아왔기에 바라지 않고 얽애려고 하지 않아야 하는 이 위빠사나 수행이 몸과 마음에 잘 적응 되지 않았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수행하는데, 오히려 수행이 되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괴로움으로 다가 왔을 때의 막막함이란….

온통 욕심내고 성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뒤범벅인 내 마음을 보니 너무나 괴롭고 보기 싫어 외면하기도 했다.

미얀마 선원서 정진 후 불심 더욱 강해져
'알아차림' 통해 관용 보시 봉사의 마음 생겨

일상에서도 알아차림을 하다 보니 쓸데없는 감정의 낭비를 하지 않게 되어 어찌 보면 냉정해지는 것 같아 두려워지기도 했다. 경행할 때 발의 움직임을 보고 걷고 있을 때, 좌선 중에 배의 일어남 꺼짐을 보면서 '이게 뭐하는 건가' 하고 의심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은 수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의식이 고양되어 지혜가 생기는 과정임을 이제는 안다.

수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의 척도는 얼마나 '화를 안내는 지'로 알 수 있다. 화내는 것은 욕심내고 성내는 불선한 마음의 대표선수 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화내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면 수행이 잘 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화가 나면 우선 화내는 마음을 본다. 화내는 마음이 너무 커서 마음을 보기 어려우면 화가 일으킨 몸의 느낌을 보기 위해 가슴을 관찰한다. 가슴으로 의식을 집중하면 쿵쿵거리거나 콩닥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켜보는 동안 화의 느낌이 옅어지거나 없어진다. 이렇게 화의 느낌을 지켜보게 됨으로써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불선업을 짓지 않게 되는 것이다.

위빠사나 수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첫 번째로 '화를 적게 낸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나는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항상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남편, 자식,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화를 내면서도 내가 화내는 것을 정당화했다.

그런데 이 수행을 배우고 나서 어느 정도 화내는 것을 제어 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시어머님과 20여년이 넘게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님은 나와는 아주 다른 사람이다. 예를 들자면 어머님은 연세가 칠십이 넘었어도 지나칠 정도로 외모를 가꾸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도 동남아, 중국, 유럽, 호주, 동유럽 등 해외 나들이를 수차례 하셨다.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은 어떻게든 하시는 분이다. 나는 그런 어머님이 싫었다. 나의 싫어하는 마음의 파장이 어머님께 미치니 어머님도 나를 싫어하셨다. 남편은 맏아들이고, 맏아들인 것을 한 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이 행동하는 효자이므로 어머님과 나는 떨어져 살 수 없는 데도 매일 미워하며 불선업을 쌓았다.

그런데 이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서 상대방의 축적된 성향은 바꿀 수 없다는 법문을 듣고, 내 몸과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을 수행을 통해 하나 하나 깨달아 가게 되니 어머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관용의 마음이 생겨났다.

그런 내 마음의 선한 파장이 어머님께도 전달이 되어 지금은 어머님도 나를 편하게 대해 주신다. 내가 변하니 남도 변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것에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 게 된 점이다.

불법을 알기 전에도 나는 전생이 있고 윤회가 있음을 믿어왔다. 하지만 그것은 다분히 나의 삶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내 삶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사주팔자 탓으로 돌렸는데 그 사주팔자는 다 내가 어느 생에선가 지어 놓은 결과라는 것을 배우고 믿게 되었다.

남의 부모와 비교했던 내 부모, 내 주위의 인연 지워진 것들, 그리고 못난 내 자신까지도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라는 사실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사주팔자를 바꾸는 단 하나의 방법은 과거에 지어 놓은 행위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림으로써 선한 마음을 내는 것뿐이다.

수행을 통하여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 그 편안해진 마음을 통해 저절로 관용의 마음이 생기며 보시하려는 마음,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긴다. 일상생활에서도 알아차림이 이어져 불선한 마음이 생기면 빨리 알아차린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것이 불선업을 막는 가장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정법만나기 어려우며, 좋은 스승 만나기 어려운데 이 어려운 것을 이번 생에 만났으니 오직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려 정진할 뿐이다.

이번 생에서 안 되면 다음 생, 다음 생에 이어지도록….

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펴시는 나의 스승 묘원 법사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인사 드리며 삼배 올린다. (끝)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나는 누구인가?



유식사상연구회 고목지음
도서출판 밀양

'마음'을 알고 '선'을 한다
유식과 선으로 참나 찾아가는 여정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끌어 간다
對自에서 卽自로.... 그 완전한 合一까지

- 연락처 : 유식사상연구회
  055)353-6142, 010-2356-6142
- 총판 : 02)3672-7181

모 집

조계사 합창단에서는 한국불교 1번지 사찰로서 대표성과 그 위상에 맞는 역할로 불음을 통한 포교활동 등 불교음악발전에 이바지 하여 주실 지휘자선생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응모자격】
– 4년제 음악대학(원) 이상 졸업자로 성악 및 합창지휘 유경험자

【제출서류】
가. 자필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주민등록등본(10일 이내 발급분), 대학·대학원 또는 최종학력 학위증서 사본 1부

【선발인원】
– 어린이, 어머니, 혼성, 거사합창단 0명

【전형방법】
가. 1차 서류 심사 : 7. 14 (목) → 선발된 분에게만 통보
나. 2차 최종 전형 : 추후 공지 → 면접 및 연주평가.

【서류접수】
가. 기 간 : 2005년 7월13일(수)
나. 접수처 :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조계사 포교국
e-mai접수 : jsh75831@hanmail.net
다. 문의사항 : 02)732-2183, fax)02)720-1391 조계사 포교국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중국국가자격
침구·지압사 취득과정안내



■ 모집인원 : 30~50명
■ 교 재 : 침구,안마 부문 전문교재 각1권
■ 강 사 : 방태수 교수
- 중국연변출생
- 장춘중의대학졸업(침술 · 지압전공)
- 기공수련자(기공고수)
- 이강사회교육원전임교수(한국국적취득)
- 연변의과대학졸업
- 내과의사(중국)
- 연변민족의약연구소 위임교수

■ 특 전 : 중국국가 자격증
- 중국연변민족의약연구소와 장춘중의학원 증서수여
- 중국국가자격증 수여

■ 교 육 : 교육 전과정 한국에서 실시
- 수강생 합격보장 100%
- 중국 침구 실용기술 수료증
- 교역자(교사,성직자,국가원공자)특혜
- 중국 침구사 자격증
- 중국 노년학회 정회원

■ 취업처 : 취득후 개인프리랜서,구민회관,사회복지관,종교단체,노인대학,요양시설 등

교육내용
❖ 침구학의 이론 부분 ❖
① 두부 혈자리 ② 상지부 혈자리
③ 하지부 혈자리 ④ 흉복부 혈자리
⑤ 척배부 혈자리
❖ 전통 침구 이론 ❖
❖ 오행자침법과 혈자리 ❖
❖ 원낙, 수모자침법 ❖
실 습

10년전통 사회교육의 전당
한국직업교육원 080-080-0090

여름철 녹차 이렇게 마시자

더위와 갈증으로 지치기 쉬운 여름이다. 목이 마르다고 차가운 물을 마음껏 들이키다간 갈증은 가라앉지 않고 자칫 배탈만 앓기 십상이다. 땀을 많이 흘리고 갈증을 쉽게 느끼는 여름철, 비타민C도 보충할 수 있고 식중독 예방 효과도 있는 시원한 녹차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



흔히 녹차라고 하면 뜨겁게만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름을 맞아 찬물에 우릴 수 있는 티백이나 가루녹차, 캔 음료 등이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간편하고 시원하게 즐기자

녹차, 차게 마셔도 될까?

흔히 '시원한 녹차'라고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차를 차갑게 마셔도 될까?'이다. 태평양 녹차연구팀 김영경 연구원은 "뜨거운 물에 우린 찻물을 상온에 두면 성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찬물에 우려내거나 우린 찻물을 냉장 보관한다면 여름철 식수대용으로 마실 수 있다"고 말한다. 보통 녹차는 80℃ 정도의 물에서는 떫은맛을 내는 카테킨 등의 폴리페놀류가, 40~50℃에서는 감칠맛을 내는 데아닌 등의 아미노산류가 쉽게 용출된다.

때문에 뜨거운 물로 우린 차에는 폴리페놀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떫은맛을 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녹차를 시원하게 마시기 위해서는 40~50℃의 낮은 온도에서 우려내거나 전용 티백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 돋보이는 녹차 효능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차는 여름에 마시면 열독을 없애준다. 체한 것을 소화시키고 불에 입은 화상을 해독시켜 준다"고 적혀 있다. 이처럼 차는 몸의 열을 내려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효과도 있다. 또한 차에는 살균, 해독, 수렴작용을 하는 카테킨과 타닌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식중독과 이질 등 여름철 질병 예방에도 좋다.

차의 식중독 예방 효과는 과학적 연구로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제8회 국제녹차심포지엄에서 '식중독균에 대한 녹차 카테킨의 항균효과'를 발표한 유키코 박사(일본 국립건강과학원)는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의 항균 기능이 O157균의 증식과 생육을 억제하는 등 "환경으로부터 오염 가능한 병원성 균의 포자를 감소시키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름철에 차를 마실 때는 우린지 하루가 지난 것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차를 우려 보관할 때는 꼭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며, 냉수와 마찬가지로 너무 차가운 차를 자주 마시면 배탈이 날 수 있다.

음료용 티백

최근에는 찬물에 우려마실 수 있는 음료용 티백이 식수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물을 끓이고 찻잎을 우려내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떫은맛이 적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찬물에서도 잘 우러나는 녹차 티백의 비밀은 제다 방법에 있다.

보통 티백용 찻잎은 증기로 찌는 시간을 90~120초 정도로 늘여 차의 성분이 쉽게 우러나도록 하는 '심증제법'을 사용해 만든다. 또한 찻잎을 잘게 분쇄해 찬물에서도 쉽게 성분이 우러나며, 탄수화물 성분이 많은 옥로차의 분말을 첨가해 감칠맛을 더하기도 한다.

가루녹차

찻잎을 분말로 만든 가루녹차는 물어 우러나지 않는 지용성 성분까지도 모두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통에 찬물과 가루녹차를 적당량 넣어 흔들어 마시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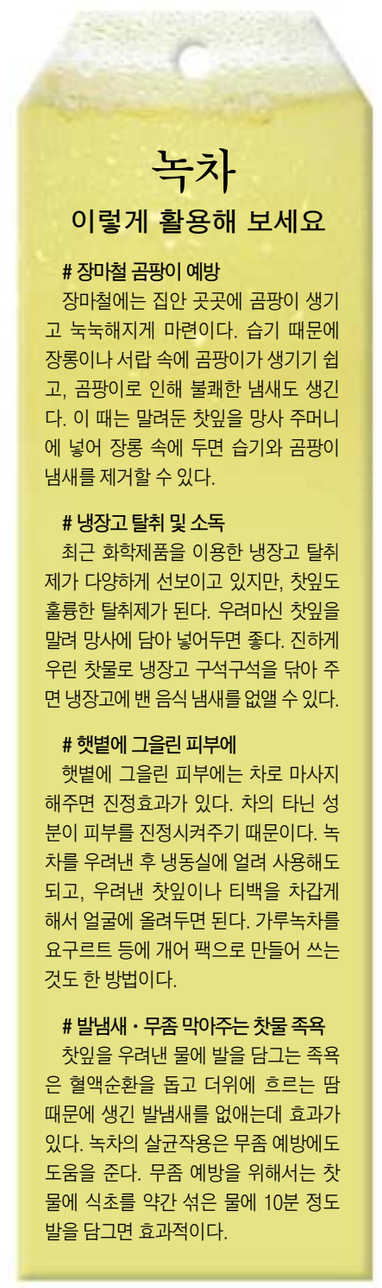
가루녹차의 성분이 물에 녹지 않아 침전물이 생겼을 때는 흔들어 마셔야 성분을 고루 섭취할 수 있다. 최근에는 찻잎을 분쇄한 기존의 가루녹차와 달리 찻잎을 우려낸 물을 과립화,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한 제품도 선보이고 있다.

잎차

별도로 티백 녹차를 구입하지 않고도 차가운 녹차를 즐기는 방법은 없을까? 한해묵은 잎차나 중급 정도의 잎차를 찬물에 5~10여분 정도 우려내면 훌륭한 냉 녹차로 즐길 수 있다. 찬물에서도 10~15분 정도 우리면 찻잎에 함유된 대부분의 성분이 우러나므로, 찻물은 꼭 냉장 보관한 후 마신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40~50℃ 온도에서 우려내 냉장보관
열 내려주고 식중독 이질 예방에 좋아
최근 찬물에 타먹는 가루녹차 등 인기



녹차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 장마철 곰팡이 예방

장마철에는 집안 곳곳에 곰팡이 생기고 눅눅해지게 마련이다. 습기 때문에 장롱이나 서랍 속에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곰팡이로 인해 불쾌한 냄새도 생긴다. 이 때는 말려둔 찻잎을 망사 주머니에 넣어 장롱 속에 두면 습기와 곰팡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 냉장고 탈취 및 소독

최근 화학제품을 이용한 냉장고 탈취제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지만, 찻잎도 훌륭한 탈취제가 된다. 우려마신 찻잎을 말려 망사에 담아 넣어두면 좋다. 진하게 우린 찻물로 냉장고 구석구석을 닦아 주면 냉장고에 밴 음식 냄새를 없앨 수 있다.

 #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는 차로 마사지해주면 진정효과가 있다. 차의 타닌 성분이 피부를 진정시켜주기 때문이다. 녹차를 우려낸 후 냉동실에 얼려 사용해도 되고, 우려낸 찻잎이나 티백을 차갑게 해서 얼굴에 올려두면 된다. 가루녹차를 요구르트 등에 개어 팩으로 만들어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발냄새 · 무좀 막아주는 찻물 족욕

찻잎을 우려낸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은 혈액순환을 돕고 더위에 흐르는 땀 때문에 생긴 발냄새를 없애는데 효과가 있다. 녹차의 살균작용은 무좀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무좀 예방을 위해서는 찻물에 식초를 약간 섞은 물에 10분 정도 발을 담그면 효과적이다.

녹차

조선시대 ⑩



조선 초에 경국(經國)의 이념으로 등장한 성리학은 퇴계나 율곡 같은 대학자를 배출했다. 자연스럽게 주희의 학문과 송대(宋代)의 다법(茶法)이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유학자들의 모임에도 차는 빠질 수 없는 음료로 등장했음을 다시(茶詩)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이 무렵부터 제반 공사(公私)의 모임을 그린 그림이나 개인적 취향의 그림에 차가 등장하게 되며, '미원계회도(薇垣契繪圖)'나 이경윤의 작품 등 이른바 우린 다화(茶畵)의 초기 작품들이 그려진다.

중국은 명대의 차생활의 지침을 기록한 책들이 많이 저술되고 국가적으로 다마교역(茶馬交易) 정책에 힘썼다.

일본은 초기 차인에 이어 다음 세대가 차문화를 주도했으니 세천삼재(細川三齋) 등의 차인이 등장했다. 그리고 우치다(宇治茶)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한다.

① 이경윤(1545~1611): 산수, 인물에 뛰어났고 다화 몇 점이 전한다.

② 소요태능(1562~1649): 연곡사와 대둔사에 부도가 있고 다시도 전한다.

③ 이수광(1563~1628): <천주실의> <지봉유설>을 쓴 실학의 선구자로, '음다육언시' '채다론' 등의 글을 썼다.

허난설헌(1563~1589): 차를 즐겨 '춘경(春景)' 등의 다시 여러 편이 전한다.

④ 허균(1569~1618): <홍길동전>을 썼으며 차를 즐기고 다시도 몇 편 남겼다.

⑤ 목대흠(1575~1638): 강릉부사를 지냈으며 다시가 여러 편 전한다.

⑥ 진계유(1558~1639): 차를 즐겨 <다동보>에 여러 다사(茶事)를 기록했다.

⑦ 도본준: 평생 차와 독서를 즐겼으며 <명급(茗閩)> 3권을 지었다.

나름: 차를 좋아해 각지를 다니며 차를 마셨으며 산에 은거하며 직접 기르기도 했다. <다해>를 썼다.

진사: <다고(茶考)>와 <람고평어(覽古評語)> 등을 썼다.

황용덕: <다설(茶說)> 10장을 썼다.

⑧ 서광계(1562~1633): <농정전서>에 다록을 천여 자 넘게 넣었다.

⑨ 사조제(1567~?): <오잡조(五雜俎)> 11편에 차에 관한 것을 썼다.

⑩ 고원준: <다승(茶乘)> 6권을 남겼다.

⑪ 주경숙: <개다별론(价茶別論)>을 썼고 차의 품평에 능했다.

⑫ 하교원(1577~1631): 민서(閩書) 방역지에 차 얘기를 썼다.

⑬ 세천삼제(1564~1600): 리휴의 칠철(七哲) 중의 한 사람으로 임란에 참전해 조선 도공을 데려가 팔대소(八代燒)를 만들었다.

⑭ 복하다원: 로드리게즈 존의 <일본교회사>에 나오는 말로, 다원에 그늘지도록 한 것을 말한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조선 유학자들 모임의 음료로 등장
중국 국가적으로 다마교역 정책 펴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560 도산서원 건립 @ 이경윤(李慶胤)의 활동 ① 1562 소요태능(逍遙太能)의 출생 ② 1563 이수광(李?光) 출생 허난설헌(許蘭雪軒)의 출생 ③ 1567 명나라 사신 내조: 행다례 1569 허균(許筠)의 출생 ④ 1570 이황의 죽음 1574 종묘제를 간소하게 함 1575 목대흠(睦大欽)의 출생 ⑤ 1577 왕이 가묘(家廟)에 친제		
명대		1558 진계유(陳繼儒) ⑥ 1559 문징명의 죽음 @ 도본준(屠本畯), 나름(羅?), 진사(陳師), 황용덕(黃龍德)의 활동 ⑦ 1562 서광계(徐光啓) ⑧ 1567 사조제(謝肇?) ⑨ @ 고원준(高元浚) ⑩ @ 주경숙(周慶叔) ⑪ 1575 <전다칠류(煎茶七類)>(서위) 1576 다마무역의 기간 설정 1577 하교원(何喬遠) ⑫	
남북조			1555 무야소구의 죽음 1564 세천삼제(細川三齋) ⑬ 1565 야소회사 일본 통신 @ 풍신수길의 등장 1576 복하다원(覆下茶園) ⑭

뇌졸증! 민간요법으로 대비하세요.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방지가 최선입니다.



폴시노 요법으로 예방하십시오.
일본의 큐슈 가고시마현 지방에서 유래되어 게이쇼엔 양로원 노인들이 실험하고 비방을 증언하여 일본 국민학교 교장회의에서 발표되었다는 민간식품 요법으로 이미 수만 명이 실험하였고, 음용한 분들은 아직 한 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소개되어 10여년 전부터 일본 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으며, 국내에도 여러 경로로 소개된 방법의 민간 식품입니다. 국내에도 각종 경로로 전파된 정확치 않은 방법으로 직접 만들어 이미 음용한 경험자도 있는 뇌졸증 방지에 도움이 되는 식품요법이니 본 요법을 평생 수회만 반복 음용한다면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접해보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폴시노 음용자로 등록하여 회원이 되시면 뇌졸증 발생시 보상 지원금을 드립니다.

(구입 금액의 300% 보상지원 : 단, 5년간 1인당 1회만 적용됩니다)
● 허가 신고번호 : 인천 제3-3-4호, 구로 제조 142호
● 품명 : 폴시노 / ● 주원료 : 매실, 머위, 기타, 혼합물

콜라겐 체감석도 판매합니다 취급점 모집

오성생활건강 사업본부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4-3호 하은빌딩 202호
전화 02)542-5214. 010-6347-6200
농 협 100015-51-030669 (예금주 : 서영숙)
국민은행 059402-04-034722 (예금주 : 서영숙)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바닥에 옴자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몸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등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곰팡이제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도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을때 자연적으로 3과로 증과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님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 부처님 진신사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향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

목조건축물



서광사

목조 건축물의 문제점
특히 곰팡이, 해충, 가루나무좀벌레, 흰개미 목재부식 이 모든것을 해결합니다.
저희 동화특수산업(주)은 목조 건축물을 과학적으로 보존에 임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
● 흰개미 방제 시스템 ● 가루나무, 좀벌래살충
● 목재, 석재, 기와발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목재전용(부식)방부제 ● 방염제

목재 복원 시스템 (특허번호 특허 제 0476325호)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주)
본사/공장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27-1
TEL. 031)451-6232 (代) FAX. 031)451-6238
HP. 011-747-2111

소원성취



신비한 영험
부엉이
길상도

구암 합장

불초 소승은 영흥도 토굴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는 승려로써 부처님 법과는 십만팔천리나 어긋나는 행위인 줄 알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바 소승이 도움이 되고자 부엉이(길상도)를 소개드립니다.
소승은 법화경을 토굴에서 10년 동안을 수행 주력한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승이 원력을 세운 달마도도 첫번째 방송에 소개된 바 많은 분들의 호응이 컸었고 지금 부엉이(길상도)를 처음 소개하려 합니다. 부엉이 길상도의 원력은 늘 노심초사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며 집을 갖고자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 자식 걱정 하시는 분, 시험을 앞둔 취업과 학업성취 등의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길상도이므로 벽에 걸어 놓으면 3년안에 원하시는 일들이 나날이 번창하여 성공 하실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주소, 나이, 생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FAX로 보내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달마도도 한점 무료 보시합니다.

TEL : 032)886-3586 H·P : 011-9458-6616
FAX : 032)886-3587
계좌번호 : 우체국 201103-02-149423 예금주 김금수

서래달마원 원장 석구암 합장

네 마음의 근본은 바로 부처이니라!

여러분! 더운데도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새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상하게도 그 한마디의 에너지를 갈이 하면서 행하는 도리에 마음을 두시고 더운데도 불구하고 오신 걸 생각할 때, 부처님들께서 고행하시면서 공부하신 그 진리를 여러분이 실천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반드시 진실하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체제불의 한마음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입을 빌려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 자체,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리는 걸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위로는 모든 물에 비친 달을 그물에 담아서 한 줄에 쥐고, 아래로는 바다의 모든 생물을 그물에 담아서 한 손에 쥐고 여러분에게 같이 응해서 나투는 도리이기 때문에 그냥 쉽사리 생각해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계의 이 모두를 물질계로 연결시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질계로만 치닫고 마음이 방황하다가는 정신계에 통신이 되질 않기 때문에 끄달리는 게 많고 걸리는 게 많고, 애고에서 병고에서 영계성에서 유전성에서 인과성에서 모두 헤어나질 못하고 쩔쩔매고 돌아가게 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두 듣고 관찰하고 상세히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발전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나아갈수록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바라밀'이라고 한다면 '무주상'이 나오죠. 무주상이라는 그 자체가 한마디의 말이지만 그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등공법에 의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상 공덕행'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천차만별 가지각색으로 수많은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는 바다로 비유한다면 바닷물 자체, 그 테두리 자체를 바로 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주상'이라는 것은 바다의 물이 그냥 그대로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주는 그 자체의 테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 즉 일체 모든 사무사유의 에너지를 전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서 진장보살입니다. 무진장보살은 무심 공덕행으로써 여러분을 대하기 때문에 위로는 에너지의 줄을 잡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들의 줄을 잡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리고 공덕법행은 바로 무주상에 한데 불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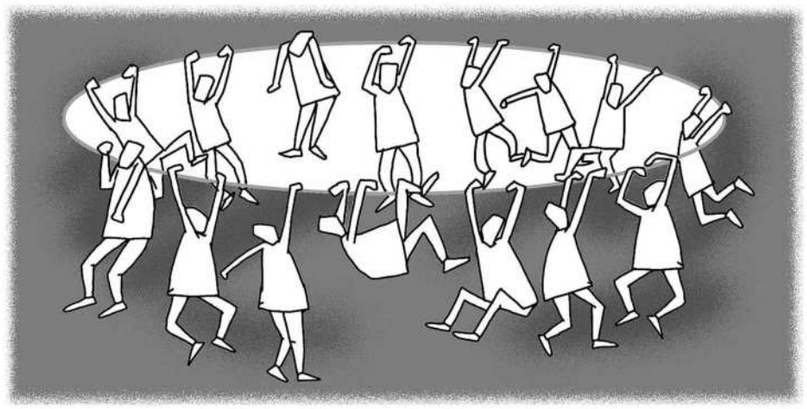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몸을 가지고 공부하는 여러분은 뭘 수 있으면 둘로 보지 않고 '곤충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찌 마음이야, 생명이야 둘이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찌 생명이야 둘이겠느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곤충이라도 밟으면 꿈틀하고 아파서 애쓰고,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보다 아주 낮은 동물이더라도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물에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고, 불에도 마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바람에도 있고 공기에도 있고 어느 곳이든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광대무변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유생 무생,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나 보이는 생명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넓게만 보지 말고 좁혀서 내 한 몸을 봐 보세요. 내 몸 하나를 본다면 내 몸 하나에 그 만 중생들이, 여러분이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이 세상에 출현했던 그 가지각색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태어나고 저 모습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화해서 나투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말입니다. 지금 이 육신 속을 보면 둥글고 한일자처럼 길고 삼각형이고, 이렇게 모두 모형이 다르고 생김도 다르지만 생명은 하나입니다. 생명은 하나! 생명은 하나로 전체가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생명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 전체를 한번 보시고 생명체들이 잔뜩 들어 있는 이 몸뚱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몸뚱이 속에서도 위로는 우주와 직결이 돼 있는데, 그 뜻은 전체 우주의 에너지와 전체 공덕법행과 모든 무심도리에 행하게 되는 그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한 법의 에너지를 바로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음의 선장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 몸뚱이 속에서 의식들이 좋고 나쁜 거를 모르고 그냥 나오는데

한생각 낸다 하는 것은 보살의 경륜으로서, 즉 한 마음의 무심, 무심주 공덕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마음을 안 내면 그냥 그 테두리의 에너지이고 마음을 낸다면 그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내려서 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부처요, 생각을 냈을 때는 법신이요, 몸을 움죽거렸을 때는 화신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응용하면서 생활하고 가는 데 그 세 가지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이름이 붙어도 그대로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 가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상 공덕행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하고 그렇게 큰데도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이치에서 큰 덩어리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다면 또 무심주 공덕행, 이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정신계와 물질계를 둘 아니게 쓰는 것을 무심이라고 그럽니다. 물질계로만 치달거나 정신계로만 치달으면 한 다리 없는 병신, 한 눈 없는 애꾸, 한 귀 없는 귀머거리라 이 소립니다. 그래서 물질계와 정신계 양면을 다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만이 법행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주 공덕행은 그 큰 덩어리의 에너지를 끌어 쓰는, 즉 말하자면 병이 들었으면 약사로 화해서 그 에너지를 끌어내려서 병자를 낫게 할 수 있는 보살행입니다. 병에도 그렇지만 각각의 종류를 다 용도에 따라서 화해서 나투는 겁니다. 지금 현 세상에서 의학을 배운 의사는 병자만 고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분야든지 다 행하는 보살의 행입니다. 즉 말하자면 의학이라든가 천체물리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전체 분야를 한 손에 한 줄에 쥐고서 용도에 따라서 다 무심행을 하는, 그 도리를 행하는 공덕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행을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내서 종류별로 화하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병자가 오면 약사가 돼 주고…, 약사가 돼 주는 데는 그 위에서 에너지를 끌어내려서 약사가 돼야 되겠죠. 에너지가 없으면 약사의 심부름을 못하니까 위로는 에너지를 끌어내리고 아래로는 바로 중생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공덕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자가 오면 어떠한 병을 막론하고, 즉 말하자면 속에서 일어나는 병 증세는 항상 과거로부터 온 것인데, 그대로 과거로 좝나에 들면서 무명을 벗겨 주는 겁니다. 인과, 유전성, 영계성을, 과거에 있는 걸 모두 지워 주기 때문에 이 현실의 병이 낫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병을 낫게 하면 바로 약사가 된 것입니다. 보살이 바로 약사로 화해서 응해 주고 그렇게 나투었다가 또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는 관세음이 되는 겁니다. 또 명이 짧은 사람이 왔을 때는 바로 죌성 부처님으로 화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분야를 쥐고 있으니까요. 이걸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바로 모든 분야를 쥔 보살은 여러분이 오면 오는 대로 그렇게 대치해 내는 겁니다. 어떤 분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여러분이 용도에 따라서 가지각색의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늠름하고 여여하게 그 보살들은 대치해 내는 겁니다. 모든 분야를 쥐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데로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지장으로 화해서 나투어 주고 하는 무

거기에 속지 말고 마음의 선장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놔라!

여러분의 마음은 나쁘고 좋고 이런 걸 잘 압니다. 왜? 수억겁 광년을 거쳐 나오면서 화해서 진화되고 돌아왔으니까요. 자꾸자꾸 다른 모습으로 진화를 시키면서 이날까지, 사람까지 올려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마음의 선장은 이름이고, 그 선장이 돌아가면서 움죽거리고 행하는 것은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이런 겁니다.

주인공은 수억겁 광년을 거쳐 왔기 때문에 그 모두를 알고 있고 한 찰나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여러분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 의식들은 나쁘고 좋고 이런 거를 도저히 모릅니다. 애꾸눈, 한 다리 병신, 귀머거리입니다. 그러나 의식으로 감각으로 인해서 그냥 자기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이 된 것처럼 입력이 돼서 현실에 그대로 그 의식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들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실은 모두 공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한 자체 이 몸뚱이 속에서…, 여러분, 그냥 지나치듯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있는 말을 하는 거지 없는 말을 끄집어내서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몸뚱이 속에서 의식들이 감각을 통해서 좋고 나쁜 거를 모르고 그냥 나오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속지 말고 마음의 선장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그 의식들은 악업 선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좋게도 나올 수 있지만 언짢게도 나옵니다. 애고의 문제, 병고의 문제, 유전성의 문제, 영계성의 문제, 인과성의 문제, 업보성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는 의식들입니다. 그런 의식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대비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오는 모든 것에 속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를 마음의 선장 주인공에다가 모두 맡기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선장은 안의 모든 중생, 자생중생들을 제도하고 다스리니까 모든 걸 거기다가 맡겨라 이 소립니다.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알아들으셨습니까?

▲대중: 예!

▲스님: 한마디 더 하겠는데, 몸속에 들어 있는 악업 선업의 의식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 한도 내에서 인연이 돼서 바로 내 몸이 생성됩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 마음의 주인이, 그걸 영혼의 뿌리라고 합니다. 나를 형성시키는 데는 바로 여자 남자의 정자 난자가 있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뿌리가 정자 난자를 빌려서 영혼과 더불어 삼합이 한데 합쳐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식이 인연에 따라서 모두 몸뚱이 속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뚱이 속에 짊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들이 눈 애꾸고 다리 병신이고 귀머거리고 그렇지만 네 마음의 근본은 바로 부처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근본과 자생중생들이 도반이 돼서 같이 있는데, 그 마음의 선장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자생중생의 항복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과거에 살던 자기한테 현실에 사는 내가 자꾸 코치를 하는 겁니다. '이 중생들을, 과거에 인연됐던 중생들을 당신만이 다 이끌어 줄 수 있고 바로 깨닫게 할 수 있고 하나로 돌아가게 할 수 있고, 모든 게 한마음이 돼서 조금도 어김없이 발전하고 대치하게끔 당신만이 할 수 있다. 당신 몸을 당신만이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고, 또 당신이 안되는 걸 되게 할 수도 있다. 모든 걸 당신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하고 대치를 해서 놓는 겁니다. 즉 선장을 세워 놓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중심을 세워 놓듯이 그 마음의 선장을 세워 놓고, 현실의 자기가 과거의 자기를 세워 놓고선 자생중생들, 그 업식, 악업 선업들을 다 거기에다 챙겨서 다스려서 둘 아니게 함으로써 밝은 참자기가 튀어나옵니다. 현실의 자기와 과거의 자기가 둘 아니게 바로 상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속세에 살면서 이렇게 마음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천하고 변천하면서 좀더 발전해야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둘 아니게 이끌어 가고 둘 아니게 행할 수 있고,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고 또는 모든 부족함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림살이 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 섭류에 있어서도 모자라는 걸 채울 수 있고, 잘하는 건 덜어서 모자라는 데다가 채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 이 세상의 주인이 돼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 내 몸 하나 끌고 가기도 힘들어서야 어찌 전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줄을 잡겠습니까?

그러니 팔만대장경이 다른 게 팔만대장경이 아닙니다. 천지를 삼키고 이 세상을 삼켜서 그 줄을 잡고서 각양각색, 유의 세계 무의 세계 모든 생명들을 다 이끌어 가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일체제불의 마음과 일치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선장이 즉 부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 생명들의 의식은 바로 중생들입니다. 그렇기

☞30면으로 계속

진짜로 믿고 진짜로 거기에 일임해서 통할 수 있어야

☞29면에서 계속

때문에 그 중생들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의 선장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실에 사는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참자기의 마음의 선장에게 모든 걸 일임시키고 마음을 굴려 가면서,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정물은 바로 맑은 물로 대치해서 생수로 쓰세요. 이거 보십시오. 바다와 같이 큰 마음은 빗물 똥물 핏물 고름물, 어떠한 물이든 모든 각종의 그 더러운 물을 다, 바다로 들어오는 것마다 맑은 물로 만듭니다. 그거를 배척하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서, 오는 것 막지 않고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가라앉혀서 씁니다. 그런데 가라앉는 거는 버리는 거냐? 그것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아래 위로 평등하게 공법을 써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데에 역점을 둔 부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 마음의 선장의 그 뜻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뜻은 높고 내 뜻은 낮다는 생각도 말고, 낮다 높다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한마음의 주인공을 잡고, 마음의 선장 주인공을 잡고 '모든 것은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고 너만이 위에서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베풀어 줄 수 있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모든 것을 맡겨서 굴려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행입니다, 공덕법행!

말을 하다 보니까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팥죽은 팥죽 그릇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거니까요. 팥죽 방울이 수효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팥죽 솥에 있는 팥죽 방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각종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옳고 저게 옳다' 아무리 탓을 해도 바로 우리는 이 지구의, 지구가 만약에 팥죽 솥이라면 팥죽 솥에 있는 팥죽 방울입니다. 그런데 그 팥죽 방울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구의 팥죽 방울이 돼서 지구라는 팥죽 솥이 어디로 지금 돌아다니는지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옳으니 내가 잘났느니 아만 아상을 가지고, 그저 굴러가는 돌인데도…, 돌도 내 스승인 줄을 모릅니다. 일체 만물 만생을 다 내 스승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거를, 기쁜 것도 보고 좀 궂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보니까 좋은 거를 가려낼 수 있는 거지 나쁜 게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였다면 진짜 좋은 거를 가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서부터 열까지,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내 스승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나고 내가 혼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안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는 바로 집합소라고 내가 항상 말을 하죠. 이 몸뚱이는 집합소입니다. 생명들이 살고 있는 집합소! 그 집합소 안에서 '나 뭐 좀 다오.' 그러면 심부름해야 돼요. 목마르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냥 물 갖다가 대령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또 배고프다고 하면 '밥 먹여야지 맛있는 것 좀 다오.' 그러면 맛있는 것 줘야지, 덥다고 그러면 부채질해 줘야지, 안에서 화기가 치밀면 부채질해 줘야 하고 시원하게 해 줘야지, 자고 싶다고 하면 재워 줘야지, 이게 심부름꾼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나가서 떼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관리인 혼자 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이 몸뚱이 속에서 움죽거려 주지 않는다면 몸뚱이 관리인은 죽습니다. 돈을 벌긴 뭘 법니까? 한쪽만 움죽거려 주지 않아도, 작용을 안 해 줘도 그냥 기울어져서 쓰러지는데 무슨 돈을 법니까? 그런데도 자기 혼자 벌었다는 겁니다, 네? 자기 혼자 벌었대요. 그리고 자기 혼자 먹었대요. 그리고 자기 혼자 똥 누었다고 그러고 자기 혼자…, 이거는 뭐든지 자기가 혼자 했대요. 그러니 아만이 높고 내가 있다는 아상이 그냥 제멋대로 생기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 내 몸뚱이도 내 몸뚱이가 아니라 '너희들의 몸뚱이'입니다. 너희들의 몸뚱이요 바로…, 내가 이런 말 하는 걸 잘 들으세요. 공생이면서 공심이면서 공체면서 공용이면서 공식화하고 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가? 공식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혼자 먹었어요? 혼자 벌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위로는 먹고 아래로는 싸고 하는 것이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공용입니다. 공심으로 공용을 하고 지금 공식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우주덩어리라고 볼 수도 있죠. 조그마한 별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도리를 안다면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잘나잘나 나투면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며, 전부 직결된 도리를 알고 전부 같이 돌아가는 도리를 알고 모든 걸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뜻을 여러분한테 지금 현실의 용어로 현실에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목탁이나 치고 염불이나 하는 것이 불교라고 생각지 마세요. 불교라는 건 이 세상 어느 분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한 평등공법에 의해서 무의 세계 유의 세계가 같이 돌아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이름이 불교예요.

여러분! 우리 몸뚱이 속에도 여러분이 한생각 내면 바로 소뇌와 대뇌가 한데 합쳐서 중뇌로 들어서 중뇌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통신이 되면 바로 사대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사대로 통신이 돼서, 우리가 같이 한마음으로 통신이 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도 또 마음과 마음이 같이 이어서 돌아가고, 전달이 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와 저 나무도 둘이 사랑을 하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람도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통해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우주의 섭류가 다 그러하거늘…. 모든 게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고 통신이 돼서 돌아가는 그 자체, 무의 세계 유의 세계가 같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교(敎)입니다, 교! 교화하는 교! 그렇기 때문에 불(佛)이라는 것은, 일체 우주의 근본 자체와 더불어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돌 하나의 생명도 바로 불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건 바로 불바퀴에 속합니다. 그래서 각색 각종의 불바퀴는 그대로 여여하게 우리에게 연결되면서 바로 직결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곤충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찌 마음이야
생명이야 둘이겠느냐!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외성도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멀게 생각하면 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마음의 선장하고 현실의 당신네들하고 통할 수 있는가? 진짜로 믿고 진짜로 거기에 일임해서 통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연결되는 걸 알고, 직결되는 걸 알고, 직결돼서 돌아가는 걸 알고, 위에서 에너지를 끌어내려서 쓸 수 있는 도리를 알고 바로 밑으로는 모두 제도할 수 있는 자유자재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 말 하면 또 엇갈려서 더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그냥 끝을 마치고…. 여러분이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대중 박수)

▲질문자1: 더위에 건강하시고…, 제가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지원 신도입니다. 제가 농사짓는 데는 해남입니다. 그런데 자고 나면 논밭이 갈라지고 많은 생명들, 풀포기 하나라도 죽어 가는 걸 볼 때면 저의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한 청을 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스님의 높으신 도력으로 단비를 주십시오.

▲스님: (합장하시며) 아니, 혼자 기우재를 아주 잘 지내고 가시네요. 하하하….

▲질문자2: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한 6년 동안 방에만 들어앉아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작년에 천도재를 올리고는 좀 좋아졌습니다. 제 손으로 밥도 해 먹고 씻고 그랬는데, 한 두 달 전부터 그냥 옷을 벗고 알몸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님: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계성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타신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안에서 의식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관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기세요. 마음의 선장한테 모든 걸 일임하세요.

자꾸자꾸 착을 두고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탁 맡기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렇게 해 놓으려면 해 놓고 말려면 말고, 하여튼 너만이 낫게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가 일임하실 수 있다면, 착을 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마음으로 인해서 난 거니까 마음에 의해서 고쳐야죠.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서 사십니까?

▲질문자2: 안양에서 삽니다.

▲스님: 네. 그러면 또 오십시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82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7-242-0808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안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범음범패집 테이프 증정)
영산범음집 한문본, 상용천도집, 범음범패집 카세트와 비디오를 가지고 계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승광불교전통미술원

• 불 상
• 탱 화
• 개 금
• 원 형 조 각
• 불 사 상 담
• 천불 삼천불
• 불 교 용 품
귀의 삼보 하옵고....
대덕 큰 스님의 성원으로 불교미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바라옵니다
전 화 02-491-5336, 02-494-7478
공 방 031-595-6557, 031-595-6558
휴대폰 011-226-5336
e-mail : 0112265336@nate.com
목우 손 동 술 합장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9697-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장마

장마철 가족 건강 지키려면

세균과 곰팡이의 천국, 장마가 시작됐다. 장마는 달갑지 않은 손님을 함께 몰고 온다. 각종 수인성 전염병, 피부염, 관절염 등이 그것이다. 습한 기온과 적은 일조량은 각종 병원균이 자라는데 최적의 조건이고 저기압은 신체건강지수의 방해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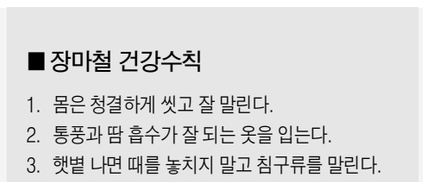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장마철에는 세균과 곰팡이로 인한 전염병 감염율은 연중 가장 높은 62%, 관절염 환자의 90% 이상이 통증을 더욱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장마철의 질병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 알아본다.



삽화=박구원

■ 장마철 건강수칙

1. 몸은 청결하게 씻고 잘 말린다.
2. 통풍과 땀 흡수가 잘 되는 옷을 입는다.
3. 햇볕 나면 때를 놓치지 말고 침구류를 말린다.
4. 2~3일에 한 번은 보일러를 틀어 집안 습기를 제거한다.
5. 옷장, 신발장, 싱크대도 2~3일에 한번씩 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6. 물은 끓여 마시고, 어패류는 날로 먹지 않는다.
7. 조리와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8. 행주, 칼, 도마, 식기 등 주방용품은 수시로 끓는 물로 소독하고 바짝 말린다.
9.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이라도 안심해선 안된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아낌없이 버린다.
10. 2주에 한 번은 에탄올을 묻힌 천으로 냉장고 구석구석을 청소한다.
11. 과일 · 야채를 충분히 섭취, 면역력을 유지한다.
12. 활동량이 적어지고 쉽게 우울해질 수 있으므로 긍정적 생각과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한다.
13. 전염성 환자가 발생하면 식기, 변기, 이부자리 등은 삶고 소독해야 한다.
14. 필요한 예방접종을 했는지 점검하고 전염병 유행 경보가 있으면 미리 해당 예방접종을 하도록 한다.



자녀들

자주 환기시켜 호흡기 질환 예방

어린이들은 독감, 인후염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장마철은 습도가 높고 밤낮의 기온 차가 크기 때문이다. 아침이나 밤에는 긴팔 옷을 입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후덥지근한 낮에는 에어컨을 틀더라도 실내외 온도차가 섭씨 5도를 넘지 않도록 한다.

외출 후 손발을 자주 씻는 것은 기본. 면역력을 높이는 단백질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감기 등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고온다습한 장마철에는 집 먼지 진드기도 번식하기 쉬워 알레르기 질환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기관지천식을 앓고 있거나 아토피질환이 있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실내 환기를 자주 하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놓거나 제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집안을 청소하고, 침구 · 옷 · 커튼 등은 섭씨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 진드기의 번식을 막을 수 있다.

엄마 · 아빠

잦은 업무 마찰 등은 우울증 의심돼

바깥활동이 많은 성인은 냉방병이나 피부질환, 활동량이 적은 주부들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을 너무 쐬 냉방병에 걸리는 직장인들이 많다. 고열과 두통,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면 '레지오넬라병'일 수 있으며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매년 냉방기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세균과 곰팡이를 제거하고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가 얼룩덜룩 색깔이 변하는 경우에도 곰팡이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 몸의 땀은 되도록 빨리 씻어내야 하고 발을 씻은 후 물기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말려야 한다. 신발이나 양말은 통풍이 잘되고 발을 건조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곰팡이로 인한 피부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습도가 높고 더운 날씨가 오래 지속되는 장마철은 불쾌지수를 높여 쉽게 짜증이 나고 우울해질 수 있다.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은 극도의 우울감, 흥미 상실이나 체중 감소, 수면장애 , 죄책감 등이다. 긴장성 두통을 자주 호소하는 사람, 농담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사람, 자주 짜증을 부리고 업무적인 마찰을 많이 겪는 사람 등은 우울증이 아닌지 한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

집안이나 사무실에서도 가급적 햇볕이 많이 드는 창가에 앉고 실내 조명을 밝게 하는 것도 우울증 예방의 방법이다. 마음을 편히 가지고 가벼운 운동 등으로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도록 해야 한다.

할아버지 · 할머니

과도한 냉방 근육통 유발, 운동 꾸준히

퇴행성관절염이 있는 노인들은 평소보다 운동량을 20%정도 높이는 것이 좋다. 장마철 악화되는 관절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운 여름철 과도한 냉방은 관절 통증을 부추기는 주범. 차가운 공기가 관절과 주변 근육을 경직시켜 통증을 악화시킨다. 습도가 높으면 체내 노폐물이 그대로 피부에 달라붙게 되면서 관절에 부종과 통증을 가중시킨다. 이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자주 해주는 것. 외출할 때 2~3시간 정도 난방을 하는 것도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된다. 또 실내 습기를 조절해 주는 벤자민이나 고무나무 등의 화분이나 숯을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히 수영은 관절염 환자에게 최고의 운동.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물속에서 걷는 동작을 반복한다. 30~40분 정도씩 일주일에 3~4회 정도 해주는 게 적당하다. 수영 이외에 온 몸의 관절과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맨손체조,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도 좋다. 그러나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을 멈추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다.

또 무더위 속 갈증 해소를 위해 습관적으로 맥주를 마시는 일이 많은데 반복될 경우 관절염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갈증이 날 때는 맥주보다 시원한 냉수나 보리차 등을 마시도록 한다.

노병철 기자

도움말=질병관리본부 박기동 방역과장, 삼성병원 송재훈 감염내과 교수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의학 산책 (22)

열 여덟 혼령(魂靈), 독특한 신체 증상

유정물 살상, 정진 소홀 등은 '혼령에 씔 수 있다'
의식 절차 따라 진언 외우고 불경 독송하며 치료

습기여름은 칠팔월로 환경적 성정이 서늘하고(凉) 지성(脂性)이 된다. 만약 체질이 때빠 형(型)인 사람이 뜨겁고 맵고 시큼한 성미(性味)의 음식을 많이 먹고 힘든 육체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몸에 때빠가 쌓이게 된다. 구시월 가을로 접어들면 기후적 성정은 따뜻하고 지성(脂性)으로 변해 때빠를 더욱 악화시키게 됨으로써 때빠장애의 병증이 드러나게 된다. 두통 고혈압 그리고 피부질환의 발적확장(發赤擴張)과 같은 병증이 바로 그것이다. 초겨울은 동지섣달에 해당하는데 기후적 환경이 차가워져 때빠를 중화하여 진정시키게 된다. 늦겨울은 정이월로 환경적 성정이 차갑고 무거우며 둔하고 기름지다. 이 절기에 체질이 왜껜형(型)인 사람이 찬음식과 날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게을리 하게 되면 왜껜이 축적되게 된다. 삼사월 봄에는 기후적 성정이 따뜻하여 왜껜장애가 병기(病氣)를 드러내 소화기질환 천식 감모 유행성감기(인플루엔자) 그리고 과체중 같은 병들이 생기게 된다. 건기여름은 오뉴월에 해당하여 환경적 성정이 가볍고 건조하여 왜껜을 중화하여 진정시키게 된다.

티베트인들은 혼령의 존재를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티베트의사들은 진단이나 처방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차도를 보이지 않으면 혼령이 씐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환자들은 혼령을 내모는 전문적인 무의(巫醫)에게 보낸다. 그러면 무의들은 엄숙한 절차와 의식에 따라 진언을 외우며 불경을 독송하여 환자의 몸에서 혼령을 몰아낸다.

다른 유정물(有情物)을 살상한다든가 보시(布施)와 정진에 소홀하여 계율을 어긴다든가 신령(神靈)들의 상을 훼손하고 욕된 말을 한다든가 아무 득이 되지 않을 언동이나 신체활동이 지나치다든가 정신적 고통으로 잠시도 편할 날이 없다든가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끊고 홀로 떨어져 사는 짓과 같은 무가치한 행위를 자주 범하면 혼령이 씔 수 있다. 티베트 의서(醫書)에 따르면 혼령에는 열여덟 가지가 있어서 사람에 씌면 저마다 독특한 양상으로 신체증상을 드러낸다고 한다.

첫째, 욕계신 령(欲界神 靈)으로 이 혼령이 씌면 청결강박증으로 시도 때도 없이 손을 씻어댄다거나 항상 흰색 옷만 고집하는 편집적 습성, 방언, 식욕상실과 같은 증상들을 보일 수 있다. 둘째, 반신계 령(半神界 靈)으로 이 영이 들면 육고기와 술을 좋아하게 되고 성질이 포악해지고 고집불통이 되며 쉴새없이 지껄여 대며 사람들의 눈을 정면으로 바로보지 못하고 흘겨보는 증상들을 보이게 된다. 셋째, 후식 령(嗅食 靈)으로 이 영이 씌면 외모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틈만 나면 옷을 바꿔 입고 향수나 음악에 푹 빠져들며 빨간색을 유독 선호하는 증상들을 보일 수 있다. 넷째, 수 령(水 靈)으로 이 영이 깃든 환자는 눈빛이 붉어지고 육고기와 우유를 좋아하게 되며 갈증이 심해 끊임없이 입술을 핥고 침을 흘려대며 절대 똑바로 눕거나 옆으로 자지 않고 엎드려 자는 증상을 보인다. 다섯째, 산 령(山 靈)으로 이 영이 씐 환자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속삭이듯 말을 하며 걸음이 급하고 의사를 싫어하며 물고기를 좋아하는 증상들을 보일 수 있다. 여섯째, 범천 령(梵天 靈)으로 이 영이 씌면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려하고 거짓으로 책이나 경서를 읽는 척하고 신체적 자해와 흉기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짓을 저지르며 큰 소리로 계속 웃어대는 증상들을 보이게 된다. 일곱째, 식인 귀신(食人 鬼神)으로 이 귀신이 씌면 남에게 독설을 퍼붓고 힘이 장사 같고 붉은 육고기 옷가지 보석 그리고 꽃을 좋아하며 고함을 질러대고 청결과는 담을 쌓아 지저분해지며 아무 의식없이 야밤중에 길을 배회하는 증상들을 보일 수 있다. 여덟째, 생식 령(生食 靈)으로 이 영이 깃든 환자는 수줍음과 죄의식이 지나치고 짜증을 잘 부리며 항상 배고파하고 말타기와 나무타기를 좋아한다. 아홉째, 걸신 령(乞神靈)으로 걸신 영이 씐 환자는 몸 특히 수족이 가늘게 여위어가고 겁에 질려 신경질적이며 의심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심해지며 즐겨먹던 음식도 입에 대지 않는 증세들을 보이게 된다.

■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사찰 (급) 안내

서울시내 강변 최적의 요지에 위치한 1백년 역사의 사찰로써, 급박한 사정에 의해 매매코자 하오니 사찰운영을 본의로 하는 원매자가 있으면 상담을 요합니다. 중개인의 개입은 사절합니다.

- 대지 : 1천평
- 건물 4동 (대웅전, 요사채 등 대형건물)
- 주변 환경이 뛰어남.
- 매매즉시 등기 이전 가능 함.

연락처
011-573-0108
011-686-0779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기적의 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진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세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마하몰 단체행사용품 지상 기획전

수련회 및 여름불교학교용품을 마하몰에서 준비하세요.(다량주문시 할인)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전화 02-732-1520 2004-8218~9

여름불교학교 T-셔츠



▮ 20수 아동 라운드티
백색 4,200원
유색 4,500원

▮ 20수 라운드 티셔츠
백색 4,500원
유색 5,000원

▮ 20수 이중 라운드티
6,000원

▮ 30수 아동 라운드티
백색 3,500원
유색 4,000원

▮ 30수 라운드 티셔츠
백색 4,000원
유색 4,500원

* 마하몰 T-셔츠 캐릭터 *



▮ 면 반바지(아동용)
백색 5,000원 유색 5,500원

▮ 면 반바지
백색 5,500원 유색 6,000원

▶사이즈 : 아동용 14호~19호, 성인용 90~110
▶나염비(1도당) 15,000원 추가(인쇄색상 추가시 인쇄비용 별도)
▶최초 주문 수량50장 (50장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기타 색상 및 로고제작은 전화상담



① 구름풍경주머니 ② 날으는연꽃 ③ 미소붓다(배색) ④ 미소붓다 ⑤ 비천상 ⑥ 연꽃워싱 ⑦ 연꽃동자 ⑧ 풍경 ⑨ 칠불 ⑩ 연꽃한송이 ⑪ 민화연꽃칠부 ⑫ 신라비천 ⑬ 와당옴

▶단체주문에 한정. 주문자의 의견을 100% 반영한 맞춤제작이 가능합니다.
▶반소매 티셔츠 20수면, 일반 라운드 네크라인 사용시(1도인쇄기준)

▮ 장당 8,500원(최소주문수량 50장)

불자시계



라운드브라운 (TCW100-1) 라운드블랙 (TCW100-2) 아크브라운 (TCW101-1) 아크블랙 (TCW101-2)

▮ 반야심경 고급손목시계
~~77,000원~~ → 55,000원



[TCW200-1] [TCW200-2] [TCW201-1]
[TCW200-3] [TCW200-4] [TCW201-2]

▮ 동자캐릭터 손목시계
19,800원

▶ 재 질 : 케스팅케이스
▶ 무브먼트 : Japan Move
▶ Print Dial
▶ 3기압 방수



▮ 헤드폰 알람시계
· 24,000원
(하늘색,은색)

▮ LED라이트 알람시계
· 18,000원
(핑크,그린,화이트)



▮ 캐릭터 벽시계 (플라스틱)
· 15,000원
※ 100개 이상 주문시

▮ 캐릭터 벽시계(원목)
· 20,000원
※ 10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불교학교 캐릭터용품



▮ 동자승 캐릭터 스티커
· 소 : 크기 60×156mm (30매) 30,000원
· 중 : 크기 130×176mm (60매) 60,000원



▮ 연꽃저금통
2,500원



▮ 동자저금통
4,500원



▮ 코끼리저금통
5,000원



▮ 풍경 차걸이
3,000원



▮ 목어 차걸이
3,000원



▮ 세면도구세트
6,000원



▮ 동동이 손수건
2,000원



▮ 여름불교학교 현수막(실사)
· 6m 60,000원, 7m 70,000원, 8m 80,000원, 높이 90cm



▮ 연실합장주
일반 6,000원 고급 20,000원

▮ 연꽃핸드폰걸이
일반 6,000원 고급 8,000원

▮ 연실열쇠고리
12,000원

▮ 연꽃목걸이
일반 6,000원 고급 14,000원

살아있는 씨앗이므로 사용하시다가 실증나면 언제든지 연실의 아랫부분을 3mm정도 잘라 물에 담궈두면 발아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재질 : 연실(연꽃씨앗) ▶사이즈 : 18mm× 13mm
(천연 연꽃씨앗이므로 크기가 일정하지 않음)
살아있는 연꽃씨앗을 이용해 핸드페인팅한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 뿔발우(5합)
15,000원



▮ 사물놀이걸망
4,500원



▮ 고급연실차걸이
20,000원

단체모자



▮ 자외선차단 썬캡
6,000원



▮ 성인용 썬캡
3,000원



▮ 아동용 썬캡
3,000원



▮ 카드썬캡
1,800원 ※ 다량구매시 할인

펼치면 멋진 썬캡으로 변신!!
접으면 명함사이즈로 보관이 간편
다양한 이미지 및 로고 삽입 가능

추천상품



▮ 다포(39×50cm)/기도포(39×80cm)
다포(백색) 900원, 다포(회색) 1,300원, 기도포(백색) 1,700원, 기도포(회색) 1,900원 ※ 100장이상 사찰명 무료인쇄



스님들의 참선원리 그대로...
허리건강을 위한 기능성방석
앉는 자세 교정을 위한 경사설계
특수연질 우레탄소재사용
항균제 및 피톤치스향 첨가

▮ 기능성 명상방석
38,000원



▮ 이미지 큐브
10,000원 ※ 다량구매시 할인



▮ 기능성 숯단주
45,000원



▮ 도실염주
일반:24,000원
특:40,000원



▮ 벽조목반야심경 두줄합장주
10,000원



▮ 사금석합장주
호안석합장주
4mm:3,000원 6,8mm:4,000원
10mm:5,000원